

|                  |
|------------------|
| 2009. 12         |
| 정책연구 2009-11(기본) |

#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 유형별 전략

2009. 12

최성애 · 박상우 · 김봉태

- 연구책임자

- 최 성 애: 제1장, 제2장, 제3장, 제5장, 제6장

- 연구진

- 박 상 우: 제4장, 제5장
- 김 봉 태: 제2장

- 외부 집필진

- 채 동 열: 제3장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최승담(한양대학교)
- 최완현(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장)

\* 연구자문위원은 산 · 학 · 연 · 정 순임

◆ 연구감리자

- 신 영 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 양극화가 어촌 및 어가에 있어서도 전국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어가소득은 전국 도시가계 소득의 약 67%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어가소득 양극화 완화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주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 고도 산업화 과정에서 어업·어촌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출 결과 과소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러한 현상은 어촌 및 어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해양법 발효 및 WTO-DDA 및 FTA 협상 진전 등에 의한 수산물 시장개방은 여전히 어업소득에 많은 의존을 하는 어촌 및 어가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여 어가소득의 불안정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어촌에서는 획득할 수 있는 주 소득원은 어업소득으로 타 소득의 획득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어업외 소득원이 다양하지 못한 어촌 여건을 감안하여 어촌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소득향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한 어업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여 갈 것 인가, 어업외 소득원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어촌의 산업화 방안이다.

어촌의 산업화란 어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여 일자리 및 어업외 소득원 창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어촌자원

의 관광화, 수산물 가공화, 브랜드개발 및 판매촉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의 산업화가 어촌 및 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촌자원의 산업화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등발전에서 벗어나 차별적 접근 시각에서 경쟁력 있는 어촌과 취약어촌으로 구분하는 등 어촌 스스로 주체가 되어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어촌 유형별 전략 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어촌의 사회경제적 실태 분석과 시사점, 어촌특성별 유형화 및 국내외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어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기본 목표 그리고 방향과 관련시책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특성을 고려한 6개의 어촌유형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어촌유형별 도입 가능한 사업 또는 시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어가소득 증대방안 및 어촌지역개발 계획 수립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정책적으로 도시가계와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어가소득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부의 최성애 연구위원, 박상우 책임연구원 그리고 김봉태 책임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이들 연구자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2009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강 종 희

# 차 례

|                   |   |
|-------------------|---|
| Executive Summary | i |
|-------------------|---|

|        |   |
|--------|---|
| 제1장 서론 | 1 |
|--------|---|

|               |   |
|---------------|---|
| 1. 연구의 필요성    | 1 |
| 2. 연구의 목적     | 4 |
| 3. 연구 범위와 방법  | 5 |
| 1) 연구범위와 내용   | 5 |
| 2) 연구방법과 추진체계 | 6 |
| 3) 선행연구 검토    | 7 |

|                    |    |
|--------------------|----|
| 제2장 어촌의 사회경제적 실태분석 | 10 |
|--------------------|----|

|                   |    |
|-------------------|----|
| 1. 인구 구조          | 10 |
| 1) 어가 수 및 어가인구 변화 | 10 |
| 2) 성별·연령별 인구 변화   | 13 |
| 3) 연령별 어업경영주      | 18 |
| 2. 취업 구조          | 19 |
| 1) 어가인구의 취업률      | 19 |
| 2) 종사분야           | 19 |
| 3) 전업·겸업의 변화      | 23 |
| 4) 종사어업의 변화       | 25 |
| 5) 생산수단의 규모 변화    | 29 |
| 6) 어업노동시간         | 33 |
| 3. 소득 구조          | 36 |
| 1) 어가소득의 변화       | 36 |
| 2) 어가경제잉여         | 42 |

|                        |    |
|------------------------|----|
| 3) 어가부채 .....          | 43 |
| 4) 어업경영주의 소득수준 .....   | 44 |
| 5) 수산물 판매규모 및 방법 ..... | 47 |
| 4. 요약 및 시사점 .....      | 54 |

### 제3장 어촌의 특성 분석과 유형화 ..... 61

|                             |     |
|-----------------------------|-----|
| 1. 특성 분석 .....              | 61  |
| 1) 분석설계 .....               | 62  |
| 2) 자료의 설명 .....             | 62  |
| 3) 변수 축약을 위한 요인분석 .....     | 71  |
| 4) 2단계 군집분석 결과 및 특징 .....   | 73  |
| 2. 유형화 .....                | 80  |
| 1) 어촌계 유형화 .....            | 80  |
| 2) 시·군 별 어촌 유형 분포와 특징 ..... | 82  |
| 3. 유형화의 시사점 .....           | 101 |
| 1) 유형화 결과의 해석 .....         | 101 |
| 2) 시사점 .....                | 104 |

### 제4장 국내외 사례 연구 ..... 106

|   |     |
|---|-----|
| 1. 국내사례 .....                                 | 106 |
| 1) 사회적 기업 .....                               | 106 |
| 2)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 .....                  | 112 |
| 3)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검토 .....               | 116 |
| 2. 일본사례 .....                                 | 127 |
| 1) 해업(海業)의 진흥 .....                           | 127 |
| 2)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를 통한 지역 활성화 · | 136 |

|                                      |            |
|--------------------------------------|------------|
| 3. 시사점 .....                         | 139        |
| <b>제5장 소득 향상을 위한 어촌 유형별 전략</b> ..... | <b>142</b> |
| 1. 목표 및 기본방향 .....                   | 142        |
| 1) 목표 .....                          | 142        |
| 2) 기본방향 .....                        | 143        |
| 2. 어촌 유형별 전략 .....                   | 150        |
| 1) 근교 복합 관광형 어촌(Ⅰ 유형) .....          | 151        |
| 2) 어촌관광형 어촌(Ⅱ 유형) .....              | 154        |
| 3) 양식어업 특화형 어촌(Ⅲ 유형) .....           | 154        |
| 4) 취락형 어촌(Ⅵ 유형) .....                | 155        |
| 5) 지역관광형 어촌(Ⅴ 유형) .....              | 156        |
| 6) 근교관광형 어촌(Ⅵ 유형) .....              | 157        |
| <b>제6장 결론</b> .....                  | <b>159</b> |
| 1. 요약 및 결론 .....                     | 159        |
| 2. 정책제언 .....                        | 159        |
| <b>참고문헌</b> .....                    | <b>161</b> |
| <b>부록1 통계분석 상세내용</b> .....           | <b>165</b> |
| <b>부록2 어업인 설문 조사</b> .....           | <b>175</b> |

## Executive Summary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필요성

최근 연구에 따르면<sup>1)</sup>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OECD에 의하면 회원국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9개 구간으로 나눈 뒤 최상위(9분위)의 소득이 최하위(1분위)소득의 몇 배인지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2007년 기준 4.74배로 미국(4.85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소득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불평등도가 1997년 3.72보다 1.02포인트 상승하였으며 10년마다 분석대상인 OECD 회원 21개국 가운데 소득 양극화 속도는 최고로 지난 10년간 소득양극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어가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sup>2)</sup>. 2007년 기준 어가의 경우 최상위(5분위)소득이 최하위(1분위)소득의 15.26배로 전국 평균 4.74배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어가의 소득양극화는 전국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8년의 경우 평균 어가소득은 전국도시가계 소득의 약 67%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 소득확보가 국가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고도 산업화 과정에서 어업·어촌인구의 급격한

---

1) 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2009.10.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2006.

도시 유출의 결과 과소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것은 어촌 및 어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유엔해양법 발효 및 WTO-DDA 및 FTA 협상 진전 등 시장개방 등에 의한 소득 불안정은 여전히 어업소득에 많은 의존을 하는 어가 및 어촌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어가의 주요한 소득원인 수산업은 GDP가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6% 정도에 불과하며, 60세 이상의 고령어가 28%이상, 8톤 미만 어선보유 또는 0.5ha 미만 양식장 보유의 영세한 어가가 70%이상을 차지하는 등 취약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약한 사회경제적 구조로 어업소득 향상에 의한 총 어가소득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많다. 이러한 총 어가소득의 정체 내지 상대적 감소로 어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과소화와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어가 및 어촌에서 구조화 내지는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정부는 이러한 어가 및 어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5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농어촌의 소득, 일자리, 복지, 교육, 의료, 지역개발 등에 대하여 총체적이고 종합적 접근에 의한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및농림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sup>3)</sup>. 그리고 어가·어촌만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그리고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등 어촌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차원에서의 노력 및 어촌 단독의 개발 사업 등으로 그동안 어느 정도 효과도 거양하였으나 도시와의 수준격차는 좁혀들지 않고<sup>4)</sup>,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및 어메니티를 활용·산업화하여 어가 및

3) 어촌과 관련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성에 외 2인(2007)에 의해 수행된 ‘어촌사회 양극화 완화방안 관한 연구’에서 복지, 교육, 의료, 지역개발 등의 부문별로 어촌과 도시·농촌과의 격차실태를 분석하고 각 부문별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하고 있음.

어촌 스스로의 자생력과 역량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어촌내부 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어촌은 건강, 웰빙 또는 쾌적한 생활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욕구 및 성향에 적합한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어촌공간을 잘 디자인하고 가꾸어서 경쟁력 있는 상품, 돈 버는 어가·어촌으로 만드는 적절한 전략과 정책수단이 요구된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로 새로운 행정조직이 탄생하면서 복지, 의료, 교육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해서는 때로는 농촌과 함께 때로는 어촌 단독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들 부문은 어가·어촌의 스스로에 의한 자생적 노력보다는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소득부문에 있어서는 어가·어촌 스스로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므로 어떻게 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것인가가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시장개방의 진전 및 어업비용 상승 등으로 어업소득의 향상을 더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업외 소득의 기회조차 미흡한 어촌의 여건 속에서 어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이다.

이러한 어가소득 증대와 연계한 방안으로 어촌 및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경쟁력 있는 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어촌자원의 산업화 방안이다. 즉 어촌이 보유한 어업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 및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산업화하고 고부가가치를 통하여 어가의 총소득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론 차원에서 어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어가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방향은 이미 설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방향을 효율적으로 실현하

---

4) 최근 이를 인식한 정부에서는 도시와의 격차를 줄이는 농어촌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마련 중에 있음.

기 위한 각론 차원에서의 어촌유형별 접근 방안은 부재한데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어촌유형별 접근 방안에 대한 연구를 준거의 틀로 삼아 어촌에서는 보유자원의 산업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의 목적

어가와 도시가계와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져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어 어가 스스로 뿐 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소득양극화 완화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어촌실태 및 어업인 의식조사 등에 의하면 도시로의 이주 이유 중에서 소득문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소득기회가 주어지고 기타 정주여건이 열악할 경우 주로 어가의 가족원만 교육 등의 이유로 타 도시로 이주하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가 전체가 도시로 이주하여 어촌의 공동화를 더욱 부추기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촌에서 획득할 수 있는 주 소득원은 어업소득으로 타 소득의 획득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어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득 및 일자리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어업외 소득원이 다양하지 못한 여건을 감안하여 어촌의 다양한 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소득향상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어업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여 갈 것인가, 어업외 소득원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어촌의 산업화 방안이 바로 그 것이다. 어촌의 산업화란 어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여 일자리 및 어업외 소득원 창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예들 들면 어촌자원의 관광화, 수산물 가공화, 브랜드개발 및 판매촉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 산업화가 어촌 및 어가의 소득증대의 좋은 대안으로 간주하여 어촌자원의 산업화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등발전에서 벗어나 차별적 접근 시각에서 경쟁력 있는 어촌과 취약어촌으로 구분하는 등 어촌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는 어촌 유형별로 발전 전략의 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3. 연구 범위와 방법

#### 1) 연구범위와 내용

본 연구는 어촌의 산업화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의 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기초 분석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여기서 어촌이란 행정주소에 의한 공간 구분보다는 전통적으로 어업활동과 연계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촌락을 형성해온 공간범주를 의미하는데 간단히 표현하면 어촌계의 권한과 역량이 미치는 공간범주가 본 연구에서의 어촌의 공간적 범주<sup>5)</sup>에 해당된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어가의 소득획득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소득과 관련한 어가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어촌유형 분류, 국내외 사례연구 그리고 유형별 어촌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어가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과거 30년 동안의 추이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어가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인구, 소득 및 취업 구조 측면에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변화추이

---

5) 어가는 있지만 어촌계를 형성하지 않는 도시의 경우는 어촌이라 볼 수 없음.

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어가소득 증대의 요인으로 어촌관광, 수산물 생산 그리고 지역관광의 변인을 고려한 어촌의 특성 분석에 의한 어촌의 유형화 분류를 시도하고 유형별 특징을 살펴본다.

제4장은 국내외 사례연구로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농어업·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촌과 농촌과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현행의 어촌관련 개발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어촌개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한다. 아울러 어촌발전 전략에 참고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사례로 일본의 해업 진흥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아울러 어가소득향상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그리고 관련 시책을 살펴보고, 어촌 유형별 발전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 6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본 연구에서 제안된 어촌발전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 2) 연구방법과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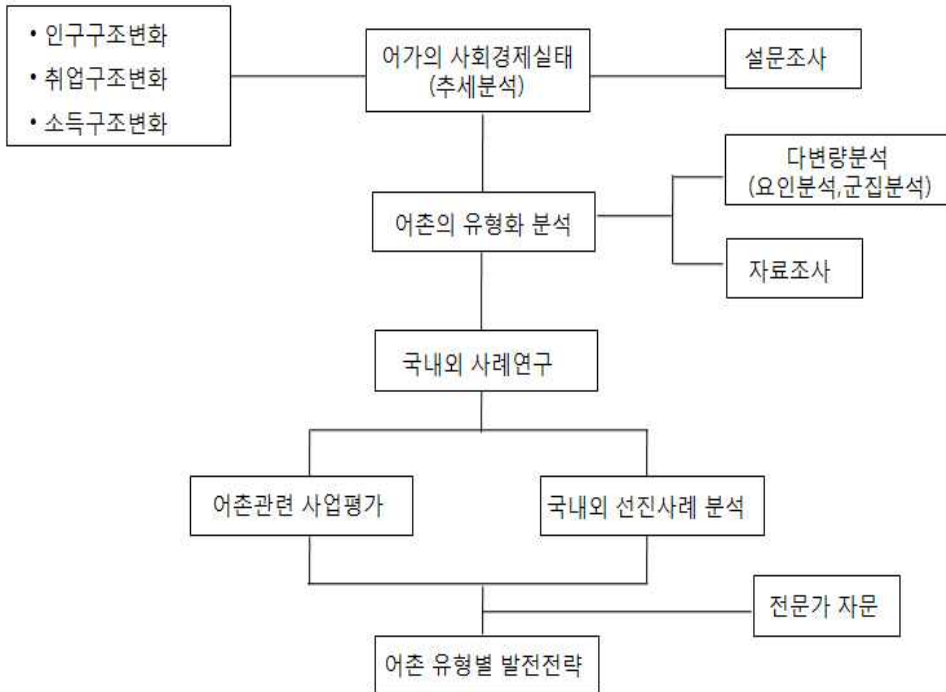
본 연구는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 및 국내외 사례조사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청취 등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및 관련 참고문헌 검토를 통한 문헌조사는 어촌사회 구조변화 분석 방법 및 발전전략 방안마련에 참고가 되었다. 자료 분석에서는 어업총조사 및 어업조사의 과거 30년간 자료를 추세 분석하였다. 그리고 추세분석 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어촌계 및 부족한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료 수집으로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다변량 분석에 의한 어촌의 유형화 분석을 하였다. 특히 어촌 유형화 분석은 계량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

행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사례연구는 현지 출장, 자료수집 및 전화설문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추진 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 그림 1-1 | 연구 추진 체계

### 3)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하나는 지역개발의 접근 방식에 관한 최근 사례 및 이론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촌사회 구조분석에 관련된 선행연구이다.

먼저 지역개발의 접근 방식에 관한 이론으로 최근 논의의 중심에 있는 균형발전에 관한 것으로 과연 지역개발정책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은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KDI에서는 고영선 편(2009)『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균형발전’은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표방될 것으로 판단하여 균형발전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향후 균형발전 정책방향은 지역의 개발의지와 정책역량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므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어촌발전 전략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다음으로 어촌사회 구조분석과 직접 관련된 선행연구는 없지만 유사연구로 주로 농촌사회를 대상으로 농촌경제 연구원 및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농촌경제연구원의 오내원 외(1998) 「한국농촌사회 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김정호 외(2003)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변화 분석」 및 박대식 외(2003) 「농촌지역사회의 변동 동향과 전망」의 연구는 농촌과 농업의 구조 및 변화분석 연구로 본 연구의 어촌사회 구조변화 분석의 틀을 구성함에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청(2008) 「농촌발전에 부응한 농촌사회 개발연구 강화전략」은 최근 연구로서 농촌사회의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본방향 설정 및 농촌사회 개발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본 연구의 어촌발전 전략과 과제를 제시함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 표 1-1 | 선행연구 검토 요약

| 구 분            |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
|----------------|---|---|---|---|
|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주요<br>선행<br>연구 | 1 | -과제명: 농촌의 내발진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간 비교연구<br>-연구자(년도): 김태곤 외(2006)<br>-연구목적: 농촌지역활성화의 대안제시                                      | -문헌 및<br>현지조사<br>-워크숍개최                       | -내발적 발전론과 농촌지역 활성화<br>-농촌지역 사회조직과 지도력 구조<br>-마을영농의 실태와 과제<br>-마을만들기 사업의 전개와 특징  |
|                | 2 | -과제명: 1990·1995·2000<br>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에 분석<br>-연구자(년도): 김정호 외(2003)<br>-연구목적: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br>농업구조변화를 분석하고 미래 예측       | -문헌조사<br>-통계분석                                | -농업구조 분석의 이론 검토<br>-가족구조와 농가형태 변화<br>-농가인구와 노동력 구조의 변화<br>-토지이용 구조의 변화<br>-농업생산과 경영조직의 변화<br>-지역농업구조의 변화<br>-정책건의   |
|                | 3 | -과제명: 농촌 지역사회의 변동 동향과 전망<br>-연구자(년도): 박대식 외(2003)<br>-연구목적: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br>농촌지역사회의 변화 동향 파악, 미래 전망                    | -문헌조사<br>-통계분석<br>-심층사례조사                     | -농촌 지역사회 변화관련 이론 검토<br>-농촌인구의 변화 동향<br>-사례조사 지역의 변화 동향<br>-선진국의 농촌사회 변화 동향<br>-농촌 지역사회 변화 동향과 전망  |
|                | 4 | -과제명: 농촌발전에 부응한<br>농촌사회개발 연구 강화전략<br>-연구자(년도): 농촌진흥청(2008)<br>-연구목적: 농촌사회의 시장경쟁력을<br>가질 수 있는 기본방향설정 및<br>농촌사회개발 강화방안 모색 | -문헌조사<br>-통계분석<br>-선진사례분석<br>-설문조사<br>-국내사례조사 | -농촌사회의 여건변화와 트랜드전망<br>-농촌사회개발모형수립<br>-농촌사회변화의 대응 로드맵<br>-농촌사회개발연구강화 중장기로드맵<br>-선진국 농촌지역사회 개발정책지원<br>체계분석<br>-한국 농촌지역사회개발 정책지원<br>체계분석<br>-농촌지역사회개발 정책지원<br>체계사례 분석<br>-농촌지역사회개발 정책지원체계<br>구축방안 제시 |
| 본 연구           |   | -본 연구는 어촌을 대상으로 어가의<br>사회경제적 실태를 살펴보고<br>어촌·어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br>중에서 소득문제에 초점을 두고<br>소득회득을 위한 어촌유형별<br>발전전략의 제시에 목적을 둠    | -문헌조사<br>-통계자료분석<br>-국내외사례<br>분석<br>-설문조사     | -어가의 사회경제적 실태분석<br>-어촌의 특성과 유형화<br>-국내외 사례분석<br>-어촌발전전략 및 정책과제  |

## 제2장 어촌의 사회경제적 실태 분석

여기에서는 어촌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어가소득과 관련성이 깊은 인구 구조, 취업구조 및 소득구조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포함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어가소득의 변화 분석을 통해 향후 소득 향상을 위한 과제 도출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어가의 인구, 취업 구조 등을 함께 살펴봄으로서 어가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그 변화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어촌의 사회경제적 실태분석에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로 우선 5년마다 우리나라 전체 어가를 대상으로 조사·집계한 어업총조사 자료가 있다. 그리고 어업총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어가소득과 관련하여는 매년 표본 조사하여 집계하는 어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아울러 어업총조사 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에 매년 표본 조사하여 집계하는 어업기본 자료를 분석하여 최근 동향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 활용한 어업총조사, 어가경제조사 및 어업조사의 기초 자료는 통계청의 공식자료이며, 과거 30년 동안의 추이 분석을 통하여 어가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부 통계자료 분석결과에 대한 이유 및 의문점,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 등과 관련하여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sup>6)</sup>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 1. 인구 구조

#### 1) 어가수 및 어가인구 변화

---

6) 표본 364개 어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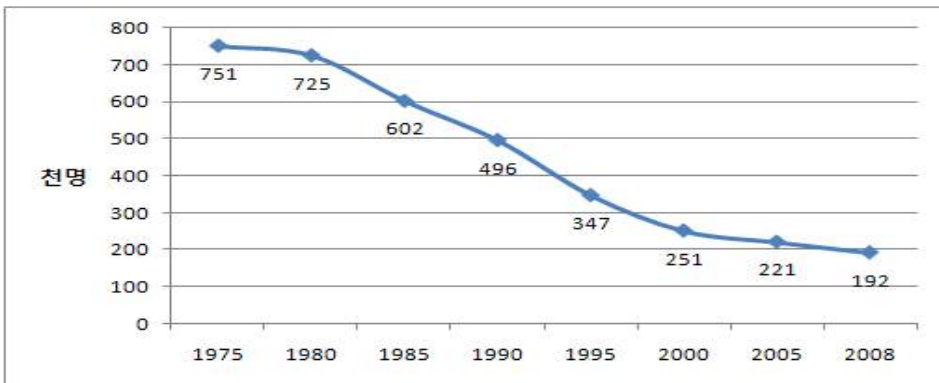
우리나라 어가의 인구는 경제발전 및 도시화에 따른 인구유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를 나타낸 것이 <표 2-1>이다. 1980년 현재 어가수와 어가인구는 13만 4,109가구, 72만 5,314명으로 어가당 인구가 5.41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30년이 경과한 2008년 어가수와 어가인구는 7만 1,046가구, 19만 2,341명이며 어가당 인구는 2.7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1980년의 53%, 27%, 50%의 수준이다. 연평균 감소율로 보면 어가수는 11.7%씩, 어가인구는 22.9%씩 감소하였고 어가인구의 감소율이 어가수의 감소율보다 높아 가구당 인구수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 표 2-1 | 어가수 및 어가인구의 변화 추이

단위: 가구, 명, %

| 구 분  |   | 1980<br>(a) | 1990    | 1995    | 2000    | 2005    | 2008<br>(b) | 연평균<br>증감율 | (b)/(a) |
|------|---|-------------|---------|---------|---------|---------|-------------|------------|---------|
| 어가수  |   | 134,109     | 121,525 | 104,480 | 81,571  | 79,942  | 71,046      | -11.7      | 53      |
| 어가인구 |   | 725,314     | 496,089 | 347,210 | 251,349 | 221,132 | 192,341     | -22.9      | 27      |
| 성별   | 남 | 371,287     | 248,839 | 171,793 | 126,775 | 110,658 | 95,856      | -23.2      | 26      |
|      | 여 | 354,027     | 247,250 | 175,417 | 124,574 | 110,474 | 96,485      | -22.4      | 27      |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통계청, 「어업조사」.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09.4.30.

| 그림 2-1 | 어가인구 변화 추이

시·도별 지역 어가인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부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어가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부산시 어가인구가 연평균 2.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전국적으로 어가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참조).

특히 지역별 어가인구는 도시화가 많이 진전된 수도권 경기지역에서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강원, 전남, 경북 등의 순으로 연평균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2 | 시·도별 어가인구 변화추이

단위: 명, %

| 지 역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연평균<br>증가율 |
|-----|---------|---------|---------|---------|---------|--------|--------|------------|
| 부산  | 5,996   | 11,459  | 10,839  | 21,527  | 19,694  | 12,968 | 10,800 | 2.0        |
| 인천  | -       | 11,326  | 9,119   | 10,099  | 13,868  | 8,624  | 8,803  | -          |
| 울산  | -       | -       | -       | -       | -       | 3,932  | 3,462  | -          |
| 경기  | 39,144  | 29,781  | 31,649  | 21,889  | 7,841   | 5,790  | 3,868  | -7.4       |
| 강원  | 89,714  | 61,974  | 52,659  | 28,918  | 21,302  | 15,989 | 12,605 | -6.3       |
| 충남  | 60,267  | 73,754  | 55,567  | 54,158  | 39,519  | 27,575 | 27,309 | -2.6       |
| 전북  | 19,656  | 20,596  | 21,770  | 23,478  | 16,855  | 13,170 | 10,182 | -2.2       |
| 전남  | 310,259 | 304,575 | 253,344 | 186,198 | 116,904 | 80,247 | 68,603 | -4.9       |
| 경북  | 65,612  | 56,942  | 34,849  | 29,363  | 22,326  | 17,642 | 14,998 | -4.8       |
| 경남  | 111,656 | 112,529 | 96,094  | 87,031  | 62,467  | 44,121 | 41,811 | -3.2       |
| 제주  | 49,049  | 42,378  | 36,347  | 33,428  | 26,434  | 21,281 | 18,617 | -3.2       |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http://www.kosis.kr)), 2009. 4. 30.

## 2) 성별 · 연령별 인구 변화

### (1) 성별 · 연령별 인구

과거 30년 동안의 어가인구의 성별·연령계층별 변화 및 구성비 추이를 <표 2-3>에 제시하였다. 2008년도 남자어가인구는 1980년의 약 26%, 여자어가인구는 약 27%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구성비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높아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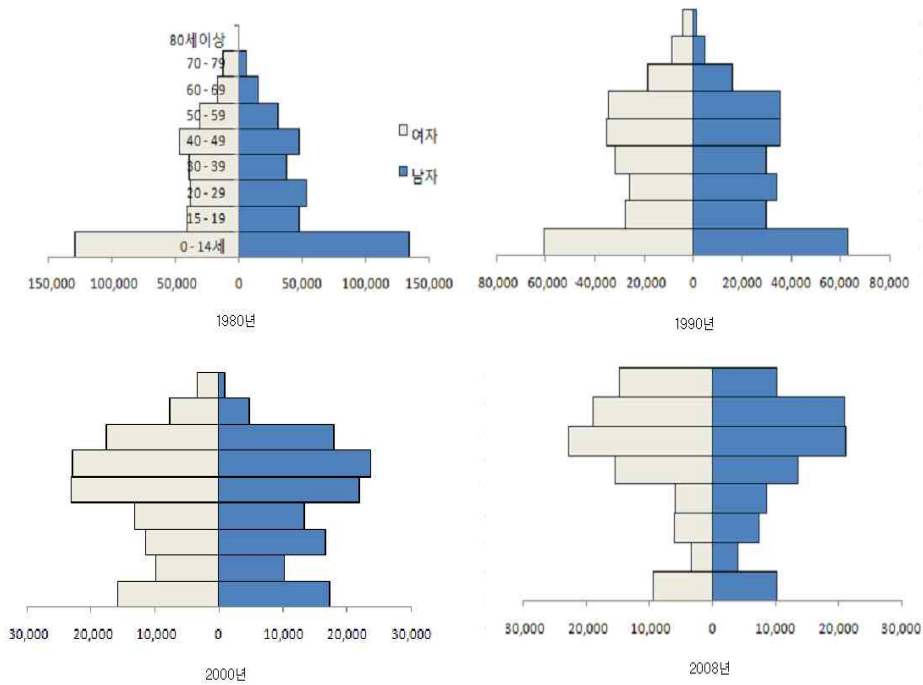
연령계층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 40세미만의 인구가 전체의 72%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28.4%에 불과하다. 즉 30대 미만의 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대 이상의 어가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40세를 기준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60세 이상의 연령계층에서 남자인구의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남성의 수명이 늘어난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 표 2-3 | 성별·연령계층별 인구변화 추이

단위: 명, %

| 연령별   | 성별 | 1980<br>(a)       | 1990    | 1995    | 2000    | 2005    | 2008<br>(b)      | b/a   |
|-------|----|-------------------|---------|---------|---------|---------|------------------|-------|
| 계     | 계  | 725,314<br>(100)  | 496,089 | 347,210 | 251,349 | 221,132 | 192,341<br>(100) | 26.5  |
|       | 남  | 371,287<br>(51.2) | 248,839 | 171,793 | 126,775 | 110,658 | 95,856<br>(49.8) | 25.8  |
|       | 여  | 354,027<br>(48.8) | 247,250 | 175,417 | 124,574 | 110,474 | 96,485<br>(50.2) | 27.3  |
| ~15   | 계  | 263,491<br>(36.3) | 123,634 | 58,293  | 33,119  | 24,113  | 19,583<br>(10.2) | 7.4   |
|       | 남  | 133,944           | 62,800  | 29,832  | 17,341  | 12,882  | 10,185           | 7.6   |
|       | 여  | 129,547           | 60,834  | 28,461  | 15,778  | 11,231  | 9,397            | 7.3   |
| 15~19 | 계  | 88,392<br>(12.2)  | 57,342  | 34,408  | 19,897  | 10,926  | 7,384<br>(3.8)   | 8.4   |
|       | 남  | 47,812            | 29,618  | 17,313  | 10,142  | 5,693   | 3,950            | 8.3   |
|       | 여  | 40,580            | 27,724  | 17,095  | 9,755   | 5,233   | 3,434            | 8.5   |
| 20~29 | 계  | 91,261<br>(12.6)  | 59,469  | 36,397  | 28,096  | 20,390  | 13,386<br>(7.0)  | 14.7  |
|       | 남  | 53,049            | 33,851  | 20,846  | 16,641  | 11,642  | 7,421            | 14.0  |
|       | 여  | 38,212            | 25,618  | 15,551  | 11,455  | 8,748   | 5,965            | 15.6  |
| 30~39 | 계  | 77,151<br>(10.6)  | 61,547  | 40,684  | 26,553  | 17,826  | 14,322<br>(7.4)  | 18.6  |
|       | 남  | 37,721            | 29,828  | 19,172  | 13,384  | 9,942   | 8,476            | 22.5  |
|       | 여  | 39,430            | 31,719  | 21,512  | 13,169  | 7,884   | 5,846            | 14.8  |
| 40~49 | 계  | 94,018<br>(13.0)  | 70,472  | 56,429  | 45,059  | 38,602  | 28,967<br>(15.1) | 30.8  |
|       | 남  | 47,386            | 35,232  | 27,957  | 21,961  | 18,228  | 13,569           | 28.6  |
|       | 여  | 46,632            | 35,240  | 28,472  | 23,098  | 20,374  | 15,398           | 33.0  |
| 50~59 | 계  | 61,380<br>(8.5)   | 69,885  | 62,219  | 46,464  | 46,778  | 43,914<br>(22.8) | 71.5  |
|       | 남  | 30,484            | 35,337  | 30,769  | 23,653  | 23,474  | 21,108           | 69.2  |
|       | 여  | 30,896            | 34,548  | 31,450  | 22,811  | 23,304  | 22,806           | 73.8  |
| 60~69 | 계  | 31,290<br>(4.3)   | 34,602  | 39,400  | 35,530  | 39,827  | 39,769<br>(20.7) | 127.1 |
|       | 남  | 14,862            | 16,092  | 19,151  | 17,988  | 20,029  | 20,878           | 140.5 |
|       | 여  | 16,428            | 18,510  | 20,249  | 17,542  | 19,798  | 18,891           | 115.0 |
| 70~   | 계  | 18,331<br>(2.5)   | 19,138  | 19,380  | 16,631  | 22,670  | 25,016<br>(13.0) | 136.5 |
|       | 남  | 6,029             | 6,081   | 6,753   | 5,665   | 8,768   | 10,269           | 170.3 |
|       | 여  | 12,302            | 13,057  | 12,627  | 10,966  | 13,902  | 14,747           | 119.9 |

자료 : 통계청, 「어업조사」.



| 그림 2-2 | 어가인구의 피라미드 변화

1980년 어가인구의 피라미드는 15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자형태를 띠고 있다. 약 30년이 지난 2008년의 경우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33.7%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젊은 층이 격감한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었다. 즉, 어가인구 구조는 얇은 젊은 연령층과 두터운 고령층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그림 2-2> 참조).

그리고 초중학교보다는 고교 취학령기에 해당하는 15-19세의 어가인구가 가장 낮은 구성비(3.8%)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타 도시의 고교로 진학하기 위해 어촌을 떠나 외지로 유학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2) 고령화 정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어가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인구학적 측면에서 어촌은 과소화와 고령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비중 즉 고령화 정도를 살펴보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전국 고령화 지수는 10.2로 고령사회<sup>7)</sup>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촌은 22.6으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해 있다. 농촌은 고령화 지수가 무려 33.3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촌보다 몇 년 앞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표 2-4> 참조).

| 표 2-4 | 65세 이상 인구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08 |
|-----|------|------|------|------|------|------|------|------|
| 전국  | 3.4  | 3.7  | 4.1  | 4.8  | 5.9  | 7.3  | 9.3  | 10.2 |
| 동   | 2.2  | 2.5  | 2.9  | 3.4  | 4.3  | 5.5  | 7.2  | -    |
| 읍·면 | 5.6  | 7.5  | 9.9  | 12.7 | 18.5 | 24.5 | 33.8 | -    |
| 농가  | -    | 6.7  | -    | 11.5 | 16.1 | 21.7 | 29.1 | 33.3 |
| 어가  | -    | 4.6  | -    | 7.2  | 11.0 | 12.2 | 18.8 | 22.6 |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http://www.kosis.kr)), 2009. 4. 30.

7)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때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하며 UN의 기준에 따르면

-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 **고령사회**(Aged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나타냄.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됨. 일본의 경우는 70년에 고령화사회로, 이어 1994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함.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경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2026년경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표 2-5 | 시도별 어가인구 고령화 비중

단위: %

| 시 도 별 | 65세 이상 어가인구(고령화 비중) |       |
|-------|---------------------|-------|
|       | 2000년               | 2008년 |
| 전 국   | 12.2                | 22.6  |
| 부산광역시 | 7.6                 | 18.5  |
| 인천광역시 | 16.2                | 30.1  |
| 울산광역시 | 9.8                 | 20.4  |
| 경기도   | 13.8                | 22.1  |
| 강원도   | 7.8                 | 14.2  |
| 충청남도  | 15.6                | 24.7  |
| 전라북도  | 11.1                | 16.7  |
| 전라남도  | 12.9                | 23.5  |
| 경상북도  | 10.1                | 18.4  |
| 경상남도  | 13.0                | 24.8  |
| 제주도   | 10.9                | 23.8  |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2000)」.

통계청, 「어업조사(2008)」.

<표 2-5>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도별 어가의 고령화 정도를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어가의 전국 평균 고령화 지수 22.6%보다 큰 지역은 인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도로 나타났다. 도서지역이 많은 인천과 해녀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제주도 그리고 전통적 어업세력이 강한 충남, 전남 그리고 경남에 고령의 어가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권인 부산과 울산, 동해안의 강원도와 경상북도, 전라북도 지역의 어가 고령화 정도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령별 어업경영주

어업경영주는 어가의 가장으로 어촌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어업활동의 주요 노동력으로서 그 역량과 역할이 어업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다.

어업경영주의 연령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도 50세 미만이 53%, 50세 이상이 46.9%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각각 20%, 80%로 어업경영주의 연령별 구성비에 큰 변화를 볼 수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업경영주 구성비가 48.5%로 전체 어업종사자의 60세 이상 구성비 33.7%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고령의 어업경영주가 다수를 차지할 뿐 아니라, 노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40세 미만의 어업경영주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여 어업 노동력의 질적 저하 문제가 예상된다.

표 2-6 | 연령별 어업경영주 변화추이

(단위: 명, %)

| 연령별     | 1990(a)          | 1995    | 2000   | 2005   | 2008(b)          | b/a   |
|---------|------------------|---------|--------|--------|------------------|-------|
| 계       | 121,525<br>(100) | 104,480 | 81,571 | 79,942 | 71,046<br>(100)  | 58.5  |
| ~ 39    | 28,295<br>(23.3) | 15,174  | 8,797  | 4,147  | 2,667<br>(3.8)   | 9.4   |
| 40 ~ 49 | 36,237<br>(29.8) | 28,498  | 21,803 | 16,987 | 11,520<br>(16.2) | 31.8  |
| 50 ~ 59 | 38,264<br>(31.5) | 34,098  | 25,527 | 25,273 | 22,524<br>(31.7) | 58.9  |
| 60 ~ 69 | 15,970<br>(13.1) | 21,708  | 20,395 | 23,664 | 23,688<br>(33.3) | 148.3 |
| 70 ~    | 2,759<br>(2.3)   | 5,002   | 5,049  | 9,871  | 10,646<br>(15.0) | 38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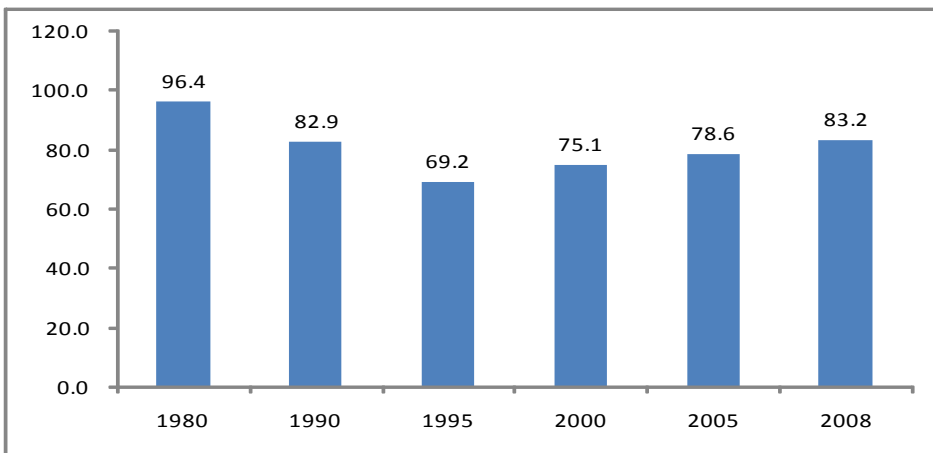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업조사」.

## 2. 취업 구조

### 1) 어가인구의 취업률

어가인구는 주로 가족원으로 구성되는데 취업 가능한 15세 이상 어가인구의 주 종사분야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2-3>과 <표 2-7> 이다. 어가인구의 취업률의 변화를 보면 1980년 약 96%에서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약 83%로 회복하였다.

이처럼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가인구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어촌 인구의 노령화가 도시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어촌 노령자의 상당 부분이 생계유지를 위해 어업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그림 2-3 | 어가인구의 취업률 변화 추이

### 2) 종사분야

| 표 2-7 | 어가인구의 주 종사분야 변화 추이

단위: 명, %

| 구 분                   |        | 1980(a)           | 1990    | 1995    | 2000    | 2005    | 2008(b)          | b/a   |
|-----------------------|--------|-------------------|---------|---------|---------|---------|------------------|-------|
| 15세이상 어가인구            |        | 725,314           | 372,455 | 288,917 | 218,230 | 197,019 | 172,759          | 23.8  |
| 합 계                   |        | 699,522<br>(100)  | 308,690 | 200,064 | 163,938 | 154,846 | 143,806<br>(100) | 20.6  |
| 어 업                   |        | 294,928<br>(42.2) | 108,049 | 83,052  | 102,387 | 93,120  | 86,418<br>(60.1) | 29.3  |
| 어<br>업<br>이<br>외<br>일 | 소계     | 404,594<br>(57.8) | 200,641 | 117,012 | 61,551  | 61,726  | 57,388<br>(39.9) | 14.2  |
|                       | 농업     | 242,182<br>(34.6) | 156,088 | 99,426  | 41,721  | 39,302  | 31,857<br>(22.2) | 13.2  |
|                       | 제조업    | 10,409<br>(1.5)   | 18,192  | 650     | 1,373   | 1,739   | 3,463<br>(2.4)   | 33.3  |
|                       | 도소매업   | 5,919<br>(0.8)    | 6,724   | 4,316   | 2,300   | 2,394   | 4,482<br>(3.1)   | 75.7  |
|                       | 숙박·음식업 | -                 | -       | -       | -       | 3,870   | 5,872<br>(4.1)   | 151.7 |
|                       | 기타산업   | 146,084           | 19,637  | 12,620  | 16,157  | 14,421  | 11,714<br>(8.1)  | 8.0   |
| 가사, 학생, 군인,<br>무직 등   |        | -                 | -       | -       | 54,292  | 42,173  | 28,953           | -     |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통계청, 「어업조사」.

어가인구의 종사분야를 보면 약 60%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약 40%는 어업외 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촌에서의 주된 소득산업은 어업이라 할 수 있다(<표 2-7> 참조).

어업종사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어업계속 희망 연령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75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약 38%로 가장 많고, 65세 미만은 17%에 불과하여 고령일지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8> 참조). 그리고 은퇴 후 계획에 대한 설문에서 별다른 계획 없음 55.8%, 농업 22%, 체험관광 8.5%의 순으로 응답율이 높았는데 이 설문을 통하여 고령이 되어 어업에서 은퇴한 후에는 별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8]** 어업계속 희망 연령

| 구 분    | 60세 미만 | 60-64세 | 65-69세 | 70-74세 | 75세 이상 | 모름  |
|--------|--------|--------|--------|--------|--------|-----|
| 비 중(%) | 6.9    | 9.1    | 17.0   | 24.5   | 37.9   | 4.7 |

그리고 어업종사 이유에 대하여 어업의 다른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7.4%로 가장 많고, 생계유지, 타 업종에 비해 어업소득이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표 2-9> 참조).

**[표 2-9]** 어업종사 이유

| 구 분                  | 응 답 비 중(%) |
|----------------------|------------|
| 어업의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 37.4       |
| 생계유지 때문              | 34.1       |
| 타 업종에 비해 어업소득이 높기 때문 | 10.4       |
| 부채상환 때문              | 6.0        |
| 기 타                  | 5.5        |
| 모름/무응답               | 6.6        |

<표 2-7>에 의하면 어가인구의 어업 취업 비중은 1980년보다 2008년에 더 높아졌는데 이는 어촌의 산업구조가 어업 중심으로 더욱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촌지역에는 여전히 어업 이외의 다른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고, 노령화와 맞물려 고령자의 어업종사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령기의 자녀 및 청장년층은 도시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인구만이 어촌에 남아있다고 할 수 있

다.

어업이외의 일 분야로 여전히 농업이 많고 그 다음으로 회사원 등의 임금소득의 기타산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그리고 제조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최근 동향을 보면 제조업,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숙박업 분야에 종사하는 어가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어업분야에서의 소득증대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업이외의 일에서 획득할 수 있는 소득원은 어가경제 뿐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 등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업이외의 일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 지역별 어업이외의 일 현황을 제시한 것이 <표 2-10>이다. 어업이외의 일 분야에서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산업의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보면 우선 제조업의 경우는 부산,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지역이 해당된다.

도소매업의 경우는 부산, 인천, 강원, 경북, 숙박·음식업은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기타산업 분야는 부산, 인천, 울산, 강원, 경북, 제주 등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어가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이한 점은 전통적으로 어업지역인 전남은 평균보다 높은 어업이외 일 분야는 전무하며, 경남은 숙박·음식업 분야뿐 이다.

그리고 어업이외의 일에 종사하는 어가인구가 많은 지역은 부산, 인천 및 울산 등의 대도시와 경기도 수도권 및 강원과 경북의 동해안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 표 2-10 | 2005년 시·도별 가구원의 주 종사분야 비중

단위: %

| 구분 | 어업   | 어업이외의 일 |      |     |     |     |      |             |          | 기타   |
|----|------|---------|------|-----|-----|-----|------|-------------|----------|------|
|    |      | 전체      | 농업   | 임업  | 제조업 | 건설업 | 도소매업 | 숙박및<br>음식점업 | 기타<br>산업 |      |
| 전국 | 47.3 | 31.3    | 19.9 | 0.1 | 0.9 | 0.6 | 1.2  | 2.0         | 6.6      | 21.4 |
| 부산 | 48.6 | 21.9    | 1.5  | 0.0 | 2.5 | 1.0 | 4.1  | 2.9         | 9.9      | 29.6 |
| 인천 | 46.4 | 33.4    | 17.3 | 0.0 | 0.5 | 1.2 | 1.9  | 4.3         | 8.3      | 20.1 |
| 울산 | 48.3 | 27.7    | 5.2  | 0.1 | 4.0 | 0.7 | 1.1  | 5.1         | 11.5     | 24.0 |
| 경기 | 41.9 | 36.1    | 25.6 | 0.1 | 2.2 | 0.5 | 0.7  | 2.1         | 4.9      | 21.9 |
| 강원 | 45.6 | 17.7    | 2.0  | 0.0 | 0.3 | 0.8 | 1.8  | 3.1         | 9.7      | 36.7 |
| 충남 | 44.5 | 39.1    | 29.0 | 0.1 | 0.8 | 0.7 | 1.0  | 1.7         | 5.7      | 16.4 |
| 전북 | 55.0 | 24.5    | 17.2 | 0.1 | 0.4 | 0.4 | 1.0  | 1.9         | 3.5      | 20.5 |
| 전남 | 52.5 | 30.7    | 23.8 | 0.1 | 0.4 | 0.5 | 0.9  | 1.0         | 4.0      | 16.9 |
| 경북 | 49.3 | 20.2    | 6.4  | 0.0 | 1.5 | 0.5 | 1.3  | 3.6         | 6.8      | 30.5 |
| 경남 | 46.7 | 31.3    | 19.6 | 0.3 | 1.4 | 0.6 | 1.0  | 2.0         | 6.5      | 22.0 |
| 제주 | 29.0 | 48.9    | 31.7 | 0.1 | 0.3 | 0.9 | 1.1  | 1.5         | 13.3     | 22.2 |

주1 : 15세 이상 어가인구 대비 비중임.

주2 : 기타는 주부, 학생, 군인, 무직 등임.

주3 : 음영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09. 4.30).

### 3) 전업·겸업의 변화

어가의 주된 소득원이 어업인가 또는 어업외 소득원도 있느냐에 따라 전업·겸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80~2008년 동안 전업어가의 비중은 늘어났으며, 어업수입이 50%이상이면서 어업외 수입이 있는 제1종 겸업어가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어업외 수입이 50%이상이면서 어업수입이 있는 제2종 겸업어가의 비중은 약간 증가하였다(<표 2-11> 참조).

| 표 2-11 | 어가의 전업·겸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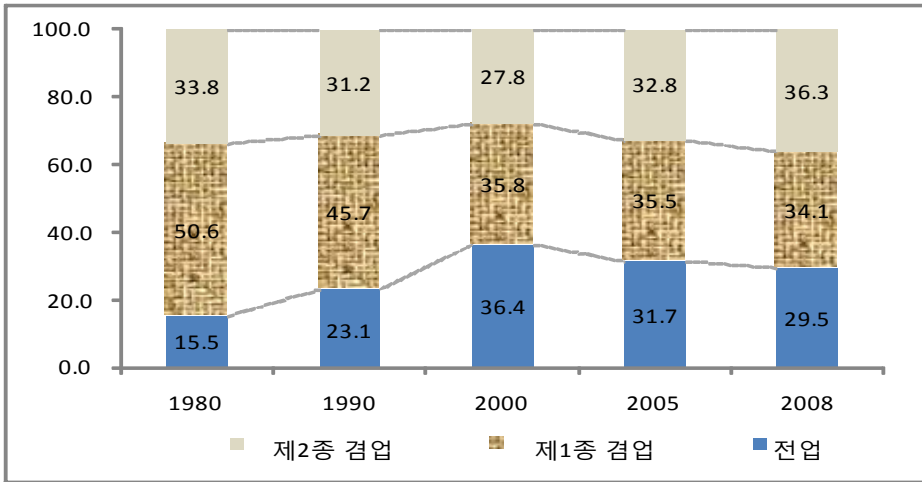
단위: 가구, %

| 구 분 |        | 1980              | 1990    | 2000   | 2005   | 2008             |
|-----|--------|-------------------|---------|--------|--------|------------------|
| 총 계 |        | 134,109<br>(100)  | 121,525 | 81,571 | 79,942 | 71,046<br>(100)  |
| 전 업 |        | 20,813<br>(15.5)  | 28,051  | 29,699 | 25,342 | 20,983<br>(29.5) |
| 겸 업 | 소 계    | 113,296<br>(84.5) | 93,474  | 51,872 | 54,600 | 50,062<br>(70.5) |
|     | 제1종 겸업 | 67,901<br>(50.7)  | 55,510  | 29,233 | 28,410 | 24,254<br>(34.1) |
|     | 제2종 겸업 | 45,395<br>(33.8)  | 37,964  | 22,639 | 26,190 | 25,809<br>(36.3) |

자료 : 통계청, 「어업조사」.

특히 전업 및 제1종 겸업어가는 어업의존이 높은 편인데 이 둘을 합계한 비중이 1980년 대비 2008년도의 경우 3.5% 정도로 약간 감소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30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어가의 어업 의존도는 거의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제2종 겸업어가의 수 및 그 비중이 늘고 있으나 전업 및 제1종 겸업어가의 비중은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4> 참조). 수산물 시장개방의 진전 및 어업비용 상승 그리고 불경기로 인한 수산물 소비 정체 등의 국내외 여건 변화로 어업외 소득 획득을 위한 노력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여 제2종 겸업어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2-4 | 전업·겸업 비중 추이

#### 4) 종사어업의 변화

어업은 어가의 주요 소득원이므로 별도로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30년 동안 어가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가운데 어업 내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조사에서 어업은 어선어업, 양식어업, 비어선어업으로 구분하는데, 비어선어업은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상태의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어업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어업형태별로 종사어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도의 경우 어선어업, 양식어업, 비어선어업의 구성비가 각각 23.7%, 41.7%, 34.6%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44.8%, 31.3%, 24%로 구성비에 의한 어업의 순위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표 2-12> 참조). 전체 어가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어선어업 종사어가는 1990년까지 증가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30년 전인 1980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그런데 양식어업의 경우 2008년도 비중이 31%로 1980년도와 비교하여

약 10%정도 줄었으며, 양식어업 종사의 약 33,000가구가 감소하는 등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선비사용어업 또한 대폭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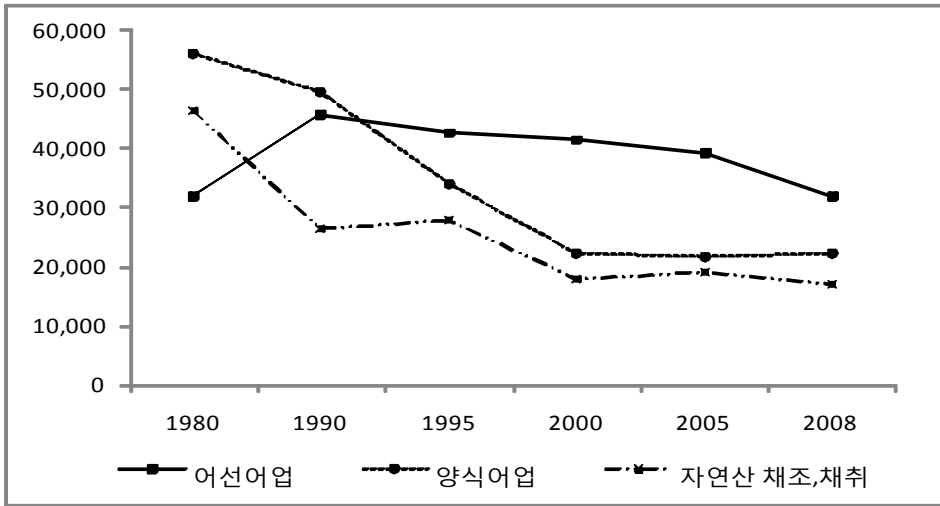
그리고 구성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어업형태별 종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1980년의 양식어업, 어선어업, 비어선어업의 순에서 2008년에는 어선어업, 양식어업, 비어선어업의 순으로 비중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어가인구 감소로 어선어업, 양식어업 및 비어선어업 종사자모두 감소하였다(<표 2-13> 참조).

| 표 2-12 | 어업형태별 종사여가의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 어업형태별    | 1980(a)          | 1990    | 1995    | 2000   | 2005   | 2008(b)          | ba   |
|----------|------------------|---------|---------|--------|--------|------------------|------|
| 합 계      | 134,109<br>(100) | 121,515 | 104,480 | 81,571 | 79,942 | 71,046<br>(100)  | 53.0 |
| 어선어업     | 31,844<br>(23.7) | 45,858  | 42,722  | 41,527 | 39,218 | 31,803<br>(44.8) | 99.9 |
| 양식어업     | 55,902<br>(41.7) | 49,391  | 33,918  | 22,225 | 21,606 | 22,225<br>(31.3) | 39.8 |
| 어선비사용어업  | 46,363<br>(34.6) | 26,276  | 27,840  | 17,819 | 19,118 | 17,018<br>(24.0) | 36.7 |
| -나잠,맨손어업 | -                | 8,967   | 8,456   | 6,054  | 18,798 | 16,662           | -    |
| - 기타     | -                | 17,309  | 19,384  | 11,765 | 320    | 356              | -    |

자료 : 통계청, 「어업조사」.



| 그림 2-5 | 어업형태별 어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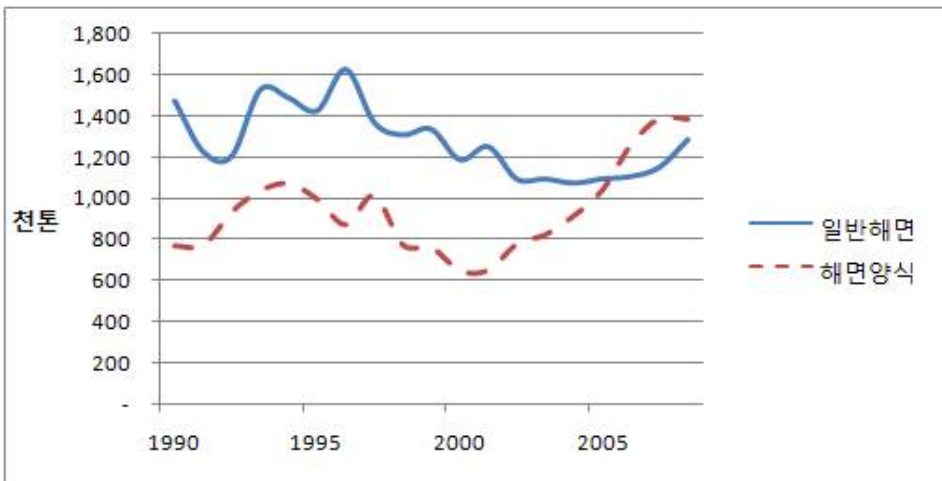
| 표 2-13 | 어업형태별 어업가구원의 종사자 변화 추이

(단위: 명, %)

| 어업형태별      | 1980              | 1990    | 2000    | 2005    | 2008             | b/a  |
|------------|-------------------|---------|---------|---------|------------------|------|
| 총 계        | 294,928<br>(100)  | 211,753 | 139,837 | 130,589 | 118,879<br>(100) | 40.3 |
| 어선어업       | 75,788<br>(25.7)  | 67,100  | 64,993  | 58,257  | 51,038<br>(42.9) | 67.3 |
| 양식어업       | 154,630<br>(52.4) | 102,530 | 45,450  | 41,631  | 42,858<br>(36.1) | 27.7 |
| 어선비사용어업    | 64,510<br>(21.9)  | 42,123  | 29,394  | 30,701  | 24,983<br>(21.0) | 38.7 |
| - 나잠, 맨손어업 | -                 | 11,229  | 7,125   | 29,524  | 24,189           | -    |
| - 기타       | -                 | 30,894  | 22,269  | 1,177   | 794              | -    |

자료 : 통계청, 「어업조사」.

그런데 양식어가 및 종사자의 비중 감소가 양식어업의 비중 감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이후 해면양식 생산량이 일반해면 생산량을 넘어선 데서 알 수 있듯이 종사어가 및 종사자는 줄었으나 양식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여 1인당 노동생산성이 개선되었는데, 이는 양식어업 분야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림 2-6】 일반해면어업과 해면양식어업 생산량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http://www.kosis.kr)), 2009. 5. 16.

양식어업의 품목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1985~2008년 동안 어류·패류의 양식어가 비중이 늘어난 반면, 해조류는 대폭 줄었다(<표 2-14> 참조). 중량 대비 상품가치가 높은 어류 및 패류 품종의 양식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14 | 양식품목별 양식어가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08 |
|-----|------|------|------|------|------|------|
| 어류  | 0.0  | 0.7  | 7.3  | 11.3 | 9.6  | 5.7  |
| 패류  | 18.7 | 36.7 | 47.2 | 47.0 | 58.6 | 57.2 |
| 해조류 | 80.8 | 57.1 | 42.5 | 37.0 | 26.0 | 31.9 |
| 기타  | 0.5  | 5.5  | 3.0  | 4.7  | 5.8  | 5.3  |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09. 5. 16.

## 5) 생산수단의 규모 변화

### (1) 어선보유 및 사용 규모

어업조사 지침에 따르면 어선보유란 현재 자기소유라 할지라도 남에게 빌려준 어선은 제외하고 반대로 남에게 빌린 어선은 포함하여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선사용이란 보유어선 중에서 사용하는 어선을 의미한다.

2008년 현재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는 42,091가구이며, 톤급별 어선보유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톤 미만 약 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5톤 미만, 5~10톤 미만, 10~20톤 미만, 20~50톤 미만, 50톤 이상의 순으로 보유어가가 많다(<표 2-15> 참조). 특히 주로 연안어업어선으로 분류되는 10톤 미만의 보유어가 비중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기업형인 10톤 이상의 어선 보유어가는 5%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표 2-15 | 톤급별 어선보유 어가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 톤 급 별       | 1980            | 1990(a)          | 2000   | 2005   | 2008(b)          | b/a   |
|-------------|-----------------|------------------|--------|--------|------------------|-------|
| 계           | 17,507<br>(100) | 69,448<br>(100)  | 47,184 | 45,266 | 42,091<br>(100)  | 60.6  |
| 2톤 미만       | 5,020<br>(28.7) | 46,638<br>(67.2) | 25,032 | 23,576 | 24,572<br>(58.4) | 52.7  |
| 2 - 5톤 미만   | 6,633<br>(37.9) | 15,665<br>(22.6) | 14,916 | 13,965 | 10,866<br>(25.8) | 69.4  |
| 5 - 10톤 미만  | 2,286<br>(13.1) | 3,719<br>(5.4)   | 4,845  | 5,535  | 4,568<br>(10.9)  | 122.8 |
| 10 - 20톤 미만 | 1,692<br>(9.7)  | 1,324<br>(1.9)   | 1,045  | 943    | 736<br>(1.7)     | 55.6  |
| 20 - 50톤 미만 | 973<br>(5.6)    | 1,015<br>(1.5)   | 746    | 744    | 720<br>(1.7)     | 73.9  |
| 50톤 이상      | 903<br>(5.2)    | 1,087<br>(1.5)   | 600    | 503    | 629<br>(1.5)     | 57.9  |

자료 : 통계청, 「어업조사」.

1980년과 비교하여 2008년 현재 어선보유 어가는 증가하였으나 그 동안 수산자원감소, 어업경비 상승에 따른 어업경영 악화 및 어선감척사업 등으로 보유어가도 1990년대 이후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90~2008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5~10톤 규모의 보유 어가만이 증가하였고, 비중 또한 늘어났다. 10톤 미만의 보유어선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8년도 어선사용 어가는 32,481가구로 어선보유 어가 42,091 가구의 약 77%로 집계되었다. 이는 어선을 보유하되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어가가 23%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소유 또는 빌린 어선을 보유하는 어가 중에서 어선을 사용하여 어업활동을 하는 어가가 77%이고, 나머지 23%의 어가는 어로어업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형이라 할 수 있는 10톤 이상 어선사용어가가 11%를 차지하여 어선보유 어가 5%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표 2-16> 참조). 1984~2008년 동안 톤급별 어선사용 어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0톤 미만의 영세한 어선사용 어가수와 그 비중은 늘어나고, 20톤 이상의 대형어선 사

용 어가도 늘어난 반면 중간 계층이라 할 수 있는 10-20톤 규모의 어가는 감소하여 어선 대규모화 및 소규모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용어선규모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 표 2-16 | 톤급별 어선사용 어가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 톤 급 별       | 1984(a)          | 1994   | 2004   | 2008(b)          | b/a   |
|-------------|------------------|--------|--------|------------------|-------|
| 계           | 23,566<br>(100)  | 35,530 | 37,748 | 32,481<br>(100)  | 137.8 |
| 2톤 미만       | 10,051<br>(42.7) | 18,384 | 16,827 | 18,271<br>(56.3) | 181.8 |
| 2 - 5톤 미만   | 8,955<br>(38.0)  | 11,987 | 11,109 | 7,204<br>(22.2)  | 80.4  |
| 5 - 10톤 미만  | 2,027<br>(8.6)   | 3,759  | 6,641  | 3,387<br>(10.4)  | 167.1 |
| 10 - 20톤 미만 | 1,071<br>(4.5)   | 761    | 1,281  | 900<br>(2.8)     | 84.0  |
| 20 - 50톤 미만 | 854<br>(3.6)     | 398    | 1,308  | 1,672<br>(5.1)   | 195.8 |
| 50톤 이상      | 608<br>(2.6)     | 241    | 583    | 1,048<br>(3.2)   | 172.4 |

자료 : 통계청, 「어업조사」.

## (2) 양식어장 면적규모

1990~2008년 동안 양식어장 면적은 절반이하로 줄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로 해조류양식어업의 종사어가 및 종사자 그리고 면적 등에 있어 규모 감소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도 면적 규모별 구성비를 보면 1ha 미만의 양식어가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ha미만, 3~6ha미만, 6ha~10ha미만, 10ha이상의 순으로 구성비가 높았다. 2008년도의 경우 구성비에서는 1ha 미만의 양식어가가 전체의 약 51%로 가장 많고, 그 비중 또한 약 51%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규모가 큰 10ha 이상의 양식어가수는 1990년과 비교하여 대

폭 증가하였으며,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졌다(<표 2-17> 참조).

| 표 2-17 | 양식어장 면적별 양식어가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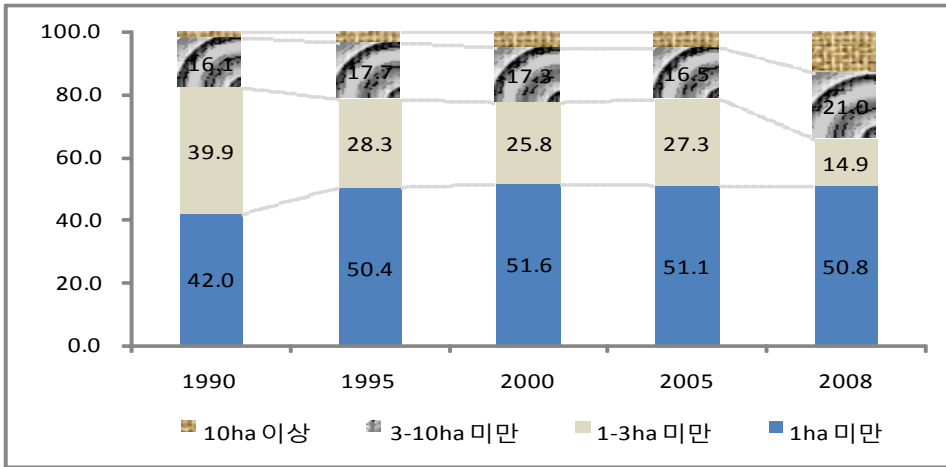
(단위: 가구, %)

| 면적 규모별            | 1990(a)          | 1995   | 2000   | 2005   | 2008(b)          | b/a   |
|-------------------|------------------|--------|--------|--------|------------------|-------|
| 총 계               | 57,165<br>(100)  | 43,718 | 28,704 | 28,184 | 28,275<br>(100)  | 49.5  |
| 1ha 미만            | 24,034<br>(42.0) | 22,016 | 14,805 | 14,388 | 14,372<br>(50.8) | 59.8  |
| 3ha 미만            | 22,791<br>(39.9) | 12,358 | 7,417  | 7,691  | 4,200<br>(14.9)  | 18.4  |
| 3.0~6.0ha 미만      | 7,630<br>(13.3)  | 5,740  | 3,601  | 3,220  | 4,166<br>(14.7)  | 54.6  |
| 6.0~10.0ha 미만     | 1,560<br>(2.7)   | 1,997  | 1,373  | 1,444  | 1,765<br>(6.2)   | 113.1 |
| 10.0~20.1ha<br>미만 | 832<br>(1.5)     | 1,184  | 1,219  | 1,100  | 2,454<br>(8.7)   | 295.0 |
| 20.0ha 이상         | 318<br>(0.6)     | 423    | 289    | 341    | 1,317<br>(4.7)   | 414.2 |

자료 : 통계청, 「어업조사」.

전체 양식면적 규모를 1ha 미만, 1~3ha, 3~10ha, 10ha 이상으로 등급화했을 때 1~3ha 양식어가의 비중만 감소하여 양식어장 면적규모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7> 참조). 중간계층이 상층으로 이동하여 전체적으로 1인당 양식 어장 면적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2-7 | 양식어장 면적별 양식어가 비중 추이

## 6) 어업노동시간

2003년부터 통계청에서는 어가의 어업노동과 관련하여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어업노동시간을 조사·집계하여 공표하고 있는데 이를 제시한 것이 <표 2-18> 이다. 이 표에 의하면 연간 어업노동시간은 2008년도의 경우 1,627시간으로 1일 8시간 노동을 적용하면 연간 203일에 해당된다. 이 어업노동일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2차 및 3차 산업의 연간 240일 노동에 비해 약 40일 정도 적다. 반대로 240일 노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어업노동시간은 6.8시간으로 1.2시간 정도 적다고 할 수 있다.

어업노동시간은 2003년 1,466시간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8년도에 1,627시간으로 161시간이 늘어났으며, 어업노동일수로는 약 23일이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어업노동시간의 증가에 힘입어 2008년도 어업소득은 대폭 증가하여 농가의 농업소득과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어업노동시간당 임금은 2003년 이래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2008년에는 시간당 임금 8,484원으로 농업 7,853원보다 많아 어업노동가치가 상대적

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그림 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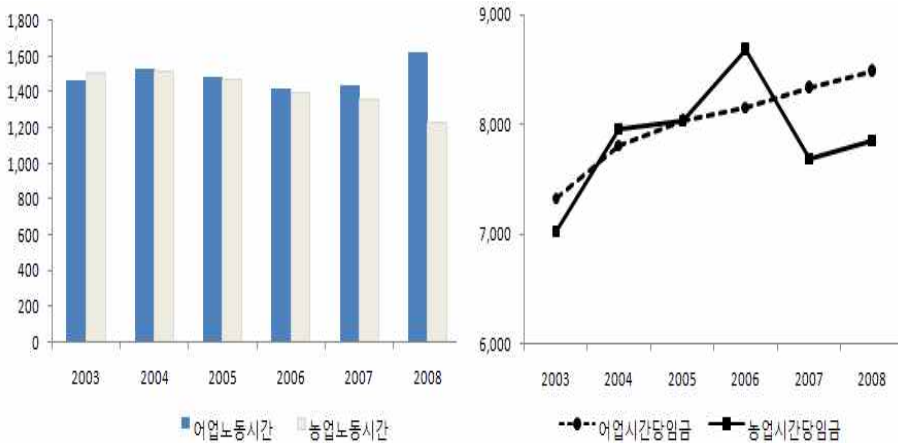
덧붙여 어업노동시간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농업노동시간은 매년 감소하여 2008년의 경우 어가의 어업노동시간이 농가보다 연간 400시간 정도 많으며 이는 8시간 노동으로 환산하면 50일로 약 두 달 정도 어가의 어업노동시간이 길다고 할 수 있다. 농촌에서는 줄어든 농업노동시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일거리 창출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어업노동시간이 줄지 않고 여전히 주요한 소득원인 어업에 대하여 의존도가 높은 어촌에서는 어떻게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향상시킬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표 2-18] 어업 노동시간 및 시간당 임금

단위: 시간

| 구 분  |    | 소득(천원) | 노동시간  | 시간당임금(원) |
|------|----|--------|-------|----------|
| 2003 | 어업 | 10,741 | 1,466 | 7,328    |
|      | 농업 | 10,572 | 1,505 | 7,026    |
| 2004 | 어업 | 11,959 | 1,531 | 7,809    |
|      | 농업 | 12,050 | 1,513 | 7,962    |
| 2005 | 어업 | 11,950 | 1,488 | 8,032    |
|      | 농업 | 11,815 | 1,470 | 8,038    |
| 2006 | 어업 | 11,603 | 1,422 | 8,158    |
|      | 농업 | 12,092 | 1,393 | 8,678    |
| 2007 | 어업 | 11,975 | 1,437 | 8,331    |
|      | 농업 | 10,406 | 1,354 | 7,687    |
| 2008 | 어업 | 13,801 | 1,627 | 8,484    |
|      | 농업 | 9,654  | 1,229 | 7,853    |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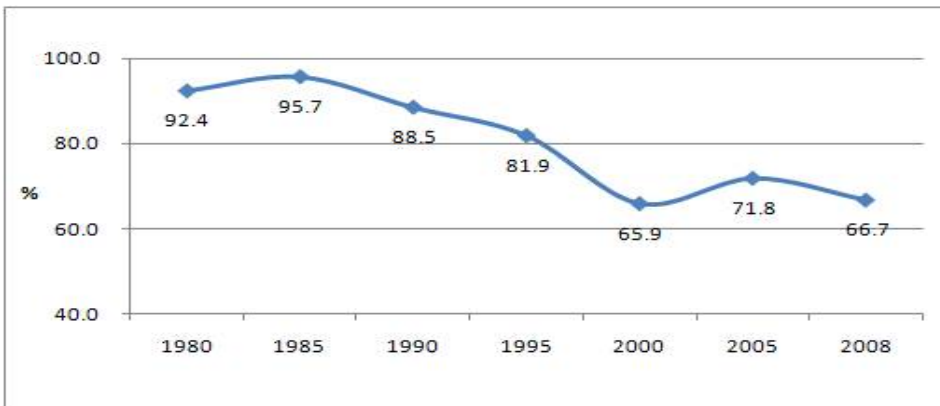
| 그림 2-9 | 어업과 농업 노동시간 및 시간당 임금 비교

### 3. 소득 구조

#### 1) 어가소득의 변화

어가의 전체 소득은 1980년 2,596천 원에서 연평균 8.9%씩 증가하여 2008년 31,176천 원으로 과거 30년 동안 약 12배 정도 늘어났다(<표 2-19> 참조). 그리고 2008년도의 어가소득은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농가소득을 능가하여 기념비적인 일이었지만 그리 좋아할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 수준은 1980년 92.4%에서 2008년 66.7%로 감소하여 도시소득의 70%를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하여 도시와의 소득격차는 오히려 벌어졌기 때문이다(<그림 2-10> 참조). 즉 어촌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어가소득의 목표는 농가소득 따라잡기가 아니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의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0]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의 수준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http://www.kosis.kr)), 2009. 4. 30.

| 표 2-19 | 어가소득의 변화 추이

단위: 천원, %

| 구 분     | 1980<br>(a)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08<br>(b)      | b/a   |
|---------|-----------------|--------|--------------|--------|---------|-----------------|------------------|-------|
| 어 가 소 득 | 2,596<br>(100)  | 4,869  | 10,023       | 18,780 | 18,875  | 28,028          | 31,176<br>(100)  | 1,201 |
| ·어업소득   | 1,752<br>(67.5) | 2,815  | 5,217        | 9,437  | 10,078  | 11,950          | 13,801<br>(44.2) | 788   |
| 어업조수입   | 3,090           | 6,047  | 10,367       | 17,153 | 18,508  | 26,576          | 33,457           | 1,083 |
| 어업경영비   | 1,338           | 3,232  | 5,151        | 7,715  | 8,430   | 14,626          | 19,656           | 1,469 |
| ·어업외소득  | 844<br>(32.5)   | 2,054  | 3,192        | 6,075  | 5,313   | 9,399           | 10,120<br>(32.5) | 1,199 |
| 농업소득    | 313             | 866    | 1,897        | 3,185  | 2,583   | 2,982           | 2,514            | 8,032 |
| 기타겸업소득  | 79              | 179    | 302          | 791    | 798     | 1,577           | 2,346            | 2,970 |
| 사업외소득   | 451             | 1,009  | 992          | 2,100  | 1,932   | 4,840           | 5,260            | 1,166 |
| ·이전소득   | -               | -      | 1,614<br>(a) | 3,268  | 3,484   | 2,245<br>(8.0)  | 2,424<br>(7.8)   | 1,502 |
| ·비경상소득  | -               | -      | -            | -      | -       | 4,434<br>(15.8) | 4,831<br>(15.5)  |       |
| 가처분소득   | 2,500           | 4,601  | 9,973        | 18,683 | 18,695  | 22,815          | 25,822           | 1,033 |
| 어가경제잉여  | 456             | 979    | 2,754        | 5,425  | 3,480   | 5,133           | 5,770            | 1,265 |
| 어 가 자 산 | 3,178           | 18,956 | 61,273       | 97,125 | 121,073 | 183,841         | 221,066          | 6,956 |
| 어 가 부 채 | -               | -      | 5,925<br>(a) | 11,033 | 13,635  | 34,531          | 33,587           | 567   |

주: 1)사업외소득이란 노임, 급료 등의 근로소득과 임대료, 이자 및 배당수입, 자본수입 등임.  
 2)이전소득이란 어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경상적 수입으로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 등을 합산한 금액.  
 3)비경상소득이란 경조수입금, 퇴직일시금, 보상금 등의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  
 4)가처분소득이란 어가소득에서 조세공과금 등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어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5)어가경제잉여이란 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의 소비지출을 차감한 잔액으로 잉여금은 흑자, 손실은 적자를 의미.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그리고 어가의 소득은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 소득 등 크게 4개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현재 어가소득에서 차

지하는 각 소득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어업소득 44.2%, 어업외소득 32.5%, 이전소득 7.8% 그리고 비경상소득 15.5%로 어업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의 각 소득의 변화특징을 살펴보면 어업소득의 비중은 1980년 67.5%에서 2008년 44.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어가의 어업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기간 어업외소득의 비중은 32.5%로 큰 변함이 없으며, 비경제활동으로 얻는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은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경제 활동소득은 어가의 고령화 진전에 따라 향후 더욱 늘어나 어가의 주요한 소득원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 (1) 어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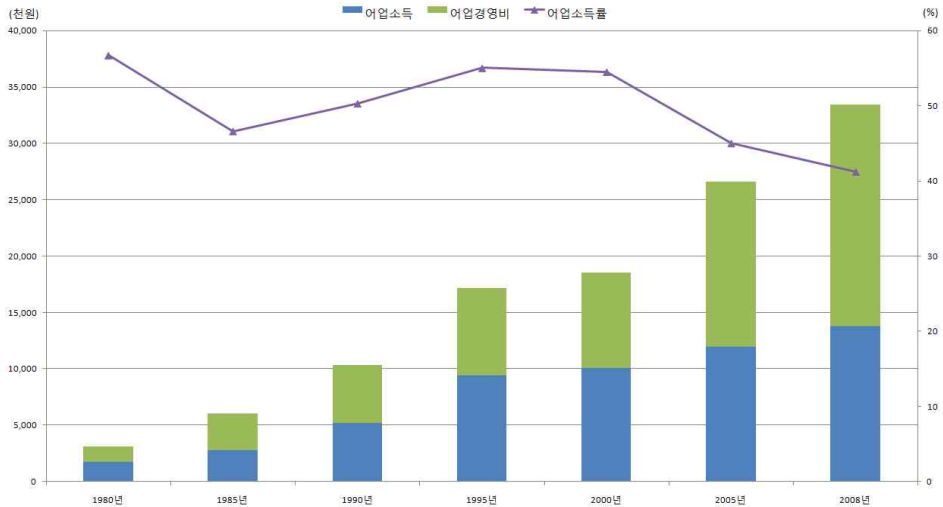
<표 2-19>에 의하면 어업소득은 1980년 1,752천원에서 2008년 13,801천원으로 연평균 7.4%씩 증가하여 지난 30년간 약 8배로 늘어났다. 하지만 어업소득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어업소득률<sup>8)</sup> 또한 1980년 56.7%에서 2008년 41.2%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업소득 비중의 저하 및 어업소득율의 감소추세는 어업조수입에 비해 어업경영비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인 것에 연유한다. 실제로 1980~2008년 동안 어업조수입은 약 11배 정도 늘어났으나, 어업경영비는 약 15배나 늘어나 어업경영비의 상승폭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005년 이후 어업경영비는 어업조수입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어업경영비가 크게 상승하였다(<그림 2-11> 참조).

향후 어업소득은 어업경영비 상승 등 국내의 경제여건의 변화로 감소

8) 어업소득률 = (어업소득/어업조수입)×100

또는 정제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의 대응 방안으로 어업외소득 증대를 통한 어가의 총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화된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그림 2-11 | 어업소득 · 어업경영비 · 어업소득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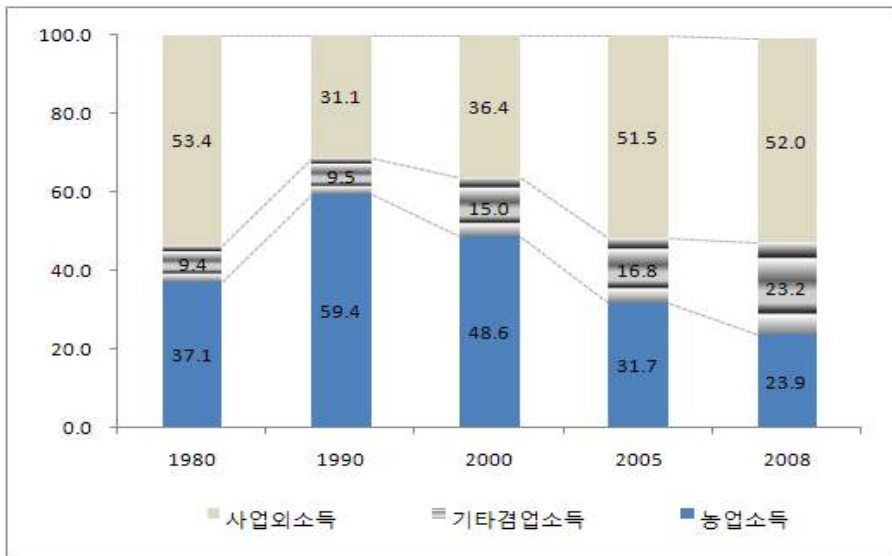
## (2) 어업외 소득

어가는 직면한 사회경제적 및 공간적 위치 등의 이유로 어업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어업외 소득획득에 노력하는데 어업외 소득은 농업소득, 기타겸업소득 그리고 사업외 소득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기타겸업소득은 수산물가공수입, 기타겸업에서 얻은 소득과 산나물 채취 등의 판매수입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사업외소득은 노임, 급료 등의 근로소득과 임대료, 이자 및 배당수입, 자본수입 등이 포함된다.

수산자원감소 및 어업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업소득의 향상에는 한계가 많은 현 상황에서 어가소득 향상을 어업외 소득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나 과거 30년 동안 어업의 소득의 절대 금액은 증가하였지만 그 비중은 약 30%내외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의 소득을 구성하는 농업소득, 기타점업소득 그리고 사업외소득의 1980~2008년 동안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기타점업 및 사업외 소득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그림 2-12> 참조). 2008년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외 소득은 동 기간 17배 정도 확대되었고, 2005년 이후 농업소득을 능가하는 주요 어업의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그림 2-12 | 어업의 소득 내역 변화 추이

다음으로 비중이 큰 농업소득은 30년 전과 비교하여 80배나 확대되었으나 최근 절대금액 및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농업소득과 큰 차이가 없는 기타점업소득은 약 30배로 확대되었으며,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가공 수입의 영향으로 기타점업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9)</sup>.



이처럼 어업의 소득변화의 특징은 그 동안 어업의 소득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농업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사업외 소득 및 기타점업소득으로 주 어업의 소득원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 (3)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

이전소득은 어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경상적 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 등이 해당된다. 1990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이전소득의 경우 2000년까지 비경상소득과 구분되지 않았다가 2005년부터 분리되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9> 참조). 2008년 이전소득은 전체 어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 정도로 20년 전과 비교하여 15배 정도 확대되었으며, 농가 이전소득의 17%에 비하면 약 절반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비경상소득은 어가가 비경제적활동으로 얻은 수입 중 비경상적인 수입으로서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재산수증, 사고보상금, 기타비경상적인 수입 등이 해당된다. 비경상소득은 2005년부터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어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로 어업외 소득 중 농업과 기타점업소득 그리고 이전소득보다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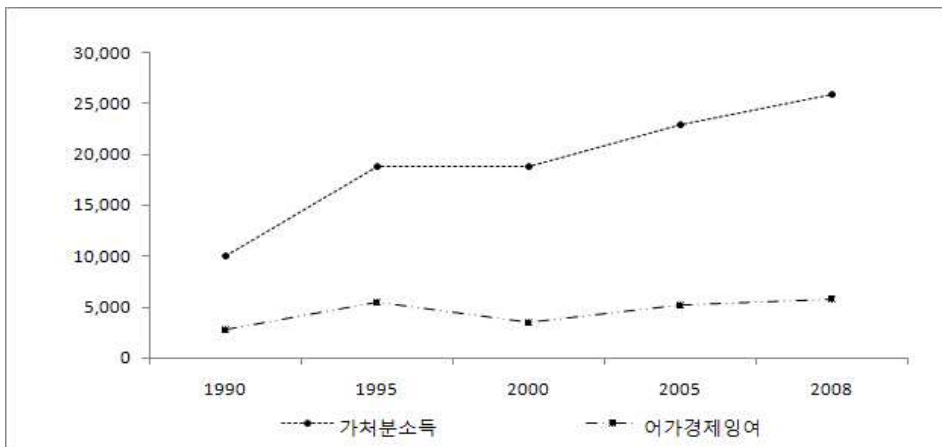
이처럼 비경제활동으로 얻는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은 어가소득 전체에서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여 어가의 주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이들 비경제활동 소득은 어촌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령화 정도가 어가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가의 비경제활동 소득 비중이 31%에 이르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가늠할 수 있다.

9) 통계청, 「2007년 어가경제통계」, 2008, p. 37.

## 2) 어가경제잉여

<표 2-19>와 <그림 2-13>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가처분소득과 어가경제잉여가 증대하고 있어 어가의 경제상황은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이란 어가소득에서 조세공과금을 제외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가경제잉여는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비 그리고 분가지출 등 어가의 모든 지출을 제외한 소득으로 자산형성 또는 저축 등 어가의 부 축적으로 직접 이어지는 소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처분 소득 및 어가경제잉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도의 가처분소득과 어가경제잉여금은 1980년보다 각 약 10배, 약 13배로 확대하였으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어가의 가계수지는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3> 참조). 그리고 어가의 자산은 과거 30년 동안 약 70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는 연안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영향이라 할 수 있다.



| 그림 2-13 | 가처분소득 및 어가경제 잉여 변화 추이

### 3) 어가부채

어가부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하여 6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최근 부채총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2-20> 참조). 어가자산이 늘어나고, 부채총액의 감소 등에 힘입어 어가의 부채상환능력<sup>10)</sup>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2-20 | 부채의 내역 변화 추이

단위: 천원, %

| 구 분   | 1990(a)         | 1995            | 2000            | 2005             | 2008(b)          | b/a   |
|-------|-----------------|-----------------|-----------------|------------------|------------------|-------|
| 부채금액  | 5,925<br>(100)  | 11,033<br>(100) | 13,635<br>(100) | 34,531<br>(100)  | 33,587<br>(100)  | 567   |
| 생산성부채 | 4,738<br>(80.0) | 8,928<br>(80.9) | 9,709<br>(71.2) | 18,560<br>(53.7) | 18,207<br>(54.2) | 384   |
| 가계성부채 | 870<br>(14.7)   | 1,724<br>(15.6) | 2,552<br>(18.7) | 9,424<br>(27.3)  | 9,484<br>(28.2)  | 1,090 |
| 채무상환용 | 317<br>(5.4)    | 381<br>(3.5)    | 1,374<br>(10.1) | 6,547<br>(19.0)  | 5,896<br>(17.6)  | 1,860 |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

2008년 현재 어가부채 규모가 33,587천원으로 농가부채 25,786천원보다는 많고, 전국가구부채 40,540천원보다는 작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어가부채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부채내역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생산성부채의 비중은 80%에서 54%로 감소한 반면, 가계성부채와 채무상환용부채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어업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가의 어업생산 활동이 위축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어가의 부채 용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서 자녀교육비의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으며 어업관련 투자 34%, 식료품비 29%,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 구입 20%, 보건의료비 12%의 순으로 응답이

10) 단기상환능력 : 부채/당좌자산\*100.

많았다(<표 2-21> 참조).

| 표 2-21 | 부채 용도 설문(복수응답)

| 구 분     | 응 답 비 중(%) |
|---------|------------|
| 자녀교육비   | 61.6       |
| 어업관련 투자 | 34.2       |
| 식료품비    | 28.9       |
| 부동산 구입  | 19.8       |
| 보건의료비   | 11.8       |
| 기 타     | 2.7        |
| 모름/무응답  | 0.8        |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가부채는 자녀교육비, 식료품비, 부동산 구입비 및 보건의료비로 충당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환경이 어촌보다 양호한 도시로 자녀를 유학시키거나,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른 보건의료비 등에 따른 어가의 가계성 부채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어업경영주의 소득수준

어업경영주 연령별 어가소득을 살펴보면 40세 미만 연령층의 소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50대의 순으로 높게 집계되어 연령이 낮을수록 어가소득이 많을 것을 알 수 있다. 어가 자산 또한 40세 미만이 가장 많고, 부채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 이상은 자산, 부채 모두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40세 미만이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22> 참조).

2008년의 경우 30대, 40대 그리고 70대 경영주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늘어난 반면, 50대 및 60대 경영주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30대와 40대 경영주의 2008년도 소득이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 계층의 어업경영은 더욱 어려웠으며, 특히 40대 경영주는 전년 대비 부채금액마저 증가하는 등 어업경영 압박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유추된다.

| 표 2-22 | 어업경영주 연령별 어가소득 등 변화 추이

단위: 천원, %

| 구 분         |         | 평 균     | ~ 39    | 40 ~ 49 | 50 ~ 59 | 60 ~ 69 | 70 ~    |
|-------------|---------|---------|---------|---------|---------|---------|---------|
| 2003        | 어가소득(a) | 23,563  | 29,388  | 25,495  | 24,491  | 21,845  | 16,594  |
|             | 어가자산(b) | 134,501 | 164,306 | 161,556 | 142,741 | 124,865 | 79,035  |
|             | 어가부채(d) | 30,204  | 50,904  | 37,671  | 29,668  | 22,412  | 10,366  |
|             | 부채/자산   | 21.2    | 31      | 23.3    | 20.8    | 17.9    | 13.1    |
| 2004        | 어가소득    | 25,776  | 32,607  | 31,963  | 26,989  | 22,308  | 15,012  |
|             | 어가자산    | 156,966 | 200,706 | 167,438 | 179,656 | 143,842 | 93,186  |
|             | 어가부채    | 35,050  | 65,715  | 42,413  | 34,572  | 23,045  | 9,503   |
|             | 부채/자산   | 20.7    | 32.7    | 25.3    | 19.2    | 16      | 10.2    |
| 2005        | 어가소득    | 30,199  | 48,607  | 30,320  | 28,913  | 26,315  | 16,841  |
|             | 어가자산    | 179,870 | 219,553 | 195,540 | 198,555 | 174,255 | 111,447 |
|             | 어가부채    | 38,082  | 71,147  | 49,018  | 36,229  | 26,167  | 7,849   |
|             | 부채/자산   | 19.5    | 32.4    | 25.1    | 18.2    | 15      | 7       |
| 2006        | 어가소득    | 30,360  | 38,724  | 35,894  | 31,914  | 27,595  | 17,674  |
|             | 어가자산    | 209,409 | 241,315 | 234,171 | 211,889 | 208,706 | 150,966 |
|             | 어가부채    | 37,763  | 64,001  | 50,984  | 38,716  | 25,436  | 9,678   |
|             | 부채/자산   | 17.0    | 26.5    | 21.8    | 18.3    | 12.2    | 6.4     |
| 2007        | 어가소득    | 32,996  | 47,621  | 42,302  | 31,852  | 26,984  | 16,221  |
|             | 어가자산    | 236,094 | 310,342 | 260,833 | 225,811 | 223,736 | 159,749 |
|             | 어가부채    | 41,119  | 80,699  | 49,986  | 40,286  | 25,414  | 9,211   |
|             | 부채/자산   | 16.0    | 26.0    | 19.2    | 17.8    | 11.4    | 5.8     |
| 2008        | 어가소득(e) | 31,498  | 38,052  | 37,524  | 32,980  | 29,144  | 19,788  |
|             | 어가자산(f) | 216,860 | 230,589 | 200,382 | 231,651 | 233,886 | 187,794 |
|             | 어가부채(g) | 38,900  | 68,655  | 51,663  | 37,473  | 23,771  | 12,937  |
|             | 부채/자산   | 17.8    | 29.8    | 25.8    | 16.2    | 10.2    | 6.9     |
| 변<br>화<br>율 | e/a     | 132.8   | 129.5   | 147.2   | 134.7   | 133.4   | 119.2   |
|             | f/b     | 170.3   | 140.3   | 124.0   | 162.3   | 187.3   | 237.6   |
|             | g/d     | 125.8   | 134.9   | 137.1   | 126.3   | 106.1   | 124.8   |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5) 수산물 판매규모 및 방법

### (1) 수산물 판매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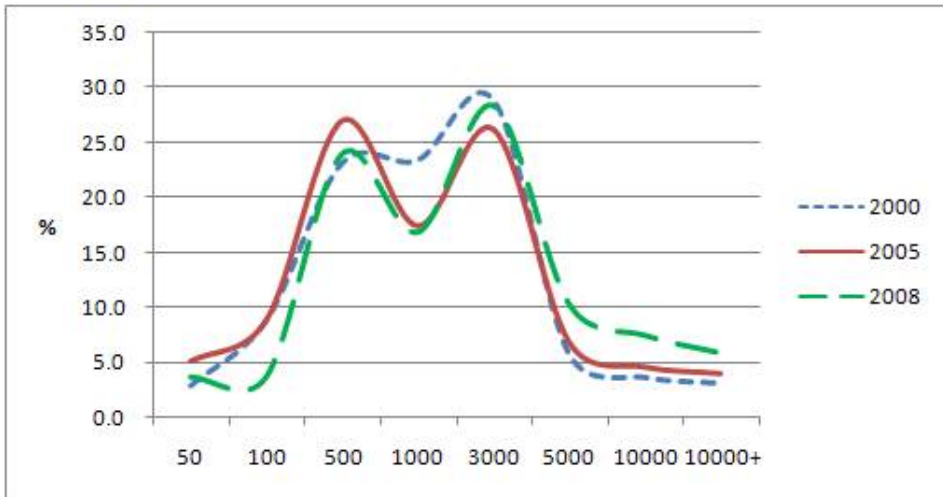
어가의 어업 경영규모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로 수산물 판매액이 있다. 2000~2008년의 수산물 판매액 구간별 어가 비중을 보면 대체로 100만~500만 원, 1천만~3천만 원 사이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구간의 사이인 500만~1천만 원 구간의 어가비중은 2000년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5년, 2008년에 크게 줄고, 반대로 5천만 원 이상 판매액 어가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표 2-23> 참조). 어가의 어업경영 규모 즉 수산물 판매액 1천만 원을 중심으로 양분되고 있으며 판매액이 큰 어가가 늘어나 양극화와 함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표 2-23 | 수산물금액별 어가변화 추이

(단위: 가구, %)

| 판매금액별             | 2000(a)          | 2005             | 2008(b)          | b/a   |
|-------------------|------------------|------------------|------------------|-------|
| 총 계               | 81,571<br>(100)  | 79,942<br>(100)  | 71,046<br>(100)  | 87.1  |
| 50만원 미만           | 2,143<br>(2.6)   | 4,100<br>(5.1)   | 2,572<br>(3.6)   | 120.0 |
| 50 ~ 100만원미만      | 7,261<br>(8.9)   | 7,095<br>(8.9)   | 2,597<br>(3.7)   | 35.8  |
| 100 ~ 1,000만원미만   | 38,008<br>(46.6) | 35,474<br>(44.4) | 29,016<br>(40.8) | 76.3  |
| 1,000 ~ 3,000만원미만 | 23,552<br>(28.9) | 20,932<br>(26.2) | 20,174<br>(28.4) | 85.7  |
| 3,000 ~ 5,000만원미만 | 4,732<br>(5.8)   | 5,463<br>(6.8)   | 7,291<br>(10.3)  | 154.1 |
| 5,000만 원이상        | 5,610<br>(6.9)   | 6,878<br>(8.6)   | 9,396<br>(13.6)  | 167.5 |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통계청, 「어업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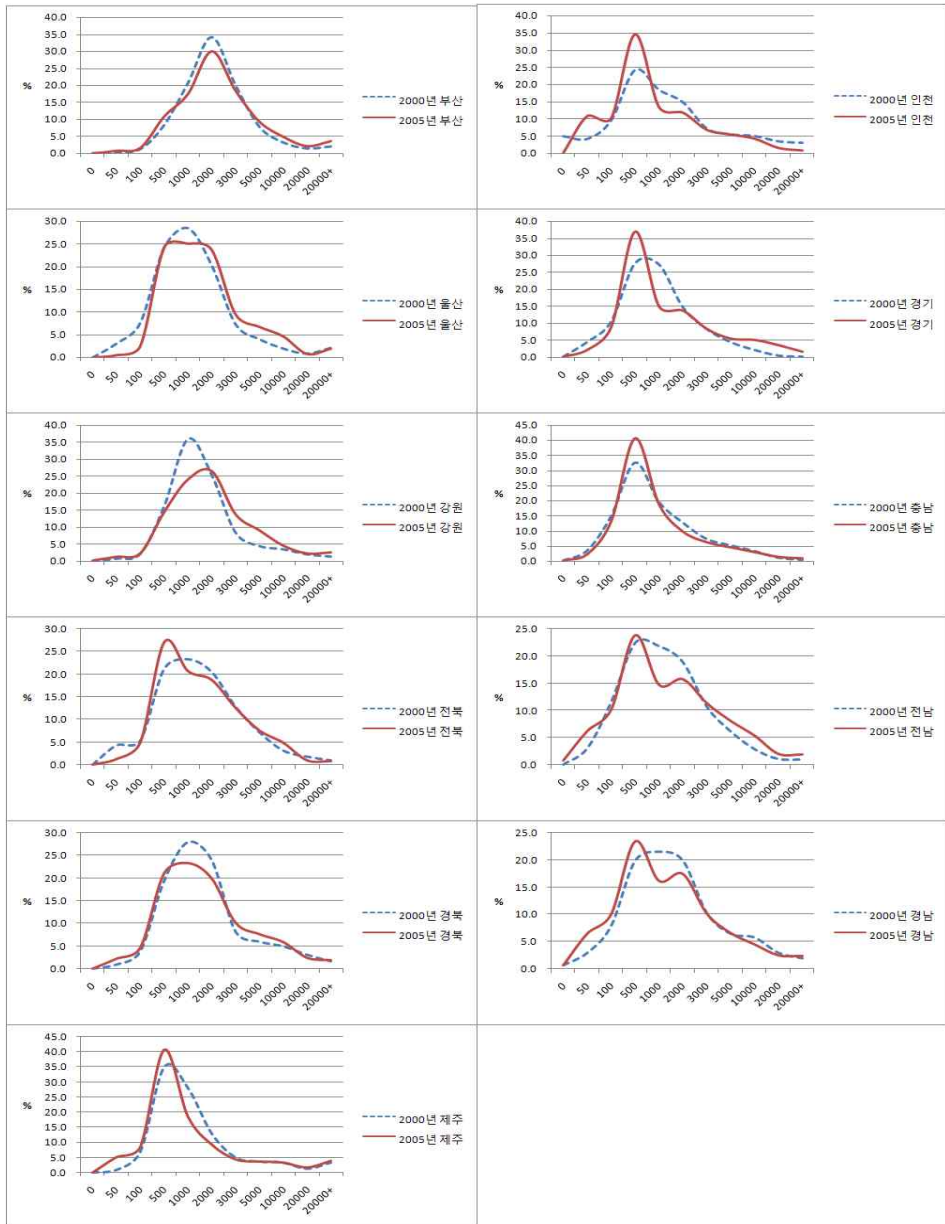
[그림 2-14] 수산물판매액의 어가비중 분포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http://www.kosis.kr)), 2009. 4. 30.

시·도별로는 이러한 경향에 차이가 있다.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북에서는 2000년에 비해 2005년에 판매액이 높은 어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지역 중 경기·전남은 판매액이 낮은 어가의 비중도 늘어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반면, 울산·강원·경북은 어가의 판매액이 전반적으로 상향 이동한 형태를 보여준다.

인천, 충남, 전북, 경남, 제주는 2000년에 비해 2005년에 판매액이 높은 어가의 비중이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다. 이들 지역 모두에서는 판매액이 낮은 어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어업경영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5] 시도별 수산물판매액별 어가비중 분포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http://www.kosis.kr)), 2009. 4. 30.

## (2) 수산물 판매방법

어가의 수산물의 판매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수협에 위탁판매 하는 계통판매와 수협을 통하지 않는 사매매의 비계통 판매이다. <표 2-24>에 의하면 수산물의 계통판매어가의 비중이 47%에서 39%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비계통판매 비중은 53%에서 61%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가가 거래하는 비계통 판매처를 살펴보면 도매시장, 수집상, 음식점, 가공공장, 양식장, 소비자 직접판매, 기타 등 다양한 형태로 수산물이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2008년 동안 비계통 판매의 어가비중은 늘어났으나, 어가 수는 약 43,000가구로 변함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표 2-24 | 수산물판매방법별 어가변화 추이

(단위: 가구, %)

| 판매처별 |             | 2000(a)          | 2005   | 2006   | 2007   | 2008(b)          | b/a   |
|------|-------------|------------------|--------|--------|--------|------------------|-------|
| 총 계  |             | 81,306<br>(100)  | 79,942 | 77,001 | 73,934 | 71,046<br>(100)  | 57.1  |
| 계통   | 수협          | 38,118<br>(46.9) | 34,061 | 33,017 | 30,669 | 27,927<br>(39.3) | 73.3  |
| 비계통  | 소계          | 43,188<br>(53.1) | 45,881 | 43,985 | 43,266 | 43,118<br>(60.7) | 99.8  |
|      | 도매시장        | 6,875            | 4,722  | 2,530  | 2,326  | 2,426            | 35.3  |
|      | 수집상         | 23,459           | 21,158 | 23,994 | 23,476 | 23,291           | 99.3  |
|      | 음식점         | 2,055            | 2,216  | 3,895  | 4,418  | 4,565            | 222.1 |
|      | 가공공장        | 2,447            | 2,468  | 1,463  | 1,094  | 1,403            | 57.3  |
|      | 양식장         | 852              | 396    | 461    | 397    | 325              | 38.1  |
|      | 소비자<br>직접판매 | 1,485            | 13,946 | 10,619 | 10,145 | 10,357           | 697.4 |
|      | 기타          | 6,015            | 975    | 1,023  | 1,410  | 751              | 12.5  |

자료 : 통계청, 「어가총조사」.

통계청, 「어업조사」.

2008년의 경우 비계통 판매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집상(54%)이며 그 다음으로 소비자 직접판매, 음식점, 도매시장, 가공공장, 양식장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집상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2000년 이후 수집상 판매 어가수의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많은 어가가 수집상인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이유 및 수집상인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25>와 <표 2-26>과 같다. 수집상 판매 이유로 인근에 수협위판장이 없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31%로 많았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거래의 편리함, 판매수수료가 없음 그리고 조합과의 갈등 때문에 수집 상인에게 판매하는 이유는 매우 의미있는 응답이다. 그리고 수집상인의 문제점으로는 어업인은 제값을 받지 못함 45%, 특별히 문제없음 43%로 비슷한 비중의 응답을 하였다(<표 2-26> 참조).

늘어나고 있는 비계통판매를 계통판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지에서 수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수협은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수집상인에게 판매하는 이유 및 수집상인의 문제점 등에 관한 어업인 의견을 반영하여 수협 위판의 유리성을 강화하여 수산물 판매를 유도하는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찾아가는 수협 유통, 높은 수취가격 등 수집상인보다 수준 높은 판매 및 유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표 2-25 | 수집 상인에게 수산물 판매 이유

| 구 분                           | 응 답 비 중(%) |
|-------------------------------|------------|
| 인근에 수협 위판장이 없음                | 40.3       |
|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음                | 30.6       |
| 빠른 판매 등 거래가 편리함               | 8.7        |
| 계통판매는 수수료 있지만 수집상인은 판매수수료가 없음 | 6.5        |
| 조합가입 등 조합과의 갈등 때문             | 3.8        |
| 수산물 생산량이 적음                   | 3.8        |
| 기 타                           | 4.3        |
| 모름/무응답                        | 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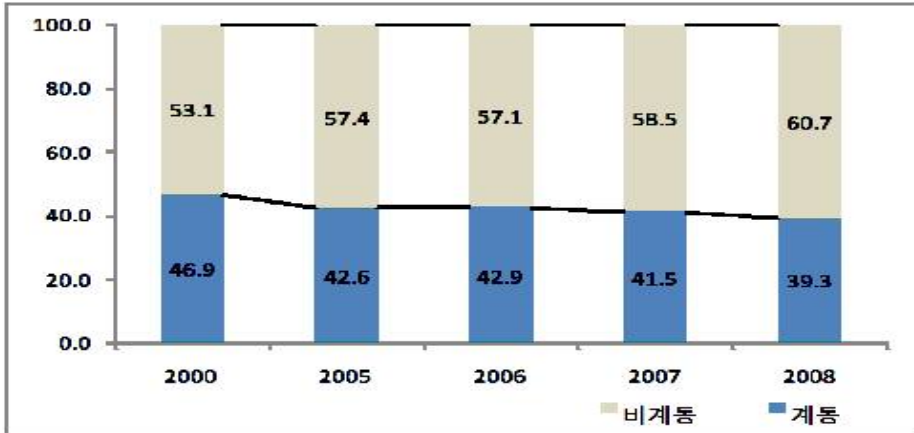
| 표 2-26 | 수집상인의 문제점

| 구 분                             | 응 답 비 중(%) |
|---------------------------------|------------|
| 제값을 받지 못함<br>가격협상이 일방적이고 답합이 심함 | 45.3       |
| 없 음                             | 43.0       |
| 외상거래 시 위험부담 있음                  | 3.2        |
| 거래자료 및 영수증 발급이 안됨               | 1.1        |
| 기 타                             | 1.1        |
| 모름/무응답                          | 5.4        |

음식점 및 소비자 직접 판매의 방법을 택한 어가가 대폭 증가하였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방법은 직거래와 유사한 판매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취가격을 받을 수 있어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 대비 2008년의 도매시장, 가공공장 및 양식장에 판매하는 어가비중은 감소경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2> 참조). 그러나

2007년 전년 대비 도매시장 및 가공공장 판매 어가비중은 약간 늘어났다.



| 그림 2-16 | 수산물 계통·비계통 판매 방법별 어가 변화추이

## 4. 요약 및 시사점

앞 절에서 살펴본 지난 30년 동안 어촌의 사회경제적 실태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약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 1) 인구구조

첫째, 지난 30년 동안 어가수 및 어가인구는 연평균 각 12%, 23%씩 감소하여 2008년의 경우 1980년의 53%, 27%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어가인구의 감소는 전국적 현상으로서 특히 도시화가 진전된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강원, 전남, 경북 지역 등에서 어가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둘째, 연령별 어가인구를 보면 60세 이상이 약 38%로 가장 많고, 15-19세의 고교 취학령기의 청소년층이 3.8%로 가장 적어 어가의 인구 구조는 젊은 젊은 연령층과 두터운 고령층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인 어가의 고령화 지수는 22.6으로 어촌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어가의 고령화 지수는 농가의 33.3보다는 낮고 도시의 10.2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권인 부산과 울산, 동해안의 강원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의 고령화 정도가 전국 어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업활동의 주요 노동력으로서 그 역량과 역할이 어업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는 어업경영주의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40세 미만의 어업경영주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여 어업노동력의 질적 저하문제가 예상된다.

다섯째, 어가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인구학적 측면에서 어촌은 과소화와 고령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취업구조

첫째, 어가인구의 60%가 어업에 종사하여 어업은 주요 소득원이자 일자리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지난 30년 동안 어업외 일자리의 비중은 정체하는 등 어촌에서 어업외 소득원 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그런데 2005년 이후 최근 동향에 의하면 제조업,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숙박업 분야에 종사하는 어가인구가 약간 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어업이외의 일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는 어가경제 뿐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 등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어업이외의 일에 종사하는 어가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부산, 인천 및 울산 등의 대도시와 수도권의 경기도 및 강원과 경북의 동해안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지난 30년 동안 전업어가의 비중은 늘어났으며, 어업수입이 50% 이상이면서 어업외 수입이 있는 제1종 겸업어가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어업외 수입이 50%이상이면서 어업수입이 있는 제2종 겸업어가의 비중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시장개방의 진전 및 어업비용 상승 그리고 불경기로 인한 수산물 소비정체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어업소득 보다는 어업외 소득 획득에 대한 어가의 노력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여 제2종 겸업어가는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어가의 종사 어업형태를 보면 1980년 양식어업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어선어업 34%, 어선어업 24%의 순이었다. 그런데 30년이 경과한 2008년의 경우 어선어업이 4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양식어업 31%, 비어선어업 24%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어업형태의 역전에는 해조류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가가 대폭 감소한데 기인한다.

다섯째, 사용어선규모 및 양식어장 면적규모에 있어 중간계층이 얇아지는 즉 소규모화와 대규모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생산수단 규모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생산수단 규모의 양극화는 어가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어촌내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여섯째, 어가의 평균연간 어업노동시간은 2003년 1,366시간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8년 1,629시간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어업노동시간의 증가에 힘입어 2008년도 어업소득은 대폭 늘어났다. 한편 농가의 농업노동시간은 매년 감소하여 2008년에는 연간 1,229시간으로 어업노동시간보다 약 400시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줄어든 농업노동시간으로 인해 농가의 농업소득은 감소하고, 특히 농촌에서는 줄어든 농업노동시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곱째, 어업노동시간이 줄지 않고, 높은 어업종사 비율 및 주요 소득원인 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어촌에서는 어떻게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향상시킬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3) 소득구조

첫째, 2008년 어가소득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농가소득을 능가하여 기념비적 일이었지만 도시근자 가구소득의 70%를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하여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오히려 벌어져 어촌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어가소득의 목표는 농가소득 따라잡기가 아닌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의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어가소득은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그리고 비경제활동소득(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30년 동안 어업소득의 비중은 감소



하고, 어업외 소득의 비중은 큰 변함이 없으며, 비경제활동으로 얻는 이전 소득과 비경상소득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어가의 고령화 진전에 따라 비경제 활동소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업외 소득변화의 특징은 절대적 위치에 있었던 농업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사업외 및 기타점업 소득이 주된 어업외 소득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최근 가처분소득과 어가경제잉여의 증대로 어가의 경제상황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가의 자산은 연안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 30년 동안 70배 정도로 늘어났다. 또한 최근 2005년 이후 부채총액은 더 늘어나지 않고 있어 어가의 부채상환능력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 현재 어가부채 규모는 전국가구보다는 작지만 농가부채보다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어가의 부채내역을 보면 생산성부채비중은 감소한 반면, 가계성부채와 채무상환용 부채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어업경영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넷째, 수산물 판매규모가 큰 어가 비중이 증가하여 고소득 어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수협에 위탁하여 수산물을 처리하는 계통판매는 39%, 직접 소매매하는 비계통 판매의 어가비중은 61%로 집계되었으며 비계통 판매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 수산물을 수협에 위탁 판매하는 어가는 감소하고 있다.

다섯째, 비계통 판매처 중에는 수집상이 가장 많으며 수집상 판매어가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소비자 직접 판매, 음식점, 도매시장, 가공공장 그리고 양식장의 순으로 많았다. 최근 음식점 및 소비자 직접 판매의 어가가 대폭 증가하였고, 도매시장 및 가공공장 판매 어가 비중도 약간 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방법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취가격을 받을 수 있어 어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어가가 수집상 판매를 선호하는 이유는 설문결과에 의하면 인

근에 수협 위판장의 부재 및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수집상 판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단순히 수집상에게 생산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산물 판매 전략을 통한 어가소득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제3장 어촌의 특성분석과 유형화

제2장에서는 과거 30년 동안의 어가의 사회경제적 실태 변화추세를 살펴 보았다. 어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핵심은 고령화, 과소화 및 소득의 감소 내지는 정체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어가소득과 관련해서 변화추세를 보면 도시가계와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져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여전히 어업취업자가 우세하고, 어업소득비중이 높으며 어업노동시간은 증가하는 등 어업은 어가의 중요한 소득원이자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어업의 소득의 비중은 정체되어 있고, 고령화로 인한 비경제활동 소득은 비경제이며 더욱이 최근 어가소득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 어업에 의한 소득증대는 수산물 시장개방의 진전 및 유류비 등 어업비용의 증가 등으로 기대 수산어렵다는 것이 한계이다. 고, 의한 소득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데 어가의 주 소득원이자 일거리인 어업을 단순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여갈 것인가, 아울러 어업의 소득원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과제라 할 수 있다.

어가의 사회경제실태에서 어가소득 증대 방안으로 약간의 가능성을 갖게 하는 것은 어가의 수산물 가공 및 소비자 직접 판매에 의한 어가소득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직까지 그 비중은 낮으나 관광소득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그마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소득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어가소득증대 방안으로 어촌의 산업화가 하나의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다. 어촌의 산업화란 어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여 소득증대, 일자리 및 어업의 소득원 창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장에서는 어가 소득증대의 방안으로 어촌의 산업화란 개념을 염두

에 두고 어촌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화를 시도하고 아울러 어촌유형별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어촌 유형을 바탕으로 제5장의 어촌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개별 어가들은 어느 유형에 위치하느냐에 따른 소득증대 전략을 세워볼 수 있으며 개별 어가로 접근했을 때는 훨씬 많은 변수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어촌의 유형화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하여 사전에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먼저 어촌의 공간적 범위가 어디이며, 그리고 어촌의 산업화 즉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요인을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어촌의 공간적 범위와 관련 자료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론 및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언급하면 어촌이란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소득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가족과 집단을 형성하여 생활하는 공간범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어촌개념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토상에서 어촌을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sup>11)</sup>.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촌개념을 적용시켰을 때 비교적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어촌계를 활용하고자 한다. 어촌계는 행정구역과는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마을 앞의 동일한 어장을 이용해온 자연촌락 단위로 조직되었으며, 어촌계의 중요한 의무가 공동어장의 이용 및 관리이다<sup>12)</sup>. 즉 공동어장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들 어촌계원은 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어장이 소멸되거나 폐쇄되면 다

11) 우리나라에서는 엄밀하게 개념정의하면 농촌의 공간적 범위도 분명하지 않음. 현재 도시가 아닌 읍, 면, 동을 행정 편의상 농촌으로 간주하여 이들 통계자료를 활용하지만 읍면동 중에는 농가비중이 낮은 곳도 많음.

12) 일본에서는 동일한 어장을 이용하는 어가집단을 어업집락으로 행정적으로 구분하여 이들 어업집락을 대상으로 5년마다 어업센서스 조사, 어가경제조사 등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어업, 어촌 및 어가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음.

른 업종으로 직업 전환하거나 타 지역으로 진출하는 등 어촌계 조직은 와해되고 어촌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sup>13)</sup>. 따라서 어촌계의 범위가 미치는 공간을 어촌이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이하에서는 어촌 및 어촌계를 혼용하여 쓰며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함).

이렇게 어촌계를 어촌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어촌계 단위로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어촌유형화 분석에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수협중앙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매년 ‘어촌계 분류평정’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어촌계별 가구수, 어가수, 인구, 어가인구, 계원수, 호당평균소득, 자연부락수, 어업권 현황, 어선세력, 수산물생산실적, 공동시설 현황 그리고 어업종사유형, 입지유형, 그리고 발전수준 등 다양하고 유효한 정보와 통계자료가 수록되어 있다<sup>14)</sup>.

그리고 어가소득의 증대와 관련한 분석요인으로 어업소득은 수산물 생산성, 어업외 소득은 시간 및 자료의 한계 등으로 주로 관광요인으로 한정하였다.

본 장에서 분석 자료는 수산물 생산성과 관련된 자료는 어촌계 분류평정 자료 그리고 어업외 소득의 관광자료는 어촌계 대상으로 직접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13)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매립간척으로 어촌에서 농촌으로 전환된 곳임.

14)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으나 그나마 어촌의 실태 및 추세변화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임.

## 1. 특성 분석

어촌의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어촌의 유형을 결정짓는 요소(인자)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도출한 인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어촌유형화의 근거로 삼는다. 분석을 위해 각 어촌계별로 어업 및 어업외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이 요구된다. 자료의 분석은 다변량 통계분석방법인 요인분석과 군집 분석을 수행한다.

요인 분석은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변수의 개수보다 적은 수의 요인을 설명하는 통계적인 기법이다. 요인 분석을 통해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변수들 사이의 계산에 의한 구조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총합척도(Summated Scale)를 만들어 낸다. 요인분석을 통해 어촌계 특성을 나타내는 수십 개의 변수에 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통합지표인 소수의 공통인자를 추출할 수 있다.

군집분석은 동질적인 특징을 가지는 개체를 개체수보다 훨씬 적은 수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자료의 요약과 단순화를 기하는 탐색적인 통계분석 방법중의 하나이다. 이는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관측대상(혹은 속성)의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통계기법이다. 사전에 분류할 집단의 수를 정하는 판별분석과 달리 군집분석은 사전에 군집의 개수, 내용, 구조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개체들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자료를 분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생성된 군집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오수진, 2007)

본 연구에서 어촌 유형화를 위해 수행한 분석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분석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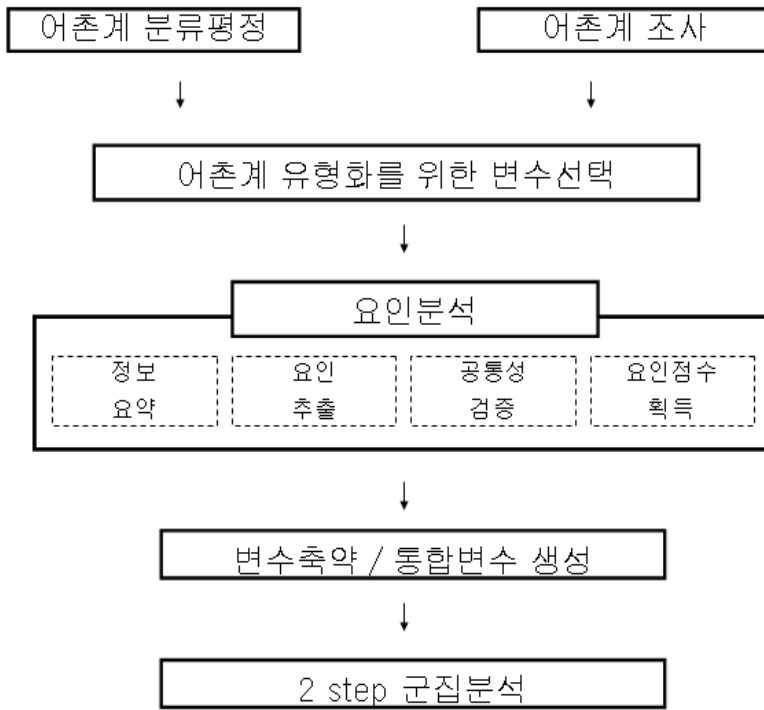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그림 3-1>에 제시된 연구수행 절차에 따라 어촌의 유형화를 위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전체 어촌의 수산업생산 및 관광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분류하여 모형의 분석에 사용될 계량적 변수를 선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상호의존적이라는 가정하에 다변량 통계분석기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정보를 요약하고, 어촌을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 요인을 추출, 요인들의 공통성을 검증한 다음 최종적으로 각 어촌계가 가지는 요인 점수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요인의 점수를 어촌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하여 2단계 군집분석(2-step cluster analysis)을 수행, 어촌 특성 결정요인과 유사성을 검토하고 특성별 어촌 집단을 도출하여 어촌 유형화를 시도한다.

## 2) 자료의 설명

어촌의 특성분석을 위해 어촌을 분류하는 최하 단위인 어촌계의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어촌의 수산업 생산관련 변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매년 발표하는 어촌계 분류평정에 사용된 원자료를 위주로 하며, 이 외에 필요한 자료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직접 수집한 자료를 활용한다.

### (1) 어촌계 분류평정의 원자료

수협중앙회는 어촌계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매년 어촌계를 발전수준별, 종사유형별, 입지유형별로 분류평정하고 있다. 평정 대상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어촌계이며, 조사방법은 지구별 수협(회원조합)에 의한 직접조사이다. 평정요목으로 소득수준, 생산기반, 자립도, 조직관리, 공동어장 관리, 후생복지 등 6개 부문 17개 항목이 포함된다.



| 그림 3-1 | 어촌계 유형화를 위한 연구 수행 절차

어촌계 분류평정에 사용된 자료 중 어촌유형화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모형에 적합하도록 변환한다. 이 자료는 어촌의 수산업 생산 활동 및 생산기반에 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어촌의 유형화를 위한 통계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들 조사항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를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표 3-1>참조).



| 표 3-1 | 어촌계 분류평정표상 활용 가능 자료 목록

| 변 인      | 항 목                | 내 용  |
|----------|--------------------|--|
| 명목<br>척도 | 종사유형               | 어선어업, 양식어업, 복합어업   |
|          | 입지유형               | 도시근교, 연안촌락, 취락지구   |
| 서열<br>척도 | 발전수준               | 복지, 자립, 성장   |
| 등간<br>척도 | 어촌계<br>분류평정<br>원자료 | 가구수, 어가수, 인구, 어가인구, 계원수, 전업계원수, 겸업계원수, 준계원수, 호당평균소득, 자연부락수, 어업권 현황, 어선세력, 수산물생산실적(톤, 금액), 공동시설 |
| 비율<br>척도 | 변환된<br>자료<br>(생성)  | 어가비율(어가수/가구수), 어가인구비율(어가인구/인구), 어가당 어선척수, 어가당 수산물 생산금액, 전업어가 비율, 계원비율(계원수/어가인구) 등              |

## (2) 수집 자료

어촌계 분류평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어촌계의 관광 여건에 관한 사항은 어촌계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한다. 자료 및 범위는 다음 <표 3-2>와 같다.

| 표 3-2 | 관련 자료 항목 및 수집 내용

| 관련 자료 항목                    |                | 수 집 내 용      |                  |
|-----------------------------|----------------|--------------|------------------|
| 숙박업소                        | 민박, 펜션, 여관, 모텔 | 개소           |                  |
| 식당                          | 횃집, 식당         |              |                  |
| 소매점                         | 슈퍼, 편의점        |              |                  |
|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업의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 |                | 어촌체험관광 사업 참여 | 참여 여부<br>정부지원 여부 |
|                             |                | 특산물 직판장 구축   | 구축 여부<br>정부지원 여부 |

|  |                          |                          |
|--|--------------------------|--------------------------|
|  | 유료낚시터 운영                 | 운영 여부<br>정부지원 여부         |
|  | 유료주차장 운영                 | 운영 여부<br>정부지원 여부         |
|  | 전자상거래를 위한<br>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구축 여부<br>정부지원 여부         |
|  | 지역축제                     | 어촌계 주최 축제수<br>어촌계 참여 축제수 |

### (3) 통계 분석대상 어촌계(표본) 특성

모든 어촌계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촌계의 특성에 따른 유형화 분석에 유효한 만큼의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현재 1,987개 어촌계 중에서 500개 어촌계를 무작위 추출하되, 1시·군에서 40개 이하의 표본을 추출하는 지역별 상한선을 두었다(조사표는 부록을 참고할 것).

이렇게 하여 추출된 500개 어촌계 표본의 지역별 구성은 강원 33, 경기 7, 경남 115, 경북 45, 부산 5, 울산 4, 인천 10, 전남 229, 전북 9, 제주 14, 충남 29 이다(<표 3-3> 참조).

| 표 3-3 | 표본 추출 어촌계(500)

| 시도         | 시군구 | 어촌계   |
|------------|-----|---|
| 강원<br>(33) | 강릉  | 강문, 금진리, 남향진, 사근진, 사천, 안목, 안인, 영진, 정동1리, 주문5리 |
|            | 고성  | 거진, 공현진리, 대진, 문암1리, 문암2리, 봉포, 오호리, 천진         |
|            | 동해  | 추암  |
|            | 삼척  | 갈남, 고포, 노곡, 작진, 장호, 정라, 증산, 초곡                |

|             |    |  |
|-------------|----|--|
|             | 속초 | 내물치, 동명  |
|             | 양양 | 광진리, 남애1리, 오산리, 인구리  |
| 경기<br>(7)   | 안산 | 탄도, 행낭곡  |
|             | 화성 | 국화도, 매향2리, 백미리, 원안리, 화산리   |
| 경남<br>(115) | 거제 | 궁임, 근포, 금포, 남부, 능포, 대곡, 덕곡, 동호, 사곡, 성포, 어온, 영복, 와현, 울포, 창도, 창외, 탑포, 해금강, 화도  |
|             | 고성 | 내신, 당동, 당항, 동화, 미룡, 수남, 신평, 신화, 우두, 춘암리  |
|             | 남해 | 가인, 곤유, 광천, 금송, 금평, 금포, 내동천, 노도, 노량, 당저, 당항, 문항, 보천, 사촌, 상주, 서창선, 선구, 선소, 속호, 신전, 양풍, 양화금, 연포, 울도, 조도, 초양, 토섬, 홍현, 화계, 화천                        |
|             | 마산 | 내포, 명주, 반동, 시락, 심리, 원전   |
|             | 사천 | 다맥, 대구, 대포, 모래 산분령, 신향 저도, 중항  |
|             | 진해 | 남양   |
|             | 창원 | 삼귀   |
|             | 통영 | 관암, 궁항, 덕동, 덕포, 도동, 두미북구, 매죽, 목청송, 미남, 법송, 불곡, 산등, 소고포, 수도, 수월, 신진, 신촌, 안정, 연화, 예곡, 오륜, 오륜동, 우도, 입정포, 자부, 정량, 죽도, 창좌, 탄항, 풍서, 하전, 학림, 호두, 화삼, 화포 |
|             | 하동 | 광평, 광포, 나팔, 내도, 대도   |
| 경북<br>(45)  | 경주 | 가곡, 나아, 나정2리, 연동, 하서   |
|             | 영덕 | 강구리, 경정2리, 금진1리, 금진2리, 부경리, 부흥리, 삼사리, 석리, 오포리, 원척리, 하저리  |
|             | 울릉 | 남양, 도동, 사동   |
|             | 울진 | 거일1리, 금음4리, 병곡2리, 사진1리, 사진3리, 오산1리, 죽진, 진북, 축산리, 현내  |
|             | 포항 | 강사2리, 구평2리, 대동배2리, 방어리, 병포리, 삼정2리, 삼정3리, 오도2리, 우목리, 입암2리, 청진3리, 칠포1리, 하정2리, 하정3리, 해송, 환호동  |
| 부산<br>(5)   | 강서 | 동리, 동선, 신호   |
|             | 기장 | 공수, 문중   |
| 울산<br>(4)   | 동구 | 주전   |
|             | 북구 | 당사, 우가   |

|             |    |   |
|-------------|----|---|
|             | 울주 | 진하  |
| 인천<br>(10)  | 강화 | 동검, 매음  |
|             | 옹진 | 모도, 백야, 승봉, 연지, 울도, 이작  |
|             | 중구 | 마시안, 연안   |
| 전남<br>(229) | 강진 | 구곡, 남호, 덕남, 미산, 별정, 수인, 신마, 연동, 장계, 하분, 거군, 고소, 광석, 남천, 남촌, 남흥, 내봉, 대봉, 대전, 덕산, 매동, 봉남, 분매, 사덕, 사양, 상동, 상진, 상초, 서촌, 석교, 석정, 슬항, 신금, 신양, 신정, 신평, 애도, 양사, 연소, 예내, 예당, 와교, 외래, 외초, 원도동, 울포, 장도, 제두, 진기, 청암, 풍류, 하동, 하장, 화도 |
|             | 광양 | 골약, 태인  |
|             | 고흥 | 사덕, 원도동, 연소, 석교, 풍류, 예당, 신평, 사양, 예내, 덕산, 남천, 서촌, 거군, 매동, 슬항, 분매, 광석, 하동, 화도, 고소, 봉남, 진기, 남흥, 대봉, 상동, 상진, 석정, 신금, 신양, 양사, 장도, 제두, 청암, 상초, 애도, 와교, 외초, 남촌, 내봉, 대전, 신정   |
|             | 목포 | 달리, 대반, 북항, 울도  |
|             | 무안 | 도리포, 동암, 마동, 복길, 성내, 압창, 옥곡, 창매, 하묘, 현화   |
|             | 보성 | 서당, 울포, 외래, 하장  |
|             | 순천 | 대대, 무풍, 신성, 용두  |
|             | 신안 | 가거 2,3구, 가란, 고평사, 대전, 반월, 병풍, 봉리, 사리, 사치, 상태, 수리, 수치, 안창, 예리1구, 예리2구, 오상, 우이도, 이곡, 자라, 재원, 전장포, 죽련, 진리2구, 팽진  |
|             | 여수 | 나발, 낭도, 대소여, 대포, 도독, 두모, 두문, 둔전, 반월, 백야, 사항, 서고지, 서도, 서상, 소경, 손죽, 송도(1), 송도(2), 신타(여천), 심미, 여석, 역포, 오복, 오천동, 외진, 우학, 작산, 적금, 조발, 종포, 직원포, 진막, 현천, 호전, 화태  |
|             | 영광 | 구수, 백수  |
|             | 완도 | 가래리, 감목, 관서리, 관중리, 교성리, 구성리, 구장리, 굴전리, 금곡리(생일), 내리, 당목리, 대창1리, 봉성리, 부상, 불목리, 사후리, 삼두리, 석중리, 소당리, 신흥리(군외), 여동리, 여서리, 여항리, 이목리, 중흥리, 천동리, 창학리, 초평리, 통리, 포전리, 향동리, 화개리, 횡간   |
|             | 장흥 | 노력, 대리, 덕촌, 사금, 송현, 신기, 신당, 안삭금, 양하, 용곡, 울산, 잠두, 죽청, 지청, 진목, 평촌   |

|            |      |   |
|------------|------|---|
|            | 진도   | 가계, 가학, 관매, 관호, 나리, 내동, 도목, 동거차, 동구, 별포, 산행, 상만, 세포, 소포, 신동, 육동, 율목, 죽림, 창유, 초사                       |
|            | 해남   | 갈두, 구림, 내동, 내송, 동현, 두모, 묵동, 선두, 성산, 소죽, 송호, 신흥, 엄남, 오산, 우근, 월산, 이진, 중정, 중도, 초두, 춘정, 한자, 흑석            |
| 전북<br>(9)  | 고창   | 장호  |
|            | 군산   | 신시, 어청, 연도  |
|            | 김제   | 규동, 석소  |
|            | 부안   | 격포, 백련, 조포  |
| 제주<br>(14) | 제주시  | 금능, 묵, 신촌리, 예초, 용담, 함덕리, 행원리  |
|            | 서귀포시 | 대포동, 통일, 시흥리, 신도, 신흥리, 월전, 토산리  |
| 충남<br>(29) | 서산   | 간월도, 노룡, 오지, 웅도, 중왕   |
|            | 서천   | 신창1리  |
|            | 태안   | 누동2,4리, 달산포, 대야도, 도성, 독개, 만리포, 모항2구, 몽산포, 법산, 사창, 송현, 신덕, 신온마검포, 안흥, 용신리, 의항3구, 정산포, 채석포, 청한, 학암포, 화성 |
|            | 홍성   | 신리  |

분석을 위해 추출한 변수에 대한 500개 표본의 기초통계량은 다음 <표 3-4>에 요약된 바와 같다.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어가수가 가장 큰 어촌계는 620어가, 가장 적은 어촌계는 4어가이며 평균은 67.7이다. 표본에서 호당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어촌계는 연간 5천7백만 원, 가장 적은 어촌계는 200만원이며 평균은 약 2천4백만 원이다.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공동어장이 없는 곳이 있는 반면, 평균 약 140ha의 마을공동어장이 있으며 표본에서 마을공동어장이 가장 큰 넓은 어촌계는 3,957ha를 관리하고 있었다. 어업인구는 평균 약 11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어촌계는 1,453명, 가장 적은 어촌계는 9명으로 나타나 어촌계별 어업인구수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계 관내 숙박업소는 평균 10.2개, 음식점은 평균 5.5개, 소매점은

평균 2.7개로 나타났다. 표본에서 숙박업소 수가 가장 많은 어촌계는 강릉시에 위치한 정동1리 어촌계로 800개가 있으며, 음식점 수와 소매점 수가 가장 많은 어촌계는 제주시에 위치한 함덕 어촌계로 관내 음식점 수는 150개, 소매점 수는 100개 이다.

| 표 3-4 | 표본 기초 통계량

| 자료                             | 항 목             | 표본수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어촌계<br>분류<br>평정<br>원<br>자<br>료 | 가구수             | 500 | 17   | 12,006 | 307.1   | 927.3  |
|                                | 어가수             | 500 | 4    | 620    | 67.7    | 62.6   |
|                                | 인구              | 500 | 20   | 33,756 | 776.5   | 2540.8 |
|                                | 어업인구            | 500 | 9    | 1,453  | 114.4   | 126.5  |
|                                | 호당평균소득<br>(천 원) | 500 | 2000 | 57,000 | 24231.0 | 7673.4 |
|                                | 어업권현황 (ha)      | 500 | 0    | 3,957  | 139.8   | 283.4  |
|                                | 무동력어선           | 499 | 0    | 32     | 1.4     | 3.4    |
|                                | 동력어선            | 499 | 0    | 736    | 39.5    | 62.8   |
|                                | 수산물생산 (톤)       | 499 | 0    | 15,468 | 522.1   | 1586.4 |
|                                | 수산물생산<br>(백만 원) | 499 | 0    | 43,000 | 1119.2  | 2677.8 |
| 수집<br>자료                       | 숙박업소 (개소)       | 500 | 0    | 800    | 10.2    | 44.9   |
|                                | 음식점 (개소)        | 500 | 0    | 150    | 5.5     | 13.8   |
|                                | 소매점 (개소)        | 500 | 0    | 100    | 2.7     | 6.4    |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촌계는 100개 어촌계, 특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는 어촌계는 65개,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어촌계는 52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어촌계는 18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구축한 어촌계는 60개이다(<표 3-5> 참조). 각 어촌계는 이들 다섯 가지 프로그램에 중

복 참여할 수 있다.

| 표 3-5 | 어촌계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참여여부

| 항 목           | 참여 어촌계 수 |
|---------------|----------|
| 어촌체험관광        | 100      |
| 특산물직판장        | 65       |
| 유료낚시터         | 52       |
| 유료주차장         | 18       |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 60       |

<표 3-6>은 조사대상 어촌계의 지역축제 주최 및 참여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지역축제를 주최하는 어촌계는 59개로 나타나 전체 표본 500개 어촌계의 11.8%를 차지하였다. 한편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어촌계는 171개로 나타나 전체 표본 500개 어촌계의 34.2%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1개 축제에 참여하는 어촌계는 7개에 불과하였으며, 2개 축제에 참여하는 어촌계도 33개에 그쳤으나 3개 이상 축제에 참여하는 어촌계의 수는 131개로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 표 3-6 | 지역축제 주최 및 참여 어촌계

| 항 목         | 어촌계 수 |
|-------------|-------|
| 지역축제 주최 어촌계 | 59    |
| 지역축제 참여 어촌계 | 171   |
| 1개 축제 참여    | 7     |
| 2개 축제 참여    | 33    |
| 3개 이상 축제 참여 | 131   |

### 3) 변수 축약을 위한 요인분석<sup>15)</sup>

요인분석의 목적은 변수 간의 상관행렬로부터 공통요인을 추출, 그 공통요인을 이용해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공통요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각 변수의 성질을 간결한 형태로 기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 <표 3-4>에 정리된 변수 13개와 이를 변형한 변수 4개<sup>16)</sup>, 각 어촌계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이에 대한 정부지원 수혜 여부, 그리고 지역축제 주최 및 참여 현황을 연속형 변수로 변환한 변수 3개<sup>17)</sup> 등 모두 20개 변수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측정 정도가 서로 다른 모든 변수들을 표준화하고 이들 변수의 상관계수행렬에서 전체 변수의 변동을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변인을 제거하였으며, 그 다음 각 변수들을 어촌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3개 범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어촌계의 특성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7개 변수를 최종 선정하였다(<표 3-7>참조).

15) 요인분석은 모든 변수가 ‘동일한 보조’로 나타나는 경우에 적합한 변수지향형 기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주성분분석과 다소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은 주성분분석이 기초가 되는 모형에 의존하지 않는 변수의 직교변환을 찾아내기 위한 기법인 데 반해서, 요인분석은 완전한 통계적 모형에 의거해서 변수의 분산에 대한 설명보다도 그것들의 공분산구조의 설명을 주제로 하고 있는 데 있다(노형진, 2007, p. 445)

16) 어업인구비율, 호당어업권면적, 호당수산물생산량, 호당수산물생산액.

17) 어촌체험관광지수, 수산물판매지수, 축제지수.



| 표 3-7 | 어촌계 특성변수

| 범 주          | 변 수                    |
|--------------|------------------------|
| 수산업 생산 지표    | 호당 어업권 면적, 호당 수산물 생산량  |
| 지역 관광업 발달 지표 | 숙박업소수, 음식점수            |
| 어촌관광 활성화 지표  | 체험관광지수, 수산물 판매지수, 축제지수 |

이 7개 변수 중에서 호당 어업권 면적과 호당 수산물 생산량은 어촌계의 수산업 생산을, 숙박업소수와 음식점 수는 어촌계의 관광업 발달 정도를, 그리고 체험관광지수와 수산물 판매지수(이하 판매지수) 및 축제지수는 어촌관광 활성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선정된 7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어촌계 유형 구분을 위한 군집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는 이들 7개 변수간 상관관계에 따라 유사성이 있는 변수들을 몇 개의 공통인자로 통합하는 요인분석을 수행하고 이렇게 도출된 인자의 요인점수를 적용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sup>18)</sup>. 요인분석 결과 주요 영향변수를 추출하고 선택된 변수의 특성에 따라 각 요인의 특성을 도출한 것이 다음 <표 3-8>이다.

| 표 3-8 | 요인별 소식변수 및 요인명

| 요인   | 대표변수                   |   | 요인명 부여        |
|------|------------------------|---|---------------|
| 요인 1 | 체험관광지수<br>판매지수<br>축제지수 | → | 어촌관광<br>활성 정도 |
| 요인 2 | 호당 어업권면적<br>호당 수산물생산량  | → | 수산물 생산성       |

18)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v17.0을 이용, 통계분석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참조.

|      |               |   |            |
|------|---------------|---|------------|
| 요인 3 | 숙박업소수<br>음식점수 | → | 지역 관광업 발전성 |
|------|---------------|---|------------|

4) 2단계 군집분석 결과 및 특징 도출

(1) 군집 분류

요인분석 결과 산출된 3개의 요인을 입력변수로 하여 2-step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500개 표본 어촌계는 모두 6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sup>19)</sup>.

2 단계 군집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3-9>와 <표 3-10>에 나타나 있다. 먼저 <표 3-9>는 분류된 군집의 수와 각 군집의 크기를 나타낸다. 군집 4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군집3과 군집4를 제외한 군집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적 비율로 나타났다.

19) 2-step 군집분석에서 군집의 개수는 Schwartz 정보기준에 따라 최적의 군집 개수를 산출하게 됨. 그런데 일반적인 군집분석에서는 연구자가 데이터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최적의 군집수를 미리 판단하여 연구자의 임의로 군집의 수를 정할 수 있음. 이와 달리 2-step 군집분석은 입력변수로 분류할 수 있는 최적 군집의 개수가 기준에 의해 도출(Schwartz 정보기준에 의해 산출)되므로 연구자의 의도가 배제되는 객관적인 수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장점이 있음(김정옥 의 2007).

| 표 3-9 | 군집 분류와 구성비

| 군 집 | 표본수 | 구성비    |
|-----|-----|--------|
| 1군집 | 44  | 8.8%   |
| 2군집 | 130 | 26.0%  |
| 3군집 | 16  | 3.2%   |
| 4군집 | 235 | 47.0%  |
| 5군집 | 7   | 1.4%   |
| 6군집 | 68  | 13.6%  |
| 계   | 500 | 100.0% |

| 표 3-10 | 어촌계 군집별 요인변수 특성

| 구 분 |   | 어촌관광 활성 정도 |        | 수산물 생산성  |        | 지역 관광업 발달성 |        |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군집  | 1 | 2.4312     | 0.9472 | 0.0565   | 0.5190 | 0.1244     | 0.7683 |
|     | 2 | 0.5126     | 0.4705 | - 0.1893 | 0.2295 | - 0.3938   | 0.2778 |
|     | 3 | - 0.4305   | 0.3859 | 4.4328   | 2.8927 | - 0.2048   | 0.3898 |
|     | 4 | - 0.6226   | 0.1701 | - 0.1436 | 0.2997 | - 0.2476   | 0.1450 |
|     | 5 | - 0.0246   | 1.0792 | - 0.0465 | 0.7096 | 6.6024     | 2.3187 |
|     | 6 | - 0.2977   | 0.5670 | - 0.2166 | 0.2391 | 0.8966     | 0.6521 |
| 조합됨 |   | 0.0000     | 1.0000 | 0.0000   | 1.0000 | 0.0000     | 1.0000 |

한편, 다음의 <표 3-10>은 각 군집과 3개 요인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요인변수의 평균값은 0을 기준으로 하여 0보다 크면 정(正)의 관계를, 0보다 작으면 부(負)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 값의 절대치가 크면 클수록 관계의 정도가 크다. 즉, 어촌관광 활성정도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군집은 1, 2군집이며, 이중 1군집에 더 크게 관련되어 있다. 수산물 생산성과 긍정

적인 관계에 있는 군집은 1, 3군집이며, 이중 3군집의 관련정도가 더 크다. 마찬가지로, 지역관광업 발달성은 1, 5, 6군집이 긍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중 5군집의 관련정도가 가장 크다.

## (2) 군집 특징

위에서 수행한 통계분석의 결과로 분류된 6개 군집을 범주형 변수인 도시인구 접근성, 어업형태, 소득수준 및 사·도별 지역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각 군집의 특징을 파악한다.

먼저, <표 3-11>은 도시인구의 접근성에 대한 군집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도시인구의 접근성은 배후지역 인구규모와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접근성 점수를 산정한 뒤 도서지역의 경우 이 점수에 0.5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점수에 따라 매우취약, 취약, 보통, 양호, 매우양호의 5단계로 구분한 결과 500개 표본 중에서 도시인구 접근성이 매우취약으로 나타난 어촌계는 65개로 13%이며, 매우양호로 나타난 어촌계는 9개로 전체의 1.8%에 불과하였다.

표 3-11 | 군집별 도시인구 접근성

| 구 분   |     | 1군집          | 2군집          | 3군집          | 4군집          | 5군집          | 6군집          | 전체    |
|-------|-----|--------------|--------------|--------------|--------------|--------------|--------------|-------|
| 매우 취약 | 빈도수 | 3            | 18           | 2            | 38           | 1            | 3            | 65    |
|       | 구성비 | 6.8%         | 13.8%        | 12.5%        | <b>16.2%</b> | 14.3%        | 4.4%         | 13.0% |
| 취약    | 빈도수 | 12           | 54           | 14           | 89           | 1            | 12           | 182   |
|       | 구성비 | 27.3%        | <b>41.5%</b> | <b>87.5%</b> | 37.9%        | 14.3%        | 17.6%        | 36.4% |
| 보통    | 빈도수 | 19           | 48           | 0            | 98           | 5            | 43           | 213   |
|       | 구성비 | 43.2%        | 36.9%        | 0.0%         | 41.7%        | <b>71.4%</b> | 63.2%        | 42.6% |
| 양호    | 빈도수 | 8            | 8            | 0            | 8            | 0            | 7            | 31    |
|       | 구성비 | <b>18.2%</b> | 6.2%         | 0.0%         | 3.4%         | 0.0%         | <b>10.3%</b> | 6.2%  |
| 매우 양호 | 빈도수 | 2            | 2            | 0            | 2            | 0            | 3            | 9     |
|       | 구성비 | <b>4.5%</b>  | 1.5%         | 0.0%         | 0.9%         | 0.0%         | <b>4.4%</b>  | 1.8%  |

<표 3-12>는 군집별 어업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표본전체 중 어선어업,

복합어업, 양식어업의 비율은 각각 29.8%, 28.0%, 42.2%이나 5군집과 6군집에 속한 어촌계는 어선어업의 비율이 특히 높은 반면, 1군집은 복합어업의 비율이 특히 높고, 3군집은 양식어업의 비율이 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 표 3-12 | 군집별 어업형태 구성

| 군집  | 어선어업 |              | 복합어업 |              | 양식어업 |               |
|-----|------|--------------|------|--------------|------|---------------|
|     | 빈도수  | 구성비          | 빈도수  | 구성비          | 빈도수  | 구성비           |
| 1군집 | 12   | 27.3%        | 16   | <b>36.4%</b> | 16   | 36.4%         |
| 2군집 | 37   | 28.5%        | 41   | 31.5%        | 52   | 40.0%         |
| 3군집 | 0    | 0.0%         | 0    | 0.0%         | 16   | <b>100.0%</b> |
| 4군집 | 62   | 26.4%        | 67   | 28.5%        | 106  | 45.1%         |
| 5군집 | 4    | <b>57.1%</b> | 1    | 14.3%        | 2    | 28.6%         |
| 6군집 | 34   | <b>50.0%</b> | 15   | 22.1%        | 19   | 27.9%         |
| 전체  | 149  | 29.8%        | 140  | 28.0%        | 211  | 42.2%         |

군집별 어촌계 소득수준 구성을 나타낸 것이 <표 3-13>이다. 여기서 저소득 어촌계는 연간 어가평균소득 2,000만원 미만인 어촌계를, 고소득 어촌계는 연간 어가평균소득 3,000만원 이상인 어촌계를, 보통소득 어촌계는 연간 어가평균소득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어촌계를 의미한다. 500개 표본 어촌계 중에서 저소득 어촌계는 26.4%, 보통소득 어촌계는 46.8%, 고소득 어촌계는 26.8%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별로 보면 2군집과 4군집의 저소득 어촌계 비율이 높은 반면, 5군집의 고소득 어촌계 비율이 가장 높다.

| 표 3-13 | 군집별 어촌계 소득수준 구성

| 구분 | 저소득 | 보통소득 | 고소득 |
|----|-----|------|-----|
|----|-----|------|-----|

|     | 빈도수 | 구성비          | 빈도수 | 구성비   | 빈도수 | 구성비          |
|-----|-----|--------------|-----|-------|-----|--------------|
| 1군집 | 11  | 25.0%        | 19  | 43.2% | 14  | <b>31.8%</b> |
| 2군집 | 38  | <b>29.2%</b> | 60  | 46.2% | 32  | 24.6%        |
| 3군집 | 2   | 12.5%        | 8   | 50.0% | 6   | <b>37.5%</b> |
| 4군집 | 70  | <b>29.8%</b> | 110 | 46.8% | 55  | 23.4%        |
| 5군집 | 0   | 0.0%         | 4   | 57.1% | 3   | <b>42.9%</b> |
| 6군집 | 11  | 16.2%        | 33  | 48.5% | 24  | <b>35.3%</b> |
| 전체  | 132 | 26.4%        | 234 | 46.8% | 134 | 26.8%        |

그리고 지역별 어촌계 군집 분포를 나타낸 것이 <표 3-14>이다. 제3군집은 특이하게 전남지역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3-14 | 지역별 어촌계 군집 분포

| 구 분 | 1군집          | 2군집            | 3군집          | 4군집            | 5군집          | 6군집           |
|-----|--------------|----------------|--------------|----------------|--------------|---------------|
| 강원  | 7<br>(21.2%) | 3<br>(9.1%)    | 0<br>(0.0%)  | 11<br>(33.3%)  | 2<br>(6.1%)  | 10<br>(30.3%) |
| 경기  | 3<br>(42.9%) | 0<br>(0.0%)    | 0<br>(0.0%)  | 2<br>(28.6%)   | 0<br>(0.0%)  | 2<br>(28.6%)  |
| 경남  | 8<br>(7.0%)  | 30<br>(26.1%)  | 0<br>(0.0%)  | 61<br>(53.0%)  | 1<br>(0.9%)  | 15<br>(13.0%) |
| 경북  | 2<br>(4.4%)  | 14<br>(31.1%)  | 0<br>(0.0%)  | 19<br>(42.2%)  | 1<br>(2.2%)  | 9<br>(20.0%)  |
| 부산  | 1<br>(20.0%) | 1<br>(20.0%)   | 0<br>(0.0%)  | 1<br>(20.0%)   | 0<br>(0.0%)  | 2<br>(40.0%)  |
| 울산  | 0<br>(0.0%)  | 1<br>(25.0%)   | 0<br>(0.0%)  | 1<br>(25.0%)   | 0<br>(0.0%)  | 2<br>(50.0%)  |
| 인천  | 2<br>(20.0%) | 3<br>(30.0%)   | 0<br>(0.0%)  | 2<br>(20.0%)   | 0<br>(0.0%)  | 3<br>(30.0%)  |
| 전남  | 14<br>(6.1%) | 64<br>(27.9%)  | 16<br>(7.0%) | 116<br>(50.7%) | 1<br>(0.4%)  | 18<br>(7.9%)  |
| 전북  | 0<br>(0.0%)  | 4<br>(44.4%)   | 0<br>(0.0%)  | 3<br>(33.3%)   | 1<br>(11.1%) | 1<br>(11.1%)  |
| 제주  | 1<br>(7.1%)  | 1<br>(7.1%)    | 0<br>(0.0%)  | 10<br>(71.4%)  | 1<br>(7.1%)  | 1<br>(7.1%)   |
| 충남  | 6<br>(20.7%) | 9<br>(31.0%)   | 0<br>(0.0%)  | 9<br>(31.0%)   | 0<br>(0.0%)  | 5<br>(17.2%)  |
| 전국  | 44<br>(8.8%) | 130<br>(26.0%) | 16<br>(3.2%) | 235<br>(47.0%) | 7<br>(1.4%)  | 68<br>(13.6%) |

<표 3-15>는 분석 대상인 500개 표본 어촌계를 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6개 군집으로 분류한 것이다.

|표 3-15| 군집별 어촌계 분류

| 군집         | 해 당 어 촌 계  |
|------------|--|
| 1<br>(44)  | 안목, 매음, 봉포, 거진, 문항, 신성, 대포, 경정2리, 소당리, 청학리, 통리, 죽림, 도목, 연화, 백아, 국화도, 매향2리, 백미리, 안인, 영진, 문암1리, 오호리, 간월도, 송현, 용신리, 중왕, 학암포, 몽산포, 도리포, 복길, 상태, 송호, 오산, 진막, 두문, 거일1리, 창도, 대포, 대도, 신전, 도동, 다맥, 공수, 대포동  |
| 2<br>(130) | 금진리, 미산, 장계, 남호, 동검, 근포, 가곡, 연동, 동화, 사택, 원도동, 연소, 석교, 풍류, 예당, 어청, 금동, 광천, 심리, 성내, 동신, 산분령, 저도, 노룡, 신창1리, 병풍, 수치, 호전, 신덕(여천), 금진2리, 포전리, 중흥리, 사후리, 금곡리(생일), 내리, 여동리, 현내, 죽진, 죽정, 신당, 용곡, 노력, 묵, 신동, 사창, 안흥, 덕동, 연지, 연안, 천진, 노곡, 법산, 달산포, 몽산1리, 대야도, 화성, 신시, 조포, 별정, 달리, 울도, 가란, 반월, 오상, 재원, 전장포, 구성리, 불목리, 나리, 세포, 소포, 울목, 갈두, 성산, 사리, 진리 2구, 서도, 신평, 하장, 사양, 예내, 대대, 도독, 심미, 여석, 작산, 적금, 조발, 화태, 대리, 덕촌, 송현, 지정, 평촌, 반월, 사항, 태인, 석리, 원척리, 강사2리, 대동배2리, 삼정3리, 남양, 사진1리, 사진3리, 해송, 대곡, 탑포, 수남, 원전, 대구, 당사, 궁항, 매죽, 소고포, 수도, 죽도, 하전, 학림, 화포, 나팔, 내도, 금평, 당항, 사촌, 선구, 양화금, 흥현, 화계, 자부  |
| 3<br>(16)  | 덕산, 횡간, 부상, 상만, 초두, 중정, 가계, 별포, 초사, 구림, 내송, 선두, 월산, 증도, 남천, 서촌   |
| 4<br>(235) | 강문, 하분, 신마, 와현, 사곡, 화도, 남부, 신평, 거군, 매동, 슬항, 분매, 광석, 하동, 화도, 고소, 봉남, 진기, 문중, 토섬, 당저, 노도, 초양, 금포, 숙호, 곤유, 선소, 언포, 옥곡, 마동, 현화, 웅도, 내물치, 용두, 우이도, 고평사, 가거 2,3구, 광진리, 남애1리, 오산리, 직원포, 백야, 송도, 역포, 두모, 소경, 오복, 송도, 금진1리, 울도, 석중리, 구장리, 여서리, 대창1리, 천동리, 삼두리, 초평리, 신흥리(군외), 향동리, 여항리, 화개리, 가래리, 관중리, 감목, 진목, 울산, 사금, 신기, 행원리, 산행, 동거차, 육동, 독개, 산등, 신전, 창좌, 신촌, 호두, 모도, 원안리, 화산리, 갈남, 증산, 고평, 작진, 남향진, 공현진리, 신리, 도성, 오지, 정산포, 청산, 신온,검포, 누동2,4리, 연도, 백련, 장호, 구곡, 덕남, 수인, 대반, 동암, 압창, 창매, 하묘, 대천, 사치, 안창, 자라, 죽련, 팽진, 구수, 교성리, 봉성리, 가학, 관호, 내동, 동구, 보전, 창유, 내동, 동현, 두모, 묵동, 소죽, 신흥, 엄남, 우근, 이진, 춘정, 한자, 흑석, 수리, 예리 2구, 손죽, 남흥, 대봉, 상동, 상진, 서당, 석정, 신금, 신양, 양사, 장도, 제두, 청암, 상초, 애도, 와교, 외초, 나발, 낭도, 둔전, 무풍, 서고지, 서상, 오천동, 우학, 현천, 안삭금, 양하, 잠두, 골약, 외진, 나정2리, 부경리, 부흥리, 구평2리, 병포리, 삼정2리, 하정2리, 하정3리, 사동, 오산1리, 진북, 방어리, 오도2리, 우목리, 입암2리, 청진3리, 환호동, 금음4리, 금포, 동호, 성포, 어온, 영북, 창외, 내신, 미룡, 신화, 우두, 춘암리, |



|           |   |
|-----------|---|
|           | 반동, 모례, 신항, 중항, 우가, 관암, 법송, 수월, 안정, 예곡, 오륜, 오륜동, 입정포, 정량, 풍서, 화삼, 광평, 광포, 가인, 금송, 내동천, 보천, 상주, 서창선, 양풍, 울도, 화천, 두미북구, 목청송, 불곡, 우도, 탄항, 월전, 신흥리, 동일, 신도, 신흥리, 토산리, 신촌리, 용담, 예초   |
| 5<br>(7)  | 정동1리, 사근진, 격포, 북항, 강구리, 조도, 함덕리   |
| 6<br>(68) | 사천, 연동, 대진, 문암2리, 남촌, 삼귀, 울포, 외래, 동리, 초곡, 예리1구, 탄도, 승봉, 이목리, 당목리, 도동, 관매, 남양, 채석포, 이작, 행낭곡, 마시안, 장호, 정라, 추암, 동명, 인구리, 주문5리, 만리포, 모항2구, 신덕, 의항3구, 석소, 봉리, 이곡, 백수, 관서리, 굴전문리, 봉, 대전, 신 예리당소여, 종포, 나아, 하서, 삼사리, 오포리, 하저리, 병곡2리, 축산리, 칠포1리, 궁입, 능포, 덕곡, 울포, 해금강, 당동, 당항, 내포, 명주, 시락, 주전, 진하, 신흥, 덕포, 미남, 노량, 금능 |

## 2. 유형화

여기에서는 앞 절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어촌을 유형화하고 이를 시도 및 시군별 어촌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3개의 요인변수와 범주형 변수인 입지유형, 소득수준, 어업형태 등을 입력변수로 하여 2단계 군집분석에 의해 6개 군집으로 도출하였다. 이들 6개 군집을 기초로 하여 어촌유형 분류를 하고 유형별 명칭과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분석대상 500개 어촌계를 시도 및 시·군 분포와 어촌 유형의 특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촌 유형분류에 따른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1) 어촌계 유형화

앞의 <표 3-10>에 제시된 군집별 통계분석 요인변수 특성과 <표 3-11>,

<표3-12>, <표3-13>에서 파악한 군집별 도시인구 접근성, 어업유형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으로 어촌의 유형을 도출해 보면 <표 3-16>와 같다.

군집별 어촌 유형의 명칭 및 특성에 따른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 3-16>에서 1군집을 보면 군집분석에 사용된 모든 요인과 긍정적 관계에 있으며, 도시인구 접근성이 우수하고 어업유형은 복합어업이 우세하며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촌으로 I 유형의 ‘근교복합관광형’ 어촌으로 해석하였다.

2군집은 II유형으로, 어촌관광 활성 정도와 긍정적 관계에 있으며, 도시인구의 접근성은 보통이고 특징적인 어업유형을 보이지 않는 보통소득 어촌으로 ‘어촌관광형’ 어촌으로 해석하였다.

[표 3-16] 군집 특성에 따른 어촌 유형화

| 군집 | 통계분석 요인적 특성  |            |                  | 기타 특성          |          |          | 어촌 유형         |
|----|--------------|------------|------------------|----------------|----------|----------|---------------|
|    | 어촌관광활성<br>정도 | 수산물<br>생산성 | 지역<br>관광업<br>발달성 | 도시<br>인구<br>접근 | 어업<br>유형 | 소득<br>수준 |               |
| 1  | (+)          | (+)        | (+)              | ○              | 복합       | ○        | I. 근교복합관광형    |
| 2  | (+)          | (-)        | (-)              | △              | -        | △        | II. 어촌관광형     |
| 3  | (-)          | (+)        | (-)              | ×              | 양식       | ○        | III. 양식어업 특화형 |
| 4  | (-)          | (-)        | (-)              | △              | -        | △        | IV. 취약형       |
| 5  | (-)          | (-)        | (+)              | ×              | 어선       | ○        | V. 지역관광형      |
| 6  | (-)          | (-)        | (+)              | ○              | 어선       | ○        | VI. 근교 관광형    |

주1) (+)는 정(正)의 관계, (-)는 부(負)의 관계를 의미.

주2) ○는 양호, △는 보통, ×는 미흡을 의미.

3군집은 III유형으로, 수산물 생산성과 긍정적 관계에 있으며, 양식어업이 우세한 지역으로 도시인구의 접근성은 열악하나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어촌으로 ‘양식어업 특화형’으로 해석하였다.

4군집은 IV유형으로, 어촌계의 특성을 구분하는 3가지 요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며, 도시인구 접근성과 소득수준이 보통이고 다양한 어업유형에 종사하는 어촌으로, 500개 표본어촌계의 47%인 235개 어촌계가 해당하여 ‘취약형’으로 해석하였다.

5군집은 V유형으로, 지역 관광업 발달성과 긍정적 관계에 있으나 도시인구의 접근성이 열악하지만, 어선어업이 우세인 고소득 어촌으로 ‘지역 관광형’어촌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6군집은 VI유형으로, 5군집과 마찬가지로 지역 관광업 발달성과 긍정적 관계에 있으며, 어선어업이 우세인 고소득 어촌인데 도시인구의 접근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으므로 ‘근교관광형’어촌으로 해석하였다.

## 2) 시·군 별 어촌 유형 분포와 특징

어촌 유형화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500개 어촌계의 유형을 시·군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 <표 3-17>이다.

| 표 3-17 | 시·군별 어촌계의 유형 분포

| 시도 | 시 군 | I 유형 | II 유형 | III 유형 | IV 유형 | V 유형 | VI 유형 | 계  |
|----|-----|------|-------|--------|-------|------|-------|----|
| 강원 | 강릉  | 3    | 1     | 0      | 2     | 2    | 2     | 10 |
|    | 고성  | 4    | 1     | 0      | 1     | 0    | 2     | 8  |
|    | 동해  | 0    | 0     | 0      | 0     | 0    | 1     | 1  |
|    | 삼척  | 0    | 1     | 0      | 4     | 0    | 3     | 8  |
|    | 속초  | 0    | 0     | 0      | 1     | 0    | 1     | 2  |
|    | 양양  | 0    | 0     | 0      | 3     | 0    | 1     | 4  |
| 경기 | 안산  | 0    | 0     | 0      | 0     | 0    | 2     | 2  |
|    | 화성  | 3    | 0     | 0      | 2     | 0    | 0     | 5  |
| 경남 | 거제  | 1    | 3     | 0      | 10    | 0    | 5     | 19 |
|    | 고성  | 0    | 2     | 0      | 6     | 0    | 2     | 10 |
|    | 남해  | 2    | 8     | 0      | 18    | 1    | 1     | 30 |
|    | 마산  | 0    | 2     | 0      | 1     | 0    | 3     | 6  |
|    | 사천  | 2    | 3     | 0      | 3     | 0    | 0     | 8  |
|    | 진해  | 0    | 0     | 0      | 0     | 0    | 1     | 1  |
|    | 창원  | 0    | 0     | 0      | 0     | 0    | 1     | 1  |
|    | 통영  | 2    | 10    | 0      | 21    | 0    | 2     | 35 |
| 경북 | 하동  | 1    | 2     | 0      | 2     | 0    | 0     | 5  |
|    | 경주  | 0    | 2     | 0      | 1     | 0    | 2     | 5  |
|    | 영덕  | 1    | 3     | 0      | 3     | 1    | 3     | 11 |
|    | 울릉  | 0    | 1     | 0      | 1     | 0    | 1     | 3  |
|    | 울진  | 1    | 4     | 0      | 3     | 0    | 2     | 10 |
|    | 포항  | 0    | 4     | 0      | 11    | 0    | 1     | 16 |
| 부산 | 강서  | 0    | 1     | 0      | 0     | 0    | 2     | 3  |
|    | 기장  | 1    | 0     | 0      | 1     | 0    | 0     | 2  |
| 울산 | 동구  | 0    | 0     | 0      | 0     | 0    | 1     | 1  |
|    | 북구  | 0    | 1     | 0      | 1     | 0    | 0     | 2  |
|    | 울주  | 0    | 0     | 0      | 0     | 0    | 1     | 1  |
| 인천 | 강화  | 1    | 1     | 0      | 0     | 0    | 0     | 2  |
|    | 옹진  | 1    | 1     | 0      | 2     | 0    | 2     | 6  |
|    | 중구  | 0    | 1     | 0      | 0     | 0    | 1     | 2  |
| 충남 | 서산  | 2    | 1     | 0      | 2     | 0    | 0     | 5  |
|    | 서천  | 0    | 1     | 0      | 0     | 0    | 0     | 1  |
|    | 태안  | 4    | 7     | 0      | 6     | 0    | 5     | 22 |
|    | 홍성  | 0    | 0     | 0      | 1     | 0    | 0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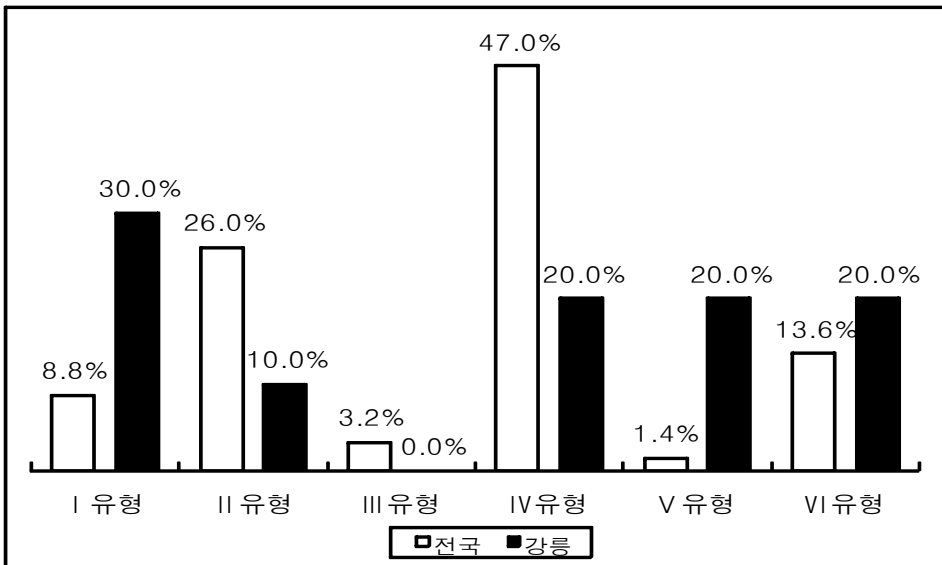
| 표 3-17 | 시·군별 어촌계의 유형 분포(계속)

| 시도 | 시군  | I 유형 | II 유형 | III 유형 | IV 유형 | V 유형 | VI 유형 | 계   |
|----|-----|------|-------|--------|-------|------|-------|-----|
| 전남 | 강진  | 0    | 4     | 0      | 5     | 0    | 1     | 10  |
|    | 고흥  | 0    | 9     | 3      | 25    | 0    | 4     | 41  |
|    | 광양  | 0    | 1     | 0      | 1     | 0    | 0     | 2   |
|    | 목포  | 0    | 2     | 0      | 1     | 1    | 0     | 4   |
|    | 무안  | 2    | 1     | 0      | 7     | 0    | 0     | 10  |
|    | 보성  | 0    | 1     | 0      | 1     | 0    | 2     | 4   |
|    | 순천  | 1    | 1     | 0      | 2     | 0    | 0     | 4   |
|    | 신안  | 1    | 9     | 0      | 11    | 0    | 3     | 24  |
|    | 여수  | 3    | 12    | 0      | 18    | 0    | 2     | 35  |
|    | 영광  | 0    | 0     | 0      | 1     | 0    | 1     | 2   |
|    | 완도  | 3    | 8     | 2      | 16    | 0    | 4     | 33  |
|    | 장흥  | 0    | 9     | 0      | 7     | 0    | 0     | 16  |
|    | 진도  | 2    | 5     | 4      | 9     | 0    | 1     | 21  |
|    | 해남  | 2    | 2     | 7      | 12    | 0    | 0     | 23  |
| 전북 | 고창  | 0    | 0     | 0      | 1     | 0    | 0     | 1   |
|    | 군산  | 0    | 2     | 0      | 1     | 0    | 0     | 3   |
|    | 김제  | 0    | 1     | 0      | 0     | 0    | 1     | 2   |
|    | 부안  | 0    | 1     | 0      | 1     | 1    | 0     | 3   |
| 제주 | 서귀포 | 1    | 0     | 0      | 6     | 0    | 0     | 7   |
|    | 제주  | 0    | 1     | 0      | 4     | 1    | 1     | 7   |
| 계  |     | 44   | 130   | 16     | 235   | 7    | 68    | 500 |

각 시·군의 어촌계 유형분포를 전체 표본어촌계의 유형분포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시·군별 어촌 유형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표본의 수가 10개 미만인 시·군은 어촌 유형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3-17>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분석대상 시·군은 모두 54개이며, 이중 어촌계(표본)의 수가 10개 이상인 시·군은 18개이다. 나머지 36개 시·군은 조사된 어촌계의 수가 10개 미만인 것으로 집계되어 시·군은 어촌 유형을 판단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 (1) 강릉

<그림 3-2>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전체 표본의 유형분포와 비교한 결과 강릉은 V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가 특히 우세하며, I 유형과 VI 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도 비교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II 유형, III유형과 IV유형의 분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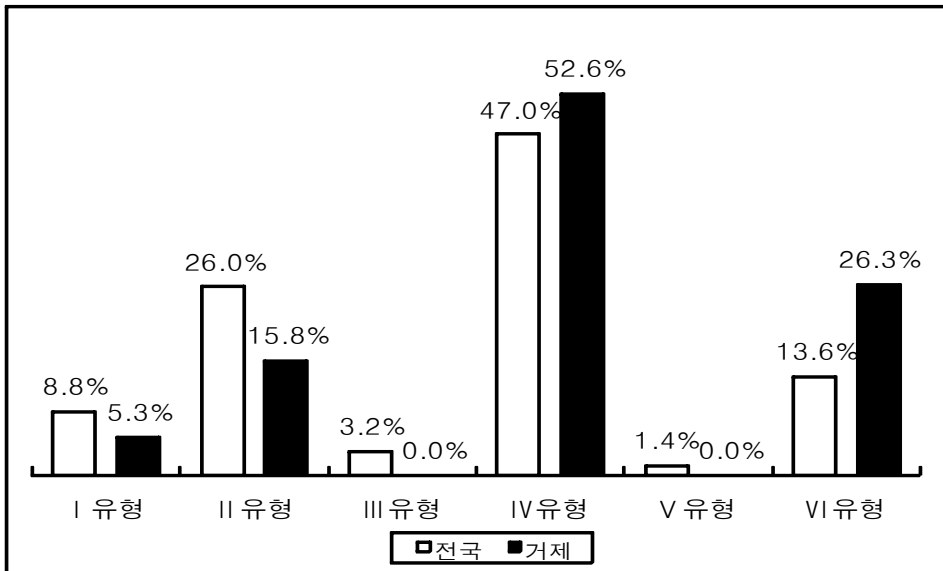
| 그림 3-2 | 강릉 어촌계의 유형분포

이는 수도권으로부터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해수욕장과 일출, 해산물 먹거리, 유명 드라마 촬영지(정동진) 등 관광자원이 다양하고 관광업이 발달한 강릉지역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강릉은 관광형 어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강릉지역 어촌은 V유형과 VI유형의 우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V유형으로 분류된 정동1리와 사근진어촌계는 수도권 인

구의 관광 우세지역이며, VI유형으로 분류된 사천, 주문5리 어촌계는 지역 인구의 관광 우세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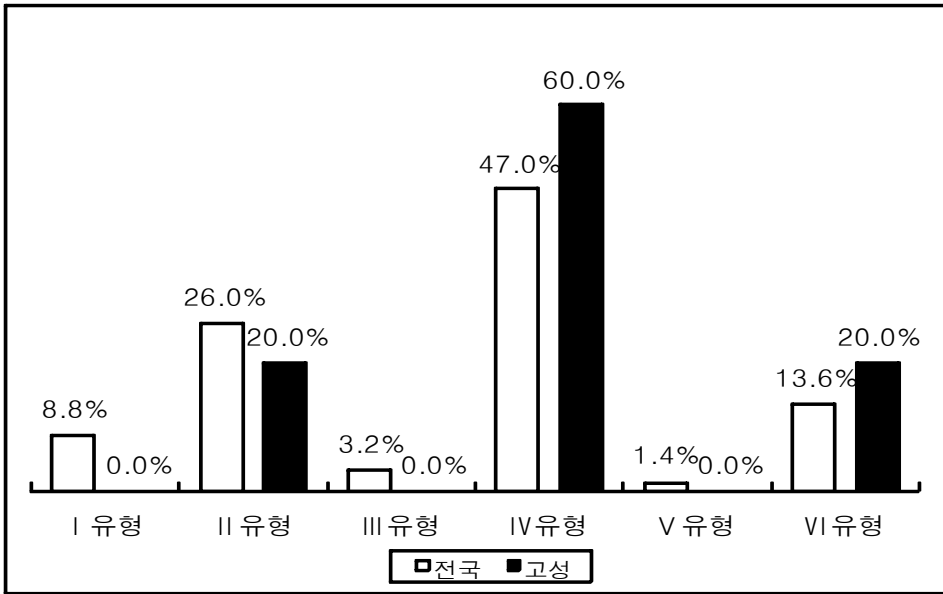
## (2) 거제, 고성(경남), 남해, 통영

경남의 거제, 고성, 남해, 통영의 어촌계 유형분포는 대동소이한 특징이 있다. 먼저, 거제는 전체 표본의 유형분포와 비교한 결과 거제는 V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가 우세하며, IV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도 비교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I, II, III, V유형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



| 그림 3-3 | 거제 어촌계의 유형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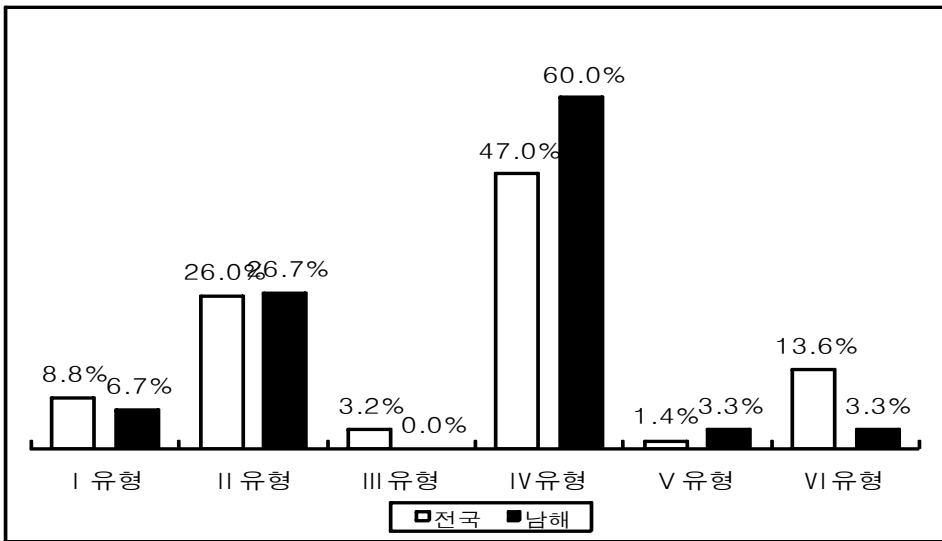
그 다음 고성은 IV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가 우세하며, V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도 비교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I, II, III, V유형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



| 그림 3-4 | 고성(경남) 어촌계의 유형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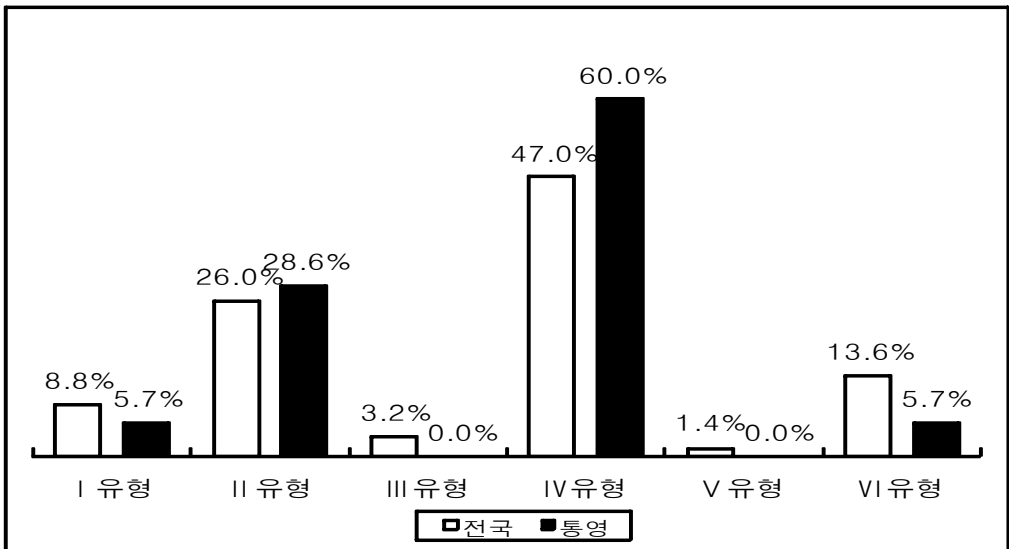
그리고 남해는 전체 표본의 유형분포와 비교한 결과 IV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가 우세하며, V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도 비교적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I, II, V유형은 전체평균과 비슷한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5>).





| 그림 3-5 | 남해 어촌계의 유형분포

마지막으로 통영은 전체 표본의 유형분포와 비교한 결과 IV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가 우세하고, I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는 전체와 비슷한 반면, I, III, V, V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는 비교적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6>).



| 그림 3-6 | 통영 어촌계의 유형분포

이상의 결과로부터 이 네 지역은 모두 IV유형인 취약형 어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거제의 경우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구성이 조화를 이루며 접근성이 열악한 도서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거제지역 어촌의 특성을 알 수 있다. 다만 VI유형 어촌계의 분포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밀집한 동남해안에 위치한 거제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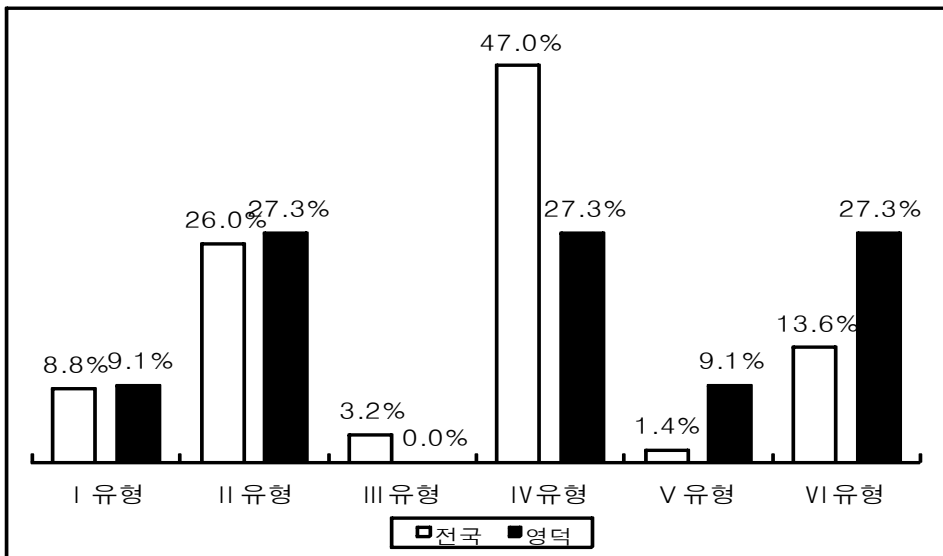
고성과 남해 역시 인접한 거제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구성이 조화를 이루며 인구가 밀집한 동남해안에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특히 남해는 지리적 조건은 연육교로 육지와 이어져 있으나,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워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영 역시 인접한 거제, 고성, 남해 등 경남 지방의 어촌과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 타 지역에 비해 I, V, 및 VI 유형의

어촌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관광 활성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 (3) 영덕

<그림 3-7>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전체 표본의 유형분포와 비교한 결과 영덕은 V유형과 V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가 우세하고, I 유형과 I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는 전체와 비슷한 반면, III, IV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는 비교적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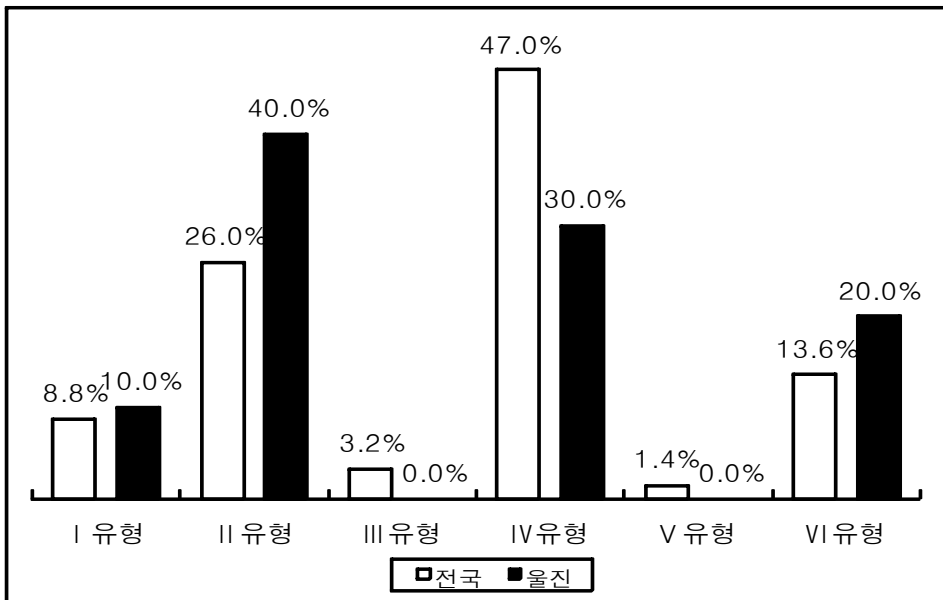


| 그림 3-7 | 영덕 어촌계의 유형분포

이는 어선어업 위주의 어업생산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나 양식어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어업생산은 비교적 저조하고 해수욕장과 먹거리 관광이 발달한 영덕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영덕은 관광형 어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강릉과 마찬가지로 영덕 어촌이 가지는 특성은 V 유형과 VI 유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는 V 유형으로 분류된 강구어촌계는 수도권 인구의 관광 우세지역이

며, VI유형으로 분류된 삼사리, 오포리, 하저리 어촌계는 대구, 포항 등 배후 도시의 관광 우세지역이다.

#### (4) 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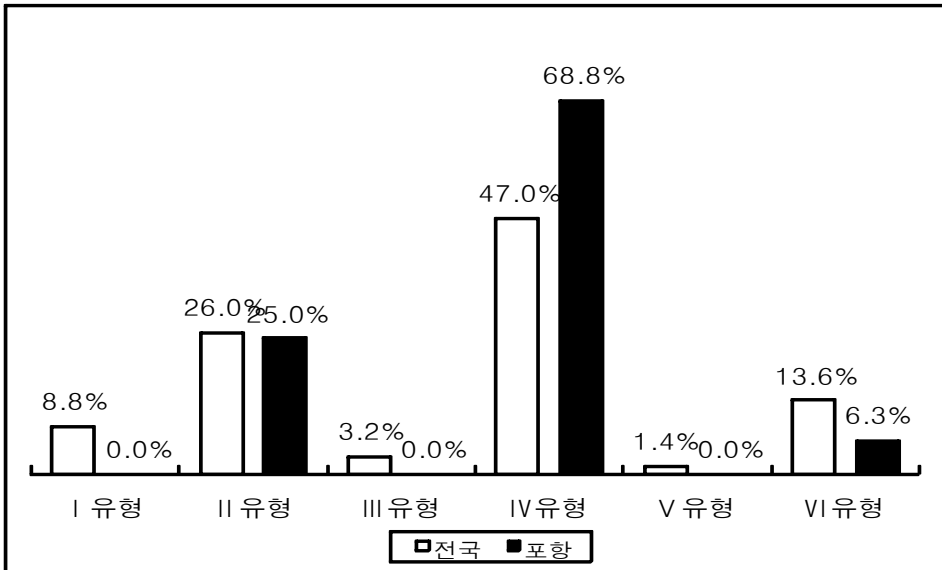


| 그림 3-8 | 울진 어촌계의 유형분포

<그림 3-8>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전체 표본의 유형분포와 비교한 결과 울진은 I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가 우세하고, V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도 비교적 우세한 반면, III, IV, V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는 비교적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은 동해안에서 드물게 어촌계 활성화 빈도가 높은 지역이며, 어업생산은 어선어업 위주의 생산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나 양식어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비교적 저조한 경북 동해안 지역 어촌의 공통적인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울

진은 어촌계 활성화형 어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5) 포항



| 그림 3-9 | 포항 어촌계의 유형분포

<그림 3-9>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전체 표본의 유형분포와 비교한 결과 포항은 IV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가 우세하고, I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는 전체와 비슷한 반면, I, III, V, V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는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철소의 유치로 70년대 이후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어촌계가 사라진 포항 어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즉, 포항시내에 발달한 해수욕장과 횃집 등 해양성 관광은 어촌계가 주도하는 어촌관광이 아니며, 포항지역에 남아화가 어촌은 포항시내를 기준으로 북쪽의 흥해읍과 남쪽의 구룡포읍 나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어선 어업 위주의 생산활동에 주력하고 있가 것격하게 포항지역에서 유일하게 내

에 발달한 해수칠포1 관광은 늘 대구·경북지역에서 비교적 명성이 있는 칠포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어촌계이며, 나머지 어촌계는 모두 II, IV유형에 속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포항 어촌은 일반형 어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6) 강진, 신안, 여수, 장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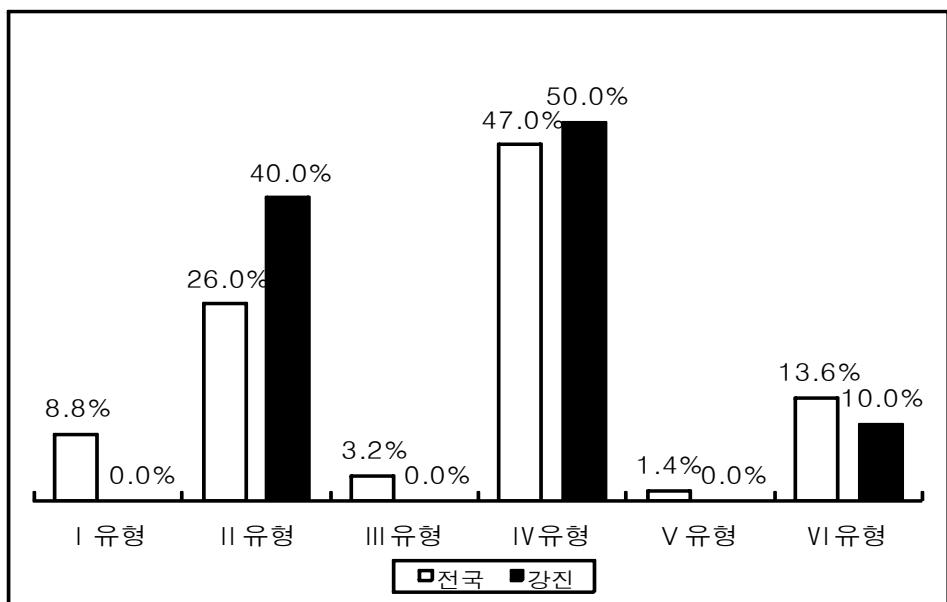
<그림 3-10>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전체 표본의 유형분포와 비교한 결과 강진은 I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가 우세하고, IV유형과 V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는 전체와 비슷한 반면, I, III, V유형에 속하는 어촌계는 분포하지 않는다.

한편, 신안 역시 I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가 우세하고, IV유형과 V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는 전체와 비슷한 반면, III, V유형에 속하는 어촌계는 분포하지 않는다(<그림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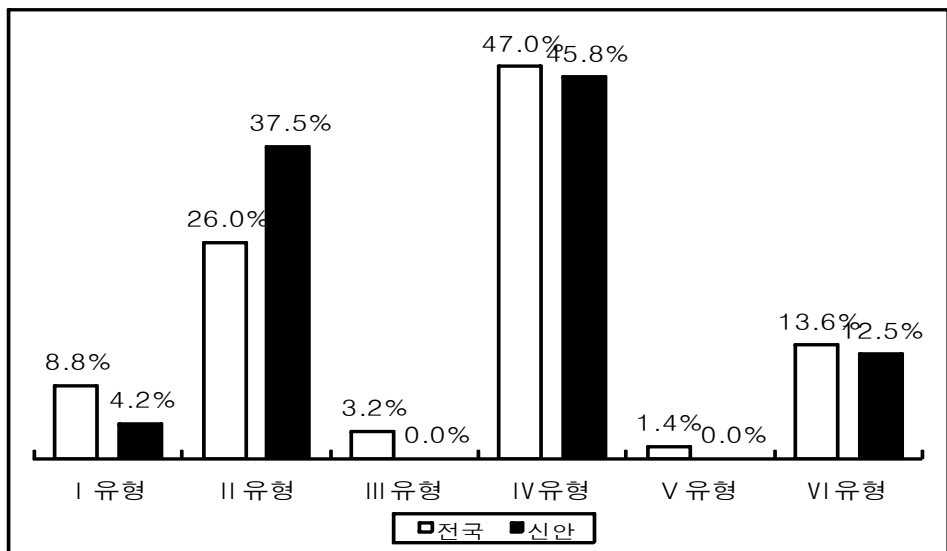
여수도 이와 마찬가지로 I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가 우세하고 IV유형은 전체와 비슷한 반면, V유형과 VI유형의 분포는 열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 두 지역과 비슷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장흥은 극단적으로 I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가 특히 우세하며, IV유형에 속하는 어촌계도 우세한 반면, I, III, V, V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는 분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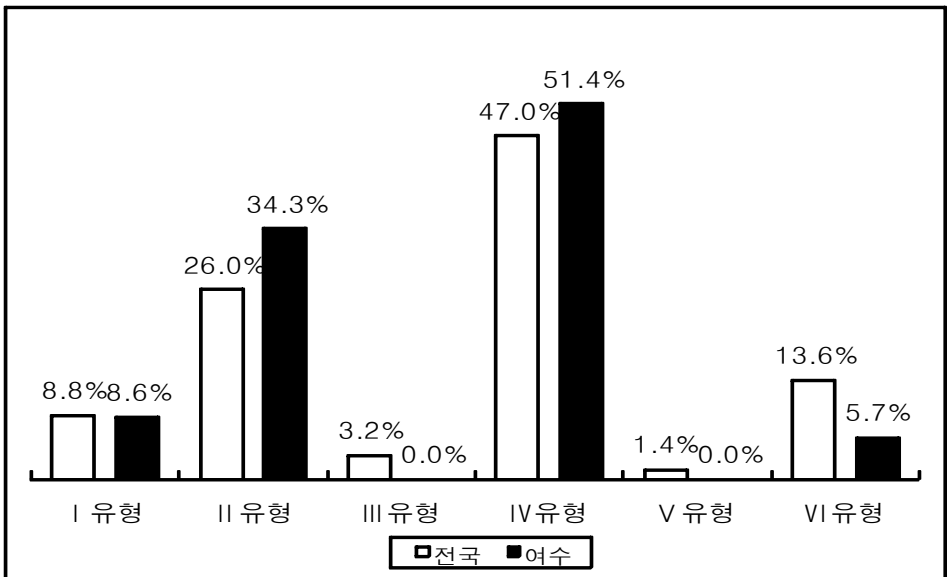
이는 연안에서의 어선어업과 김 등 양식업이 발달하여 어업생산활동이 활발하나 뚜렷한 관광자원이 없고, 수도권 및 배후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저조한 이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강진과 신안, 여수, 장흥은 II유형인 어촌관광형 어촌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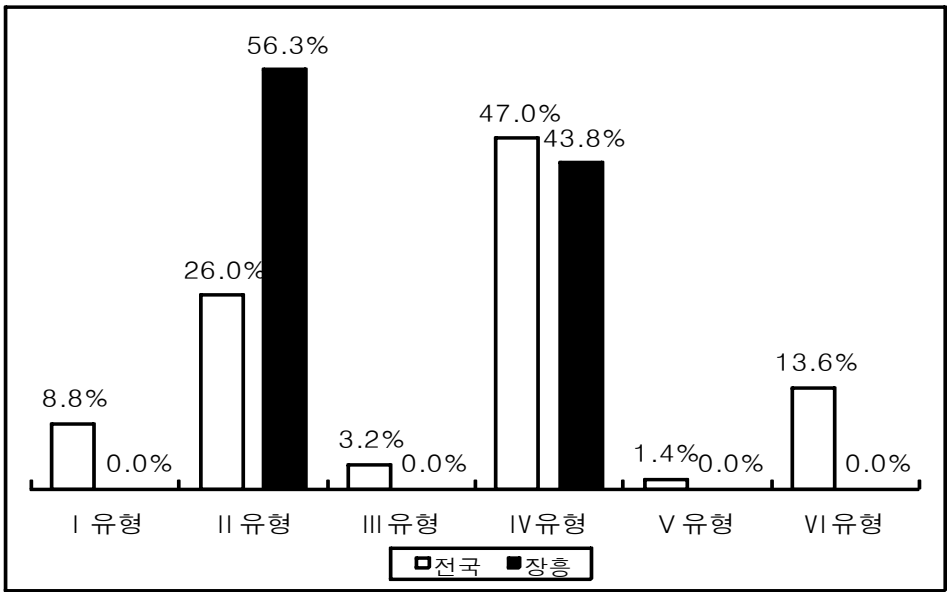
| 그림 3-10 | 강진 어촌계의 유형분포



| 그림 3-11 | 신안 어촌계의 유형분포



[그림 3-12] 여수 어촌계의 유형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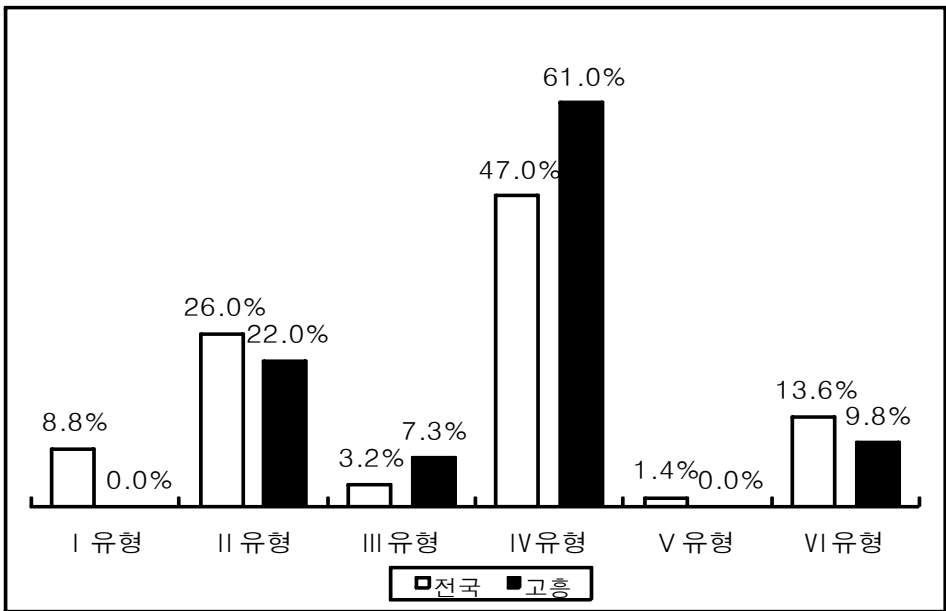
[그림 3-13] 장흥 어촌계의 유형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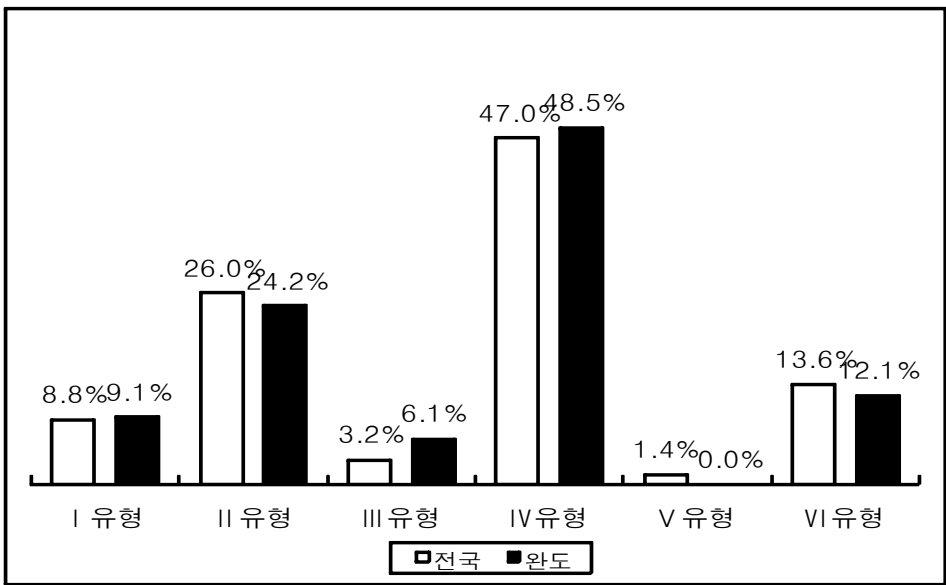
### (7) 고흥, 완도, 진도, 해남

<그림 3-14>, <그림 3-15>, <그림 3-16> 및 <그림 3-17>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고흥, 완도, 진도, 해남은 Ⅲ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가 우세하며, V유형에 속하는 어촌계가 분포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이중 고흥과 완도는 V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가 분포하고 있으나 진도와 해남은 V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가 분포하지 않으며, 고흥은 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가 분포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네 지역 모두 관광이 발달한 특징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네 지역 모두 I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가 전체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열세에 있어 어촌관광 활성화도 뚜렷한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네 지역의 특징은 Ⅲ유형의 우세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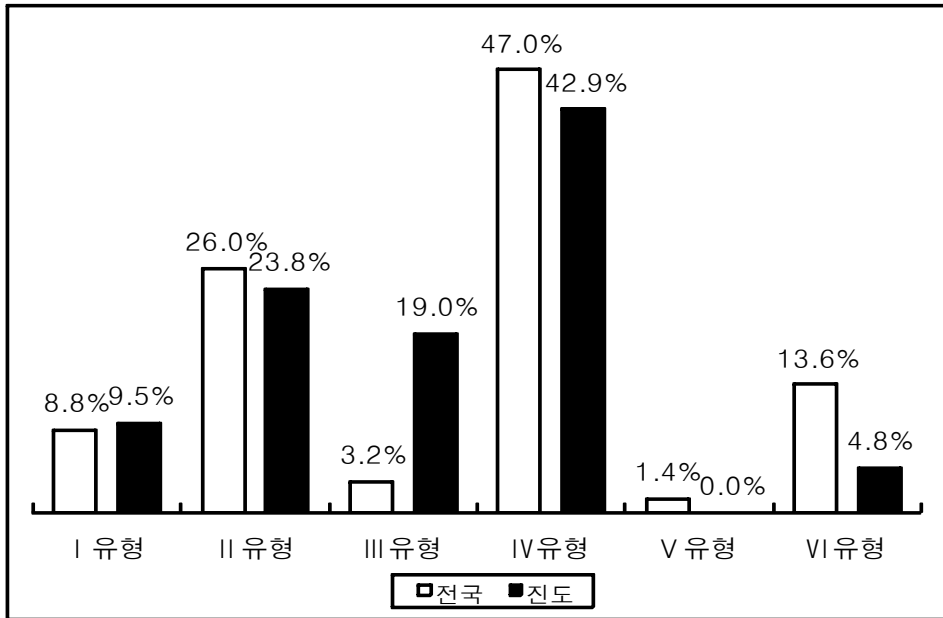
앞 절에서 Ⅲ유형에 속하는 어촌의 유형은 양식어업특화형으로 분류하였다. 네 지역의 소득수준별 어촌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소득 어촌의 분포는 완도(4), 고흥(2), 진도(1), 해남(0), 중간소득 어촌의 분포는 고흥(39), 완도(25), 해남(23), 진도(14), 저소득 어촌의 분포는 진도(6), 완도(4), 고흥(0), 해남(0)으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고흥과 완도는 양식특화 고소득형 어촌으로, 그리고 진도와 해남은 양식특화형 어촌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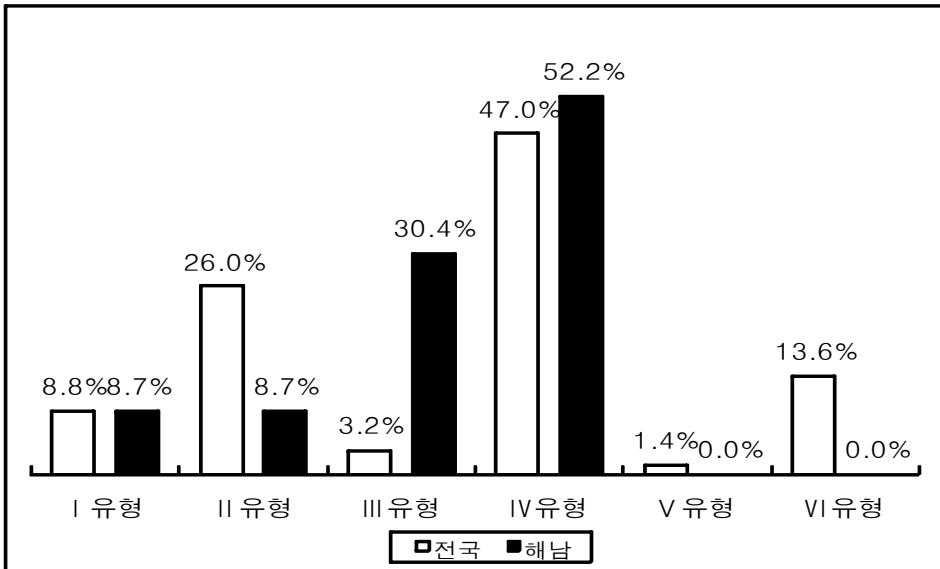
| 그림 3-14 | 고흥 어촌계의 유형분포



| 그림 3-15 | 완도 어촌계의 유형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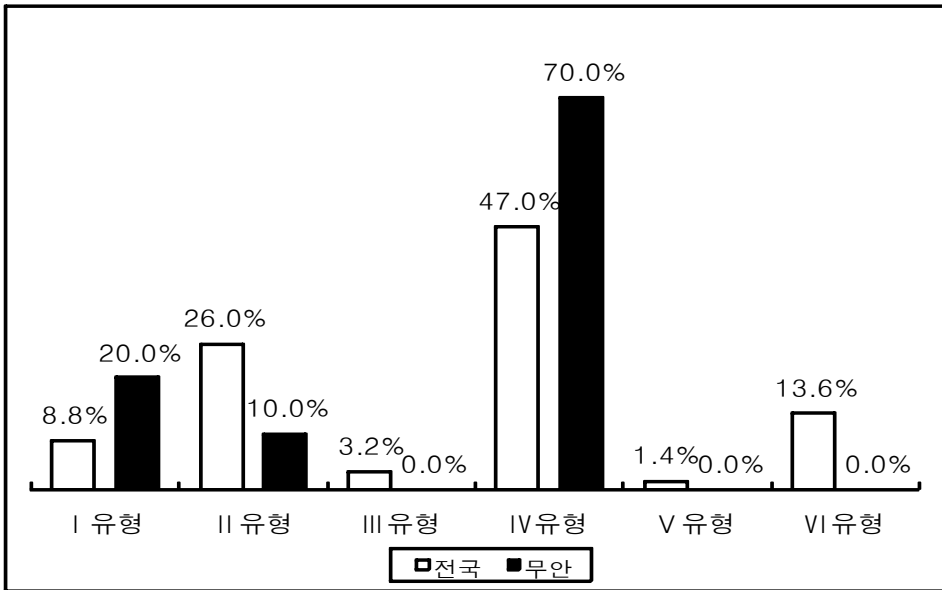
| 그림 3-16 | 진도 어촌계의 유형분포



| 그림 3-17 | 해남 어촌계의 유형분포

## (8) 무안

<그림 3-18>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전체 표본의 유형분포와 비교한 결과 무안은 I 유형과 IV유형에 속한 어촌계의 분포가 우세한 반면, II유형에 속한 어촌계의 분포는 비교적 열세이며, III, V, VI유형에 속한 어촌계는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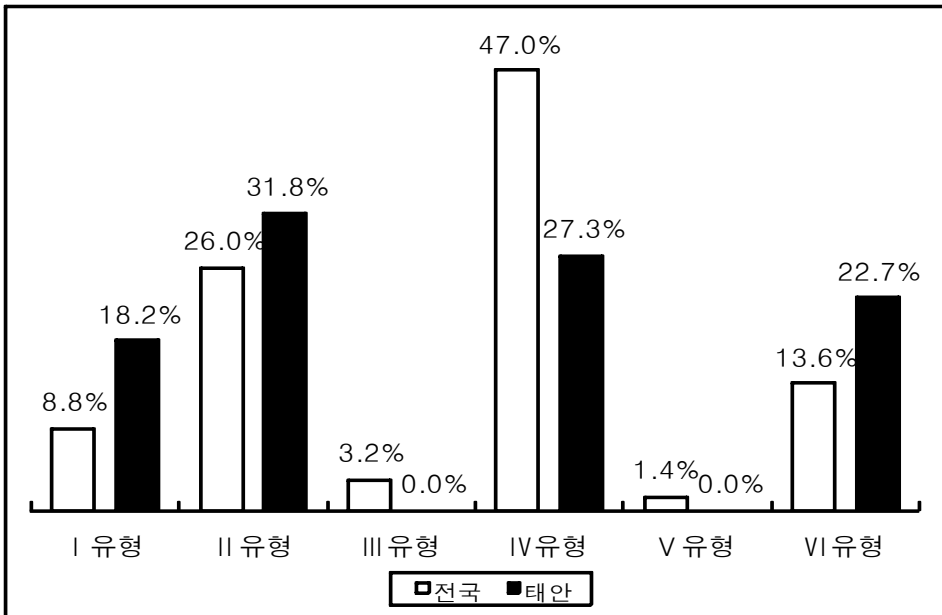
| 그림 3-18 | 무안 어촌계의 유형분포

이는 전남지역 어촌의 배후 도시인 광주지역으로부터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지리적 특성과 지역 특산물인 세발낙지 먹거리 관광의 활성화로 타 지역 어촌과 차별화된 무안지역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안은 근교복합관광형 어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9) 태안

<그림 3-19>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전체 표본의 유형분포와 비교한 결과 태안은 I 유형, II 유형 및 VI 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가 우세하며, IV 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의 분포가 비교적 열세인 반면, III 유형과 V 유형에 속하는 어촌계가 분포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그림 3-19 | 태안 어촌계의 유형분포

이는 수도권으로부터의 뛰어난 접근성과 지역 내에 풍부한 관광자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II 유형에 속한 어촌계의 분포가 우세한 이유는 태안지역 어촌계에서 갯벌 체험장이 특히 활성화 되어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태안지역은 근교복합관광형 어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3. 유형화의 시사점

여기에서는 어촌계 특성변수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에 의해 도출된 어촌유형화의 결과에 대한 해석과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 1) 어촌유형화 결과의 해석

##### (1) 어촌계 수산물 생산능력 저하

어촌계의 특성변수를 이용한 요인분석 및 2-step 군집분석의 결과를 보면 ‘수산물 생산’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가 어촌계 유형분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업생산의 유형과 규모가 어촌계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전체 어촌계의 수산물 생산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선어업 생산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인접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의 축소, 어장환경 악화와 해수온 상승에 따른 어종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어촌계도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어선어업의 생산이 저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잡는 어업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양식생산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산업 생산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어촌유형분석 결과 어촌계 양식어업생산의 경우 전남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의 증가가 뚜렷할 뿐, 전반적으로는 생산 감소추세를 보인다. 이는 근래에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일부 품종(주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 양식품종)

의 양식업자들은 대대로 어촌계에 생활기반을 가진 지역 어민이 아니기 때문이다<sup>20)</sup>.

| 표 3-18 | 어촌계의 수산물 생산실적

| 어가당 수산물생산실적     | 어촌계 수 | 구성비   | 누적비    |
|-----------------|-------|-------|--------|
| 2억 이상           | 15    | 0.8%  | 0.8%   |
| 1억 이상 2억 미만     | 31    | 1.6%  | 2.4%   |
| 8천만원 이상 1억 미만   | 28    | 1.4%  | 3.8%   |
| 6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 21    | 1.1%  | 4.9%   |
|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 65    | 3.3%  | 8.2%   |
|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362   | 18.5% | 26.7%  |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346   | 17.7% | 44.4%  |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308   | 15.8% | 60.2%  |
|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138   | 7.1%  | 67.2%  |
|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90    | 4.6%  | 71.9%  |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139   | 7.1%  | 79.0%  |
| 1원 이상 1백만원 미만   | 232   | 11.9% | 90.8%  |
| 기 타             | 179   | 9.2%  | 100.0% |
| 계               | 1954  |       |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자료”, 2008.

어촌계의 수산물 생산능력 저하의 정도는 다음 <표 3-18>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가당 연간 수산물 생산실적이 2,000만원 이상인 어촌계는 전체의 26.7%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어가당 연간 수산물 생산실적이 500만원 미만인 어촌계 비율(32.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 (2) 다수를 점하는 취약한 어촌

20) 이들은 대개 마을어장이라는 공동자산을 기반으로 한 생산자 단체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되지 않고 독자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생산 활동을 영위함.

500개 표본어촌계의 47%에 해당하는 235개 어촌계가 IV유형인 취약형 어촌계로 분류되었다. 이 유형의 통계 요인적 특성을 보면 군집분석 요인 3가지 모두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어촌관광 활성화 정도, 수산물 생산성, 지역 관광업 발달성 등 어촌계 특성요인 3개 항목 모두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촌계의 기타 특성을 보면 어업유형은 특별한 특징이 없으며, 도시인구의 접근성과 소득수준이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어촌이 가지는 실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어촌특성 요인이 뚜렷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어촌계(I, III, V, VI유형)는 135개로 전체의 27%에 불과하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어촌이 소득수준에 따라 양분화되고 있으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촌은 취약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수준별 어촌계 수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표 3-19>).

표 3-19 | 소득수준별 어촌계 분포

| 호당평균소득                | 어촌계 수 | 구성비    | 누적비    |
|-----------------------|-------|--------|--------|
| 5,000만원 이상            | 9     | 0.5%   | 0.6%   |
|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14    | 0.7%   | 1.2%   |
|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484   | 24.8%  | 25.9%  |
|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973   | 49.8%  | 75.7%  |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399   | 20.4%  | 96.2%  |
| 1,000만원 미만            | 75    | 3.8%   | 100.0% |
| 계                     | 1,954 | 100.0% | -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자료”, 2008.

### (3) 관광 어촌의 등장

어촌의 유형분류 결과 총 6개 유형 중에서 3개 유형이 ‘지역관광업 발



달성'과 양(+)'의 관계, 2개 유형이 '어촌관광 활성화 정도'와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촌의 유형을 구분짓는 특성으로 밝혀진 3개 요인 가운데 '지역관광업 발달성'을 나타내는 요인이 어촌 유형의 분류에 특히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지역관광업 발달의 3개 유형 중에서 V유형과 VI유형은 어촌관광 활성화 정도와 수산물생산성은 음(-)의 관계를 보여 '지역관광' 특성이 한층 강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관광업 발달성과 양(+)'의 관계에 있는 유형에 속하는 어촌계는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관광 어촌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분석을 보완하는 설문조사에서도 관광어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업외 소득으로 어촌관광소득의 유무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표본 346개의 12%에 해당하는 44개 어가가 어촌관광소득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어촌관광으로 인한 월 소득 금액은 평균 150만 원 정도이며, 월 1,000만원의 관광소득을 올리는 어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시사점

어촌유형화 결과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계의 어업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어촌은 어업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촌락이며, 어업생산의 토대위에 어촌관광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촌계라는 지역기반의 생산 공동체가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취약한 어촌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체로 어가소득이 높은 어촌계에는 젊은 청장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어업소득 및 어업외 소득기반이 미흡하거나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어촌계의 경우는 특히 젊은 계층에서 인구감소가 현저하게 일어나고 그 결과 대부분의 고령자가 어촌에 남게 되고 그 결과 어촌의 활력은 저하된다. 이러한 현상의 악순환으로 취약한 어촌은 더욱 취약한 어촌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들 취약어촌에 대한 별도의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어촌관광 활성화형으로 분류된 어촌의 소득수준이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촌관광 관련 사업과 소득의 양자는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에, 지역관광업이 발달한 것으로 분류된 V유형과 VI유형에 속하는 어촌계는 소득수준이 높다. 이들 유형에 속하는 어촌계는 해수욕장, 드라마 촬영지, 대표적인 해산물 먹거리 관광지 등 소득창출 기반을 갖춘 어촌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이 없어도 높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대다수의 어촌계는 어업생산의 저하와 국내 수산물가격의 하락 등으로 소득수준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촌계 차원의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그 결과는 만족스럽다고 보기 힘들다. 이들 사업이 어촌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 4 장 국내외 사례 연구

여기에서는 소득향상 또는 소득안정 등과 관련된 국내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활성화 등의 사례연구를 통해 제5장의 어촌발전 전략을 제안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 사례로는 최근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림어촌 지역 개발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라 함) 그리고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다음으로 외국사례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산업·어촌여건을 가진 일본의 어촌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 1. 국내사례

#### 1) 사회적 기업

##### (1)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

2000년대 들어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산업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민간부분의 고용창출능력은 저하된 반면, 고령화, 핵가족화 등 가구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증가되었다.

이에 ‘03년부터 노동부는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으로 창출된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재정지원에 의존하여 단기·임시적이며 저임금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드러냄에 따라 제도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2) 사회적 기업의 의의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일반적인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영리활동을 한다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실제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계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여성, 장기실업자 등으로 보육,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보조 및 관리, 간병 및 가사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된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가 인식하지 못하는 신규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부·후원·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을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 (3) 사회적 기업 육성 현황

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현 정부의 100대 과제이자 노동부의 10대 과제 중의 하나이다. 노동부는 '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08년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건실한 사회적기업 성공모델을

| 표 4-1 |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   |
|----------------------------|---|
| 비전                         | 사회서비스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제3섹터형 혁신기업을 육성하여<br>활기찬 시장경제와 사회통합에 기여   |
| 목표                         | 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을 갖춘<br>견실한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제시 및 확산   |
| 추진<br>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li> <li>•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선진화</li> <li>• 민간협약기구 구성·운영 활성화</li> <li>•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li> </ul>  |
| 중 점<br>및<br>세부<br>추진<br>과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의 가치 정립 및 전파</li> <li>- 민간기업과의 협력모델 확산</li> <li>-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li> <li>-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기반 조성</li> </ul> </li> <li>2.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li> <li>- 환경·문화·지역개발 등 분야별 육성전략 마련</li> <li>- 재정지원사업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단계적 전환·육성</li> <li>-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li> <li>-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창업장벽 제거</li> </ul> </li> <li>3.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li> <li>- 내부 경영투명성 제고</li> <li>-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li> </ul> </li> <li>4. 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단계별 정부지원 원칙과 철학 정립</li> <li>-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간 연계시스템 구축</li> <li>-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육성·관리 시스템 마련</li> </ul> </li> </ol> |

자료 : 노동부,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 2008.

제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제3 섹터형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활기찬 시장경제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4개 중점과제와 15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고 노동부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공동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동 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 및 과제는 <표 4-1>과 같다.

#### (4) 국가별 사회적 기업 정책 현황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경제활동의 지역별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고, 각 국가별로 이러한 지역적 경제활동의 격차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 정치적 이해정도에 따라 사회적 기업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표 4-> 참조). 특히 유럽국가에서 사회적 기업 활동은 활발한데, 유럽연합(EU),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국가들은 지역 간 경제활동의 격차가 심화를 사회적 기업 정책을 통해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유럽으로 그 중에서 사회적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사회적기업 담당 행정기구와 법률을 토대로 전략적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생산자, 이용자, 자원봉사자, 지역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모델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서비스 바우처와 같은 경제적 장치를 설치해 놓고 있다.

한편, 벨기에 등은 지역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비영리조직의 활성화가 사회적기업 발전의 토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발달은 국가의 개입 여부 및 개입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경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기부문화가 발달하여 국가의 개입 없이도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표 4-2 | 국가별 사회적 기업 정책 현황

| 국 가  | 사회적 기업 정책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직체계(제3섹터청)와 육성전략에 따른 체계적 육성('06년 사회적기업수 55천개)</li> <li>· 지역공동체 이익회사(CIC)법을 제정하여 간소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모델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C법 제정 2년이 경과되기 전에 2천여개의 CIC 설립, 다만, 동 법은 민주적 의 사결정을 위한 참여 장치 부재</li> </ul> </li> </ul>  |
| 이탈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1년 유럽에서 최초로 사회적 기업 법제화</li> <li>· 사회적기업 부문의 조직적 유연성 확보</li> <li>· 생산자, 이용자, 자원봉사자, 지역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li> <li>· 컨소시엄 모델을 활용한 교육훈련,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li> <li>· 세제 혜택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 추구에 대한 보상 제공</li> <li>· 사회적기업 전문지원기관 등 유기적 지원시스템 가동</li> </ul>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간 통합을 장려하고, 법적 구조를 간소화함으로써 다양한 조직의 사회적 기업 전환 유도</li> <li>· 서비스 바우처 등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장치 설치</li> </ul>   |
| 아일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장기실업 또는 노동시장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li> <li>· 따라서 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에 크게 의존</li> </ul>  |
| 벨기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넓음(사회적 목적기업과 자활지원기업(노동 통합 기업)을 포괄하는 방식)</li> <li>· 서비스 바우처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장치 설치</li> <li>· 재정적 혜택의 폭과 취약계층 고용률이 연동된 노동통합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은 급여세(payroll taxes)를 면제(설립 첫해에는 100%, 다음 해부터는 75%, 50%, 25%)받는 조건으로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40%→50%로 높여야 함</li> </ul> </li> </ul>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경영방식으로 접근</li> <li>·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수익창출, 비영리 조직, 민간재단, 이윤분배 원천금지 등 으로 범위를 좁게 한정</li> </ul>  |

자료 : 노동부,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 2008.

### (5) 어촌 분야 사회적 기업 도입 필요

우리나라에는 2009년 7월 기준, 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총 251개의 사회적 기업이 지역별로 활동 중인데 이들은 주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복지 및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의 사회적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총 251개의 사회적 기업 중 농촌 및 농업 분야 관련 사회적 기업이 9개가량 있을 뿐이다(<표 4-3> 참조). 이들 농촌관련 사회적 기업은 복지, 농업지원, 컨설팅, 농산물 판매 등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확보 등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

표 4-3 | 농촌 관련 사회적 기업

| 연번 | 기 업 명       | 업 종       |
|----|-------------|-----------|
| 1  | 사단법인 농촌복지센터 | 농업인 복지    |
| 2  | 생명농업지원센터    | 농업 지원     |
| 3  | (주)이장       | 농촌 컨설팅    |
| 4  | (주)흙살림      | 농업 컨설팅    |
| 5  | 청람          | 육묘장       |
| 6  | (주)바리의 꿈    | 청국장 제조 판매 |
| 7  | (주)생명살림 올리  | 농산물 판매    |
| 8  | 새벽 영농조합법인   | 농산물 판매    |
| 9  | 나눔공동체       | 농산물 판매    |

하지만 어촌이나 어업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은 아직 활동하지 있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어업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어업경영상황 악화와



고령화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에는 평균 소득의 전국평균 소득의 60% 이하 계층과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어촌 지역 고령자들을 채용하는 수산물 판매업체를 비롯하여 영어조합 법인, 어촌 및 어업 전문 컨설팅 단체, 어촌복지센터 등 어촌 및 어업인 관련 사회적 기업이 육성된다면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소외되어 있는 우리 어촌에도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복지 및 공공서비스 기반 강화,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

우리나라는 농어촌의 소득, 일자리, 복지, 교육, 의료, 지역개발 등에 대하여 총체적이고 종합적 접근에 의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라 함)이 마련되었다. 동 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농산어촌의 문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형성하여 5년 계획으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sup>21)</sup>하였으며 동 계획은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의 4개 중점과제와 세부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21) 1차 기본계획은 ‘2005~2009’이며 현재 2010부터 시행될 2차 기본계획 마련 중에 있음.



| 그림 4-1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4대 중점과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의거 2007년의 경우 4대 중점과제별로 총 113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이 중에서 어촌의 소득증대와 관련 있는 부분은 농어촌 지역개발과 복합산업 활성화 과제이며,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표 4-4>, <표 4-5>와 같다. 특히 소득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에서 어촌소득과 관련된 사업은 농촌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도 지원되고 있다. 특히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도농교류활성화, 경관보전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은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기초하여 농촌의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다. 과거부터 지속적

| 표 4-4 |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

| 사 업 명               | 주관부처    | 수혜범위 |     |
|---------------------|---------|------|-----|
|                     |         | 농업인  | 어업인 |
| 소 계                 | -       | 26   | 25  |
|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어촌종합개발사업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산촌종합개발사업            | 산림청     | ○    | ×   |
| 소도읍 육성사업            | 행정자치부   | ○    | ○   |
| 농산어촌 주거환경개선         | 행정자치부   | ○    | ○   |
|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         | 환경부     | ○    | ○   |
|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면단위 하수도 사업          | 환경부     | ○    | ○   |
| 소하천 정비              | 소방방재청   | ○    | ○   |
|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   | 환경부     | ○    | ○   |
|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 | 국토해양부   | ×    | ○   |
|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 사업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국고여객선 건조            | 국토해양부   | ×    | ○   |
|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        | 국토해양부   | ×    | ○   |
|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오지개발촉진사업            | 행정자치부   | ○    | ○   |
| 도서개발촉진사업            | 행정자치부   | ○    | ○   |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문화관광부   | ○    | ○   |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 문화관광부   | ○    | ○   |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 문화관광부   | ○    | ○   |
|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 문화관광부   | ○    | ○   |
| 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 과학기술부   | ○    | ○   |
|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 산림청     | ○    | ×   |
| 농어촌복합체육시설           | 문화관광부   | ○    | ○   |
| 정보화마을 조성            | 행정자치부   | ○    | ○   |
|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정보통신부   | ○    | ○   |
|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농업인 정보화 교육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농어업 관련 정보 제공 확대     | 농림수산식품부 | ○    | ○   |

자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07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

| 표 4-5 |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

| 사 업 명  | 주관부처    | 수혜범위   |     |
|--|---------|--------|-----|
|  |         | 농업인    | 어업인 |
| 소 계  | -       | 17     | 9   |
| 지역부존 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                                  | 노동부     | ○      | ○   |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 농촌진흥청   | ○      | ×   |
| 문화역사마을 조성                                    | 문화관광부   | ○      | ○   |
| 어촌체험마을 조성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br>- 국유자연휴양림<br>- 공유자연휴양림 | 산림청     | ○<br>○ | ×   |
| 해양관광자원개발                                     | 국토해양부   | ×      | ○   |
| 도농교류 페스티벌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 문화관광부   | ○      | ○   |
| 경관보전 직불제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 농촌진흥청   | ○      | ×   |
| 농산어촌 경관주택 발굴, 보급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br>- 자생식물 식재<br>- 생태숲 조성    | 산림청     | ○<br>○ | ×   |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 갖기 활성화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도농교류활성화                                      | 농촌진흥청   | ○      | ×   |

자료 : 상계서.

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기초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개발, 관광문화 개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역부존 자원을 상품화하여 소득을 올리고 또한 도시 지역과 교류하기 위한 정보와 및 인력육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의 소득향상과 관련하여 농촌활력증진계획과 클러스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촌활력증진계획에는 지역특화품목사업, 신활력사업 그리고 향토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은 농촌의 지역자원을 고부가 가치화하여 돈버는 농촌으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

고 있다. 그런데 어촌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등 농촌에 비해 소득 사업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소득확보 및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 3)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검토

#### (1) 추진배경 및 목적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주로 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 사업으로는 크게 구분해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어촌관광 개발사업)이 있다. 여기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사업은 현재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사업으로 묶여 추진되고 있으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세계교업은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199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어촌을 찾는 방문객 및 관광객이 늘어나고 어업외 소득획득을 위해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2001년부터 시작되어 9년째에 접어들었다. 여기에서는 장기간 추진되고 있는 이들 사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어촌발전 전략의 내용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정책목표는 낙후어촌의 생산·소득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의 생활환경시설을 개선하여 정주환경조성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다. 한편,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 사업들은 어업소득 및

어업외소득 증대, 도시민과의 교류 활성화 등 모두 어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있어서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          |   |
|----------|---|
| 어촌종합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소득기반시설의 확충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어촌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li> </ul>         |
| 어촌체험마을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의 공유재산인 생태·자연자원을 일반인에게 제공하여 국민에게는 휴식과 체험을 제공하고 어업인에게는 어업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li> </ul> |

## (2) 추진실적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정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30권역[1단계:158개 권역( ' 94 ~ ' 06년), 2단계:72권역( ' 07 ~ ' 13년)],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112개소( ' 01 ~ ' 13년), 어촌관광개발사업 총 18개소( ' 04 ~ ' 13년)가 있다. 이들 사업들은 수립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사업추진체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추진되고 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권역별로 35억 규모로 균등하게 지원되었으나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부터 권역별 차별화와 테마마을 조성을 위해 대·중·소 권역별로 구분하고 50억, 40억, 30억으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5억 원 규모로 체험관광 기반조성에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 표 4-6 | 어촌관련 개발사업 현황

| 구 분         |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촌체험마을조성  |
|-------------|--|---|
| 사업<br>목적    | 수산업 소득기반조성 및 주거환경개<br>선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어촌체험 중심의 관광기반시설 확충<br>으로 어업외소득 증대 및 도시민 휴<br>식공간 제공 |
| 사업<br>기간    | ‘94~‘13                                | ‘01~‘13   |
| 사업<br>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 사업<br>규모    | 총 230개 권역                              | 112개소   |
| 개소당<br>지원규모 | 대·중·소 권역(50억, 40억, 30억)                | 5억 원  |
| 재원          | 균특회계                                   | 균특회계  |
| 지원<br>조건    | 국고 80% / 지방비 15% / 자담 5%               | 국고 50% / 지방비 45% / 자담 5%                            |
| 총사업비        | 8,795억 원                               | 723억 원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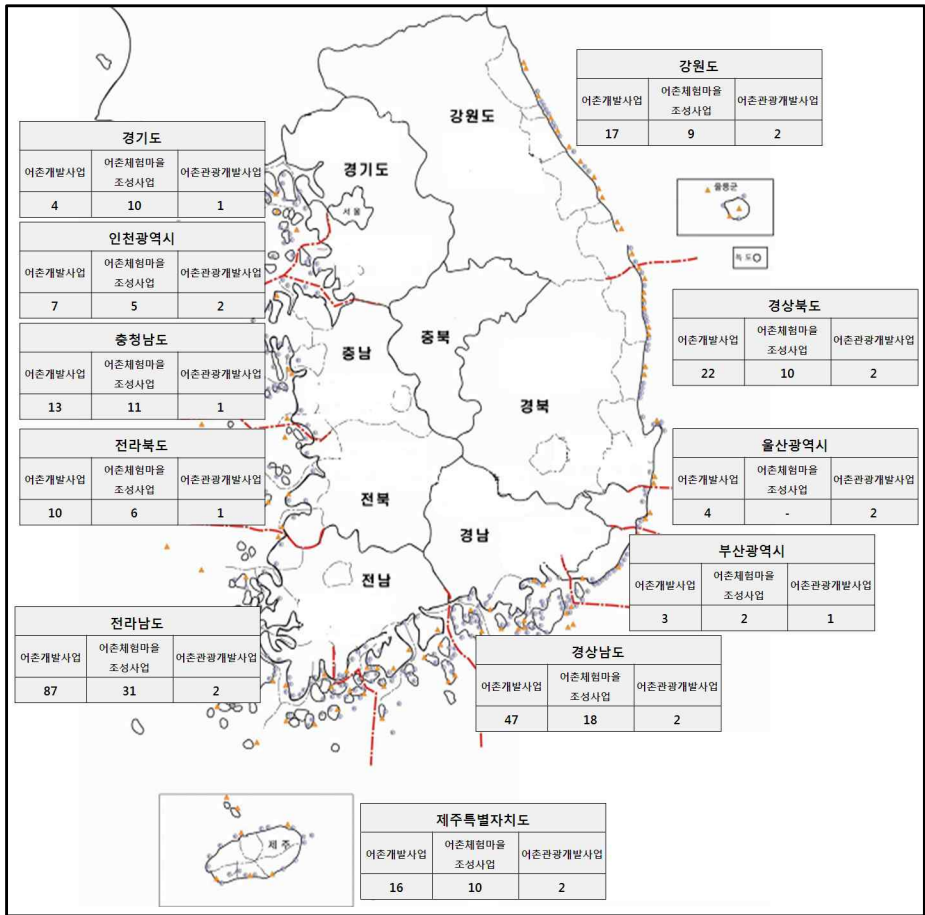
이들 사업들을 시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추진은 지역적 안  
배와 균등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 표 4-7 | 어촌관련 개발사업 현황

단위 : 권역/개소

| 구분         | 계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어촌개발사업     | 230 | 3  | 7  | 4  | 4  | 17 | 13 | 10 | 87 | 22 | 47 | 16 |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112 | 2  | 5  | -  | 10 | 9  | 11 | 6  | 31 | 10 | 18 | 10 |

자료 : 상계서.



| 그림 4-2 | 어촌관련 개발사업 현황

자료 : 상계서.



### (3) 사업의 성과

####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성과

##### 가. 어업소득 증대 효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어업소득 증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업총조사 2000년, 2005년의 자료를 토대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여부에 따라 해체기법(Decomposition Method)<sup>22)</sup>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4-8>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어업수입 증대 효과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4-8>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순수한 사업의 효과라 할 수 있는 잔차효과가 0.0715로 나타났는데 이를 근거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대상 지역 어가의 어업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23)</sup>

| 표 4-8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어업소득 효과 분석 결과

단위: %

| 구 분  | 변화량     | 비 율    |         | 정책평가 |
|------|---------|--------|---------|------|
|      |         | 총효과 대비 | 잔차효과 대비 |      |
| 총효과  | -0.1172 | -100.0 | -       | -    |
| 특성효과 | -0.1886 | -161.0 | -       | -    |
| 잔차효과 | 0.0715  | 61.0   | 100.0   | 긍정적  |
| 상수효과 | 0.1658  | 141.5  | 232.0   | 긍정적  |
| 계수효과 | -0.0943 | -80.5  | -132.0  | 부정적  |

주 :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참조.

22) 해체기법은 동일집단의 시기별 차이 또는 동일한 시기의 집단간 차이가 존재할 때 그 차이를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23) 잔차효과로만 보면 2000년 대비 2005년에 어업수입이 약 7%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 나. 어업의 소득 증대 효과

본 연구에서는 어업의 소득 효과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된 어촌종합개발사업 가운데 소득기반시설 84개소를 대상으로 소득액을 조사하여<sup>24)</sup>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 <표 4-9>이다. 지원된 시설별로 직접소득액을 살펴보면, 2천만 원 미만이 총 84개소 가운데 72개소(85.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에 의한 직접적인 소득창출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백만 원 미만의 경우도 32개소(3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직접소득액은 낮지만 그 중에서도 수산물직판장과 활어회센터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액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 정자어촌의 활어회센터는 연간 20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슷한 조건(규모)의 시설에서도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운영주체의 역량과 입지적 특성, 수산자원의 풍부도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 전화통화에 의한 소득액, 고용현황,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표 4-9 | 어촌종합개발사업 소득지원시설별 직접소득효과

| 구 분           | 직접 소득액(백만 원) |          |          |          |          |          |          |            |              |          | 개 소       |
|---------------|--------------|----------|----------|----------|----------|----------|----------|------------|--------------|----------|-----------|
|               | 0-1          | 1 - 5    | 5 - 10   | 10- 20   | 20- 50   | 50- 100  | 100- 500 | 500- 1,000 | 1,000- 2,000 | 2,000 이상 |           |
| 낙시선           | 3            | 0        | 1        | 1        | 0        | 0        | 0        | 0          | 0            | 0        | 5         |
| 낙시터           | 0            | 0        | 2        | 0        | 0        | 0        | 0        | 0          | 0            | 0        | 2         |
| 산지가공시설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1         |
| 생태학습장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 <b>수산물직판장</b> | <b>4</b>     | <b>1</b> | <b>1</b> | <b>2</b> | <b>2</b> | <b>1</b> | <b>1</b> | <b>0</b>   | <b>1</b>     | <b>0</b> | <b>13</b> |
| 수중투시선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 숙박시설          | 2            | 4        | 2        | 1        | 1        | 0        | 0        | 0          | 0            | 0        | 10        |
| 양식장           | 3            | 3        | 0        | 0        | 0        | 0        | 0        | 0          | 0            | 0        | 6         |
| 어민종합센터        | 0            | 0        | 2        | 0        | 0        | 1        | 0        | 0          | 0            | 0        | 3         |
| 어촌관광<br>종합센터  | 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2         |
| 유람선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 유어시설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1         |
| 특산품<br>전시판매장  | 1            | 2        | 0        | 0        | 0        | 0        | 0        | 0          | 0            | 0        | 3         |
| <b>활어회센터</b>  | <b>1</b>     | <b>1</b> | <b>0</b> | <b>1</b> | <b>0</b> | <b>0</b> | <b>1</b> | <b>1</b>   | <b>0</b>     | <b>1</b> | <b>6</b>  |
| 횃집            | 7            | 3        | 2        | 0        | 0        | 0        | 0        | 0          | 0            | 0        | 12        |
| 횃집숙박          | 6            | 6        | 3        | 1        | 0        | 0        | 0        | 0          | 0            | 0        | 16        |
| 전 체           | 32           | 21       | 13       | 6        | 3        | 2        | 3        | 1          | 2            | 1        | 84        |

아울러 시설별 고용현황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4-10>이다. 소득지원사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살펴보면, 0~10명 미만이 총 83개소 가운데 75개소(90.4%)로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산물직판장, 유어시설, 활어회센터의 경우 35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5개소나 되었다. 이중 수산물직판장과 유어시설은 1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제시한 시설별 직접소득액이 높은 시설인 수산물직판장, 활어회센터는 고용창출 효과도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표 4-10| 어촌종합개발사업 소득지원시설별 고용창출 효과

| 구 분           | 고용창출(명)  |          |          |          |          |          | 전체        |
|---------------|----------|----------|----------|----------|----------|----------|-----------|
|               | 0-10     | 10-20    | 20-35    | 35-70    | 70-100   | 100 이상   |           |
| 낚시선           | 5        | 0        | 0        | 0        | 0        | 0        | 5         |
| 낚시터           | 2        | 0        | 0        | 0        | 0        | 0        | 2         |
| 산지가공시설        | 0        | 0        | 0        | 1        | 0        | 0        | 1         |
| 생태학습장         | 1        | 0        | 0        | 0        | 0        | 0        | 1         |
| <b>수산물직판장</b> | <b>9</b> | <b>1</b> | <b>1</b> | <b>0</b> | <b>0</b> | <b>1</b> | <b>12</b> |
| 수중투시선         | 1        | 0        | 0        | 0        | 0        | 0        | 1         |
| 숙박시설          | 10       | 0        | 0        | 0        | 0        | 0        | 10        |
| 양식장           | 6        | 0        | 0        | 0        | 0        | 0        | 6         |
| 어민종합센터        | 2        | 0        | 1        | 0        | 0        | 0        | 3         |
| 어촌관광종합센터      | 2        | 0        | 0        | 0        | 0        | 0        | 2         |
| 유람선           | 2        | 0        | 0        | 0        | 0        | 0        | 2         |
| <b>유어시설</b>   | <b>0</b> | <b>0</b> | <b>0</b> | <b>0</b> | <b>0</b> | <b>1</b> | <b>1</b>  |
| 특산품전시판매장      | 3        | 0        | 0        | 0        | 0        | 0        | 3         |
| <b>활어회센터</b>  | <b>4</b> | <b>0</b> | <b>0</b> | <b>1</b> | <b>1</b> | <b>0</b> | <b>6</b>  |
| 횃집            | 12       | 0        | 0        | 0        | 0        | 0        | 12        |
| 횃집숙박          | 16       | 0        | 0        | 0        | 0        | 0        | 16        |
| 전체            | 75       | 1        | 2        | 2        | 1        | 2        | 83        |

다. 이는 어업을 병행하면서 운영이 가능함을 나타내며, 특히 어촌의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②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성과

<표 4-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성과를 보면, 2007년 대비 2008년 체험마을 이용객은 29%증가하였고, 직접소득도 3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어가의 어업외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표 4-11 | 어촌체험마을사업의 성과

|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증감('08-'07) |
|-----------|--------|--------|--------|-------------|
| 개 소       | 59     | 59     | 75     | 16          |
| 방문객(천명)   | 3,521  | 5,119  | 6,105  | 986         |
| 이용객(천명)   | 731    | 1,556  | 2,014  | 458         |
| 직접소득(백만원) | 7,904  | 13,767 | 18,274 | 4,507       |
| 간접소득(백만원) | 32,897 | 38,594 | 29,298 | △9,296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2009.

####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앞서 검토되었던 바와 같이 어가소득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어업소득 및 어업외 소득증대 효과의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각 사업들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소득기반시설)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소득기반시설 지원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횃집 숙박, 수산물직판장, 횃집, 숙박시설, 활어회센터 등 총 84개 시설이 지원되었다. 앞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어업외 소득 증대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기반시설의 운영방식에서 총 84개 시설 가운데 임대 39개소(46.4%), 매각 16개소(19.0%), 방치 11개소(13.1%)로 나타난 반면 직영은 16개소(19.0%)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초기 운

영주체의 역량과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사업지침에 맞춰 지역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소득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어촌계에서 맡게 되어 임대, 매각, 방치 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시설의 노후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운영주체의 역량과 세부적인 운영계획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어촌계에서 쉽게 적응하여 운영할 수 있는 수산물직판장과 활어회센터 등은 직영의 비율이 약 30% 정도로 나타난 반면에 숙박시설, 유람선, 수중투시선 등은 대부분 매각, 방치 되고 있다. 따라서 어촌계 어업인들이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어촌계에서 운영이 가능한 새로운 시설의 발굴과 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소득기반시설 가운데 비교적 높은 소득과 고용창출이 가능한 시설로 수산물직판장과 활어회센터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의 성공사례에서 시사하는 바는 어업과 병행할 수 있고, 어촌의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들 소득기반시설 지원사업은 2002년 이후 운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된 상태이다. 소득효과가 높은 이들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소득기반시설의 운영방식에서 직영 방식이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어촌계 및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역량을 고려한 소득기반시설 발굴이 필요하다.

## ②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초기의 시행착오, 부적합한 사업지역 선정, 체험프로그램과 운영주체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2008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95개소 가운데 총 방문 및 체험객이 1만 명 이상인 마을이 17개소(17.8%)에 불과하고, 1천 명 이하인 마을이 무려 44개소(46%)에 이르고 있어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체험안내센터 등 하드웨어 시설이 활용되지 않거나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숙박이나 식당 등 직접 소득사업의 부진으로 인력이 필요치 않는 활용도가 낮아 용도가 전용되고 있다.

셋째, 조성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없어 시설이 방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운영·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운영인력도 시설유치 판단의 주요한 요소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체험마을의 운영주체인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개인 또는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업의 본래 취지인 어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특정 업체의 수익에 한정되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예산 규모가 5억 원 정도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결형 모델로써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책의 방향이 다수의 지역에 균등·분산지원을 전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할 수 없으나 사업효과의 극대화와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정 등을 통해 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2. 일본사례

### 1) 해업(海業)의 진흥

#### (1) 어촌 활성화 정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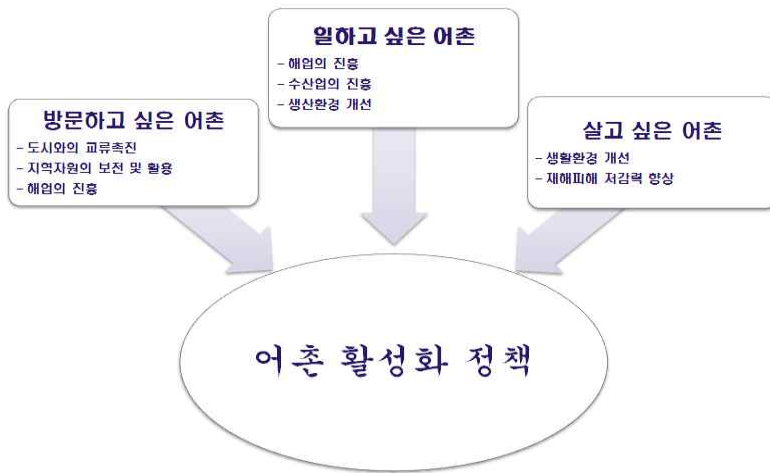
최근 일본의 어촌 활성화 정책은 2009년 5월 수산청의 「어촌 활성화 실태 검토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촌의 어려운 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어업경영의 부진이나 수산업 전반에 걸친 부진, 어촌지역의 생활·생산 환경의 낙후 등으로 수산물 공급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어촌 활성화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유사한 문제의식과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향은 첫째, 매력적인 지역의 부존자원을 토대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키는 것(가고 싶은 어촌), 둘째, 고도의 위생관리형 시설이나 경노동화 시설정비 등 쾌적한 노동환경을 창출하여 지역자원의 가치창출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기회를 제공할 것(일하고 싶은 어촌), 셋째, 생활기반 정비, 방재관계 시설 정비 등 안전한 정주환경을 실현할 것(살고 싶어는 어촌) 등 3가지로 추진하고 있다(<그림 4-3> 참조). 일본 수산청에서는 이러한 가고 싶은 어촌, 일하고 싶은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의 3가지 방향성에 맞춰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가고 싶은 어촌」의 실현을 위해서는 i) 도시와의 교류촉진, ii) 지역자원의 보전·활용, iii) 해업(海業)의 진흥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일하고 싶은 어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i) 해업의 진흥, ii) 수산업



의 진흥, iii) 생산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살고 싶은 어촌」을 위해서는 i) 생활 환경개선, ii) 재해피해 저감력 향상 등의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 그림 4-3 | 일본의 어촌 활성화 정책

특히 일본에서는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그 대책으로 「해업의 진흥」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어촌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을 가진 정책의 근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에서는 일본의 해업(海業)의 진흥과 관련하여 해업의 사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해업(海業)의 사례

해업이란 소득기회의 증대를 위해 어업인이 정주하는 어촌을 중심으로 바다와 어촌에 관한 지역 부존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대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일반국민들이 어촌지역의 방문기회를 제고시키고 이를 통

한 어업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유어, 수산물직판, 어촌민박, 어촌 레스토랑 등 어업 이외의 관련된 산업을 진흥시키는 방안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대책을 포함하여 어업인이 정주하는 어촌을 중심으로 바다와 어촌의 부존자원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은 어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해업은 수산업과 상충적인 관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산업 진흥을 도모하면서 부가적으로 어업외소득을 창출하는 전략이다.



| 그림 4-4 | 어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해업 사례

#### ① 시설도입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방안

어업활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외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산물직판장, 씨푸드 레스토랑, 어가의 민박, 낚시터(잔교형, 뗏목)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정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어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다.

### 가. 수산물직판장

수산물직판장은 주로 어항구역에 설치되어 그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직접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수산물직판장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산물의 구매·시식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더하는 한편 소비확대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어업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직판장은 2003년 356개 어업지구에서 42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이용객수는 2,664만 명으로 그 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간 이용객 수가 100만 명을 넘는 곳은 와카야마현(和歌山県) 시라하마초 가타타(白浜町堅田), 시즈오카현(静岡県) 야이즈시 야이즈(焼津市焼津), 미야기현(宮城県) 케센누마시 케센누마(気仙沼市気仙沼), 이바라키현(茨城県) 히타치시 쿠지(日立市久慈)의 4어업지구이다. 또한, 10만 명을 넘는 곳도 51어업지구로 나타나고 있어 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쿠시로 수산물 직판장



케센누마 수산물 직판장



미사키 수산물 직판장

| 그림 4-5 | 수산물 직판장

### 나. 씨푸드 레스토랑(Seafood Restaurant)

씨푸드 레스토랑도 수산물직판장과 마찬가지로 어항구역에 조성되어 그 지역의 수산물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수산물에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수산물 소비촉진,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레스토랑만으로는 집객력이 약하기 때문에 체험활동, 관광활동, 수산물직판장에서 구매활동과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다.

씨푸드 레스토랑은 지역의 전통요리(海食)이나 보기드른 식재료를 활용함으로써 차별성과 집객력을 높일 수 있다. 실제 씨푸드 레스토랑은 고등어 회정식, 참치, 상어요리 등 지역수산물의 특성이 반영된 곳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곳은 실질적인 어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다.



| 그림 4-6 | 어촌 레스토랑

#### 다. 어가의 민박

최근 일본에서는 도시-어촌 간 교류의 중심으로서 어가의 민박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어가의 경제적 효과는 숙박료에 따른 직접 수입뿐만 아니라 어획한 수산물을 직접 식사로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또한 다른 가족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낚시터, 스쿠버다이빙 안내 등 다른 점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경우 민박을 통한 어가소득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가의 민박은 도시민과의 교류의 출발점으로써 해산물 등의 수산품을 구입할 때도 민박에서 직접 맛을 본 후에 구매하고, 어업을 체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이 형성되어 교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어가의 민박 이용은 여름철 해수욕객 비중이 높는데, 이러한 계절적 한계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겨울철에도 어획량이 높은 어패류를 이용하여 도시민을 끌어들이는 민박이 나타나고 있다. 후쿠이현(福井県)의 경우에는 비수기의 겨울철에 북어, 바다참게 등으로 도시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단체 숙박객 수용이 어려웠던 민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을의 민박이 협력하여 수학여행 등 단체방문객을 수용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어업센서스에 따르면 2003년 1,099개 어업지구에서 8,879개의 민박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 가능한 숙박객만 무려 2,653만 명에 이른다. 이 중 100개소 이상의 민박이 형성되어 있는 어업지구는 후쿠이현(福井県) 다카하마쵸 다카하마(高浜町高浜), 시즈오카현(静岡県) 헤다무라 헤다(戸田村戸田), 치바현(千葉県) 토미야마마치 토미야마(富山町富山)의 3지구이며, 50개소 이상의 민박이 있는 지구도 23개 어업지구로 나타났다.

#### 라. 낚시터(해면가두리낚시, 잔교낚시 등)

해업으로서의 낚시터는 안전사고와 배멀미 등이 없고 가족들과 동행이 가능한 해면가두리낚시터, 잔교형 낚시터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해면가두리낚시터는 일본 23개 부현(府県), 122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낚시터는 미에현(三重県), 후쿠이(福井), 효고(兵庫) (이에시마(家島) 주체), 와카야마(和歌山)와 킨키권(近畿圏)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해면가두리낚시에 의한 어촌의 경제적 효과는 낚시터 운영에 따른 수익과 양식장 및 정치망 어획의 활어회 수요확대, 고용기회의 제공, 얼음·미끼(Bait), 음식물 등의 지역소비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낚시터 내 사육밀도가 일반 양식장에 비해 현저히 낮고 사료공급에 따른 어장오염 등이 적어 양식어장의 환경개선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잔교형 낚시는 집객력 확보를 위해 입지적으로 적지에 위치하며,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에게 매우 유용하며, 어업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67개 어업지구에서 바다낚시공원이 운영되고 있다.

## ② 비 시설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방안

시설정비를 통한 방안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통상의 수산업에서 사용하는 어선이나 수산관련 시설을 활용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육상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낚시전용 안내선, 갯벌체험장, 체험어업, 관광양식(양식오너제도), 다이빙 서비스, 고래관찰투어 등이 있다.

### 가. 낚시전용 안내선

낚시전용 안내선을 활용하여 유어객을 낚시 포인트로 안내하는 것으로 직접 배위에서 낚시를 하는 방법과 이안제나 작은 섬의 낚시터로 운송해 주는 방법이 있다. 기존 어선을 활용함으로써 안내수입 뿐만 아니라 같은 양의 어획량이라고 하더라도 어업에 비해 높은 수입이 얻어지기 때문에 수산자원에 대한 부가가치도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집객을 위하여 어선을 개조하거나 새로 건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며, 의무적으로 승객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따르면 배낚시 유어객 수는 573만 명이었으며, 배낚시 안내업자만 약 16천 명이었고, 이 중 약 14천 명이 어업과 겸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갯벌체험장

일본의 갯벌체험장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업권이 설정된 갯벌어장에서 체험관광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바지락 등의 어패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채취량이 상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갯벌체험을 실시하는 어업지구는 111개소로 체험객만 약 204만 명에 이른다. 갯벌체험은 한정된 자원을 채취하기 때문에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종패

를 지속적으로 살포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 또한 적조나 빈산소수괴 등의 자연현상으로 대량 폐사하는 자연적 위협도 존재하지만 어장여건이 풍부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집객력이 높은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어업의 소득원으로 흡수되고 있다.

#### 다. 체험어업

체험어업은 기반시설 없이 기존 어선을 활용하여 체험어업 안내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수입과 평상시 조업시간보다 짧은 시간 그리고 적은 어획량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노동의 경감은 고령화된 어촌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적절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장 및 자원 남획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의 경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음식물 판매증가 등 지역경제로의 파급효과와 어식(漁食) 보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어업체험이 실시되고 있는 어업지구는 644개소로 내방객 수만 약 3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후릿그물, 정치망, 걸그물, 소형저인망 등 실제 어업활동이 체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참가자의 형태에 따라 개인참가형, 가족 및 소그룹 참가형, 대그룹 참가형으로 구분하여 그룹의 특성에 맞게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라. 관광양식 및 양식오너제도

양식장과 관련된 해업으로는 양식시설을 이용하여 양식장과 사료 공급 상황 등을 직접 보여주는 관광양식과 양식장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양식물의 출하 시 오너(소비자)에게 송부하는 양식오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오너(소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양식장을 중간에 방문하여 양식장 운영상황을 직접 보고 오너가 직접 참여하여 수확을 하기도 하는데, 일본 내 41개 시정촌(市町村)에서 운영되고 있다.

굴 양식은 실패할 확률이 낮아 오너의 리스크가 적고, 택배로 받을 수

있어 도시민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양식오너제도는 미역이나 진주 등도 시도되고 있다. 양식장과 관련한 해업은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 없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마. 다이빙 서비스

다이빙 서비스는 다이빙 포인틀 설정하고 장비대여, 샤워·탈의장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그 이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을 유도한다. 최근에는 바닷속 수중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дай버들을 받아들여 소득원을 발굴하려는 어촌이 늘고 있다.

#### 바. 고래관찰투어(Whale Watching)

고래관찰투어는 어선을 활용하여 고래나 돌고래 등을 관람하는 투어를 말하는데 회유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성을 가지는데 한계가 있다. 일본에서도 초기에는 고래관광이 실시되고 있는 곳은 10개소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42개 시정촌(市町村)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해업(海業)의 성과

해업은 어촌지역의 배후 조건, 지역자원, 인적자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그 경영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업에 공통되는 사회경제적 의미로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다.

첫째, 현재 침체되어 있는 어촌경영에 새로운 소득향상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소득원의 추가적인 확보를 통해 어촌 후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등 새로운 바다의 이용행태에 따른 다양한



충돌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법적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지역자원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해 얻어진 이익의 배분에 있어서 사회적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과들을 통해 어촌의 커뮤니티가 유지되고 어업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생활의 기반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 2)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를 통한 지역 활성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최근 지역활성화 정책으로 일본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개념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민이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잠자고 있던 노동력, 원자재, 노하우, 기술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고, 바로 비즈니스로 성립시키며, 커뮤니티를 활성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각은 지역주민 주도로 인간성, 사회성, 경제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업’에 두고 있다(<표 4-12> 참조).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업은 경제적인 활성화 뿐 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회관계나 협동관계를 창출하고, 생활문화의 순환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각

| 구 분    | 기존 비즈니스의 시각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각 |
|--------|-------------|---------------|
| 이해 관계  | 단순, 단기간     | 복잡, 장기간       |
| 마케팅    | 크다, 강하다     | 작다, 약하다       |
| 사업 콘셉트 | 경쟁, 이익지향    | 공생, 풀뿌리 지향    |
| 성과     | 효율, 생산성     | 의의, 의미        |

자료 : 이매진, 「우리 모두 주인공인 커뮤니티비즈니스」, 2008, p. 21.

[표 4-13]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주제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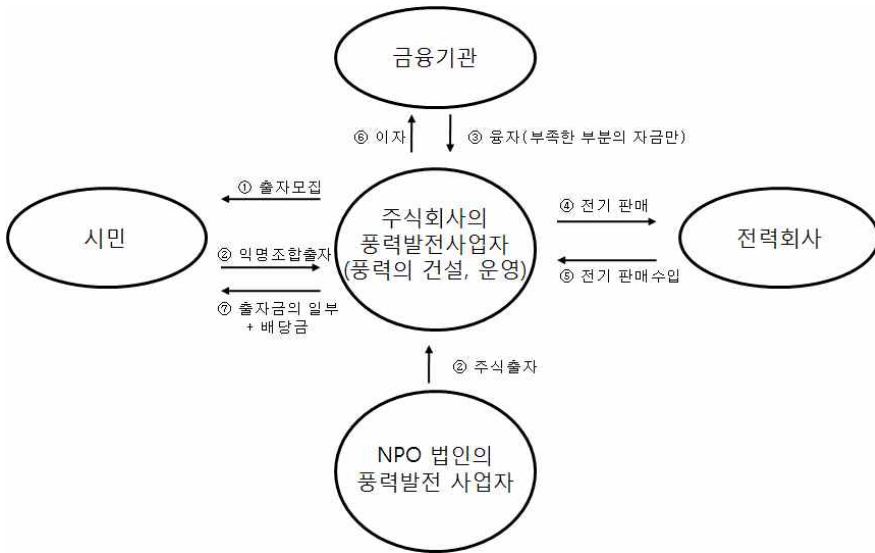
| 분야        | 사례                              | 소재지            | 사업내용  |
|-----------|---------------------------------|----------------|---|
| 복지        | 나와라 포레스트                        | 아오모리현 시모다시     | 쇼핑센터 안의 당일 서비스  |
|           | 코코 팜 와이너리<br>(coco farm&winery) | 토치기현 아시카가시     | 장애인을 고용하는 와인 제조·판매회사  |
|           | 야와라기                            | 히로시마현 미하라초     | 고령자, 장애인용 구입대행 서비스  |
| 환경        | 훗카이도 그린 펀드                      | 훗카이도 삿포로시      | 회원한테서 모은 전기요금 상승분으로 풍력발전기 설비를 마련                            |
|           | 주부 리사이클 운동 시민모임                 | 아이치현 나고야시      | 재활용 정보지 발행이나 프리마켓 개최  |
| 정보        | 스미다리버사이드네트<br>SOHO for Mothers  | 도쿄 구로다구        |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작성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안의 중소기업 등의 정보를 보냄           |
| 관광<br>교류  | 요사코이 소란 축제 조직위원회                | 훗카이도 삿포로시      | 새로운 유형의 축제를 사업화   |
|           | 구로카베                            | 시가현 나가하마시      | 관광교류를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 회사                                      |
| 식품<br>가공  | 숲 속의 메밀가게                       | 이와테현 쿄즈마키마치    | 물방앗간을 이용한 메밀 가게   |
|           | 웃는 얼굴의 농장                       | 야마나시현          | 농사체험과 농산물 판매  |
|           | 오가와노쇼                           | 나가노현 오가와무라     | 할머니들이 만들고 파는 오아키  |
|           | 메이호우 레이디스                       | 기후현 메이호우무라     | 농가 주부들이 참여하는 토마토 가공회사                                       |
|           | 우마지무라농협                         | 고치현 우마지무라      | 유기농으로 재배한 유자를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산지 직송 판매                           |
| 마을<br>만들기 | 기업조합 콘세르제                       |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나 업무와 관련해 미리 등록한 취업 희망 여성을 소개                    |
|           | 마찌나카 서유방                        | 토야마현 토야마시      | 노인의 챌린지 숭   |
|           | 마을 만들기 정보은행                     | 구마모토현 미야하라초    | 주민에게 받은 종합진흥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적당한 지점의 활동비로 지원 |
| 상가<br>활성화 | 아모르토와                           | 도쿄도 아다치구       | 급식 택배 등을 포함한 지역 서비스 회사                                      |
|           | 마치가이 트러스트                       | 오사카부 오사카시      | 마을의 문화 보존이나 활성화를 위해 상가가 중심이 된 조직                            |
| 전통<br>공예  | 마츠모토 조각점                        | 도쿄도 구로다구       | 지역의 기술자 집단과 연대해 지역의 전통기술을 활용                                |
| 안전        | 안전센터                            | 도쿄도 오타구        | 긴급 통보 서비스나 건강 전화상담  |
| 지역<br>금융  | 여성·시민신용조합 설립<br>준비 모임           | 가나가와현<br>요코하마시 | 비영리·지주관리 형태의 여성 지역사업에 우선 응자                                 |

자료 : 상계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생활과 밀접하여 다양한 주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복지, 환경, 정보, 관광·교류, 식품가공, 마을 만들기, 상가 활성화, 전통공예, 안전, 지역금융 등이 있고 현재 일본 내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전국적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표 4-13>과 같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중 에서 홋카이도 그린펀드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본에서 최초로 풍력발전단지를 만든 것이 NPO 법인 홋카이도 그린펀드이다. 이 단체는 시민풍차의 사업회사인 주식회사 홋카이도 시민풍력발전을 설립하고, 2억 엔의 자금을 모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민들이 모은 자금을 토대로 법인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가 시민 풍차를 만들어 지역의 전력회사에 전기를 파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사례이다.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는 바로 입지인데, 풍력발전은 바람이 강하고 사람들이 적은 장소에 조성되었다. 둘째, 지방의 전력회사 중 풍력발전이 가능한 곳을 찾는 것이다. 전기를 팔 곳이 없으면 안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시민풍력 발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확대하는 일로 시민들의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하였다. 넷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1천 kW의 시민풍차는 2억 엔, 1천5백 kW는 3억 7천~8천만 엔의 건설비가 드는데 독립 행정법인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의 보조금, 시민출자, 은행융자 등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 그림 4-7 | 시민 풍력발전의 비즈니스 모델

### 홋카이도 그린 펀드

단체이름 : 주식회사 홋카이도 시민풍력발전

주식출자 : 2천5백만 엔(NPO 법인 홋카이도 그린펀드 1천만 엔, 13명의 개인출자 1천 5백만엔)

강점 : 시민 출자로 만든 풍력발전을 지방의 전력회사에 판매

사업 시작의 장벽 : 건설 입지와 판매처 확보, 자금 조달

사업수입 : 4천 6백만 엔(2004년)

현금배분 : 5만 1,561엔, 1구좌(2004년)

특기사항 : 첫째부터 ‘시민풍력발전 하마돈베츠 1호기 익명 조합 계약’의 출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었음

## 3. 시사점

제4장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선 국내사례로는 사회적 기업,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및 현행 어촌개발사업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리고 해외사례로는 일본의 해업(海業)과 커뮤니티 비즈니스(CB)에 대해 검토하였다.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제공 및 지역경제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다. 2009년 7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251개 있으며 이중 농촌의 사회적 기업이 9개 설립되어 있으나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어촌에는 사회적 기업이 없는 실정이다. 향후 어촌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유치를 통해 어촌내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고용창출, 소득기회 등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농어촌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사업 중 소득증대와 관련성이 많은 복합산업 활성화 부문에서 농촌과 비교하여 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매우 취약하다. 이외에도 농촌에서는 농촌활력증진계획(지역특화품목사업, 신활력사업, 향토산업)과 클러스터 사업 등 다양한 소득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촌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등 농촌에 비해 소득사업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소득확보 및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검토 결과 이들 사업의 운영주체인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 위탁 등으로 인한 운영주체의 역량과 세부적인 운영계획의 부족, 예산규모의 과소화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한편 수산물직판장, 활어회센터 등의 시설은 어업외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이들 소득지원시설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은 어업을 병행하면서 운영이 가능하고 어촌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다. 또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방문객 및 관광객의 집객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업외 소득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향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은 최근 어촌지역 활성화의 구체적 대책으로 해업(海業)의 진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해업은 소득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정주하는 어촌을 중심으로 바다와 어촌에 관한 지역 부존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대책으로 현재 침체되어 있는 어촌에 새로운 소득향상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이 어촌지역 방문의 기회를 제고시키고 이를 통한 어업외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수산물가공, 유어, 수산물직판장, 어촌민박, 어촌레스토랑 등 어업 이외의 관련된 산업을 진흥시키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업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농어촌 산업화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에서 잠자고 있던 노동력, 원자재, 노하우, 기술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 자발적으로 지역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성립시켜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해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어촌 산업화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 5 장 소득 향상을 위한 어촌 유형별 전략

본 장에서는 제4장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어가의 소득향상 등과 관련하여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 어가의 사회경제적 실태분석 및 제3장 어촌의 특성과 유형분석의 내용을 근거로 목표를 설정해 보고, 여기에 제4장의 국내외 사례연구 내용을 첨가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기본 방향에서는 소득향상을 위한 시책도 아울러 살펴본다.

이러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따라 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추진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성공가능성 또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 유형별로 살펴본다.

### 1. 목표 및 기본방향

#### 1) 목표

제2장에서 지난 30년 동안 어가의 소득 및 취업구조의 변화분석에 의하면, 어가와 도시가계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져 어촌의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어업은 어가의 주요 소득원이자 일자리이지만 어업소득의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수산물 시장개방의 진전 및 어업비용의 증가 등으로 어업소득에 의한 어가소득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어업외 소득 및 어업외 일자리의 비중은 정체되어 있는 등 어촌에서 어업외 소득기반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단 고령화로 인한 비경제활동 소득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단순한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갈 것인가, 어업외 소득원을 어떻게 창출할 것

인가가 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어가소득 향상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수산물 생산성, 어촌관광 활성화 정도, 지역관광업 발달정도를 채택하여 통계 분석하여 어촌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어촌의 수산물 생산능력은 저하되고 있으며,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이 미흡한 취약어촌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미약하나마 관광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광어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가 스스로 노력에 의한 어가소득 증대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취약한 어촌의 소득안정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어가소득의 정책목표를 간략하게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확대되고 있는 어가와 도시가계와의 소득격차를 줄여 소득양극화를 완화한다.

둘째, 다수를 점하고 있는 어촌의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 및 획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 2) 기본방향

여기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목표 설정의 근거 내용을 포함하여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시사점 등을 참고로 기본 방향과 관련 시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외 사례연구의 시사점은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어촌에 일자리 및 고용창출, 소득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과 비교하여 어촌에서는 소득관련 사업이 미흡한 실정으로 소득확보 및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개발이 요구된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체험마을사업에 대한 개선을 통한 소득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표 5-1 | 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목표 및 기본 방향

|   |  |
|---|--|
| 목 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가와 도시가계와의 소득격차 완화</li> <li>• 어촌내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화</li> </ul>   |
|  |  |
| 기 본 방 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 특성 및 보유 자원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력 있는 어촌에 대한 선택과 집중</li> <li>- 사회적 기업 및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한 취약어촌의 소득안정화</li> </ul> </li> </ul> |
|  |  |
| 관 련 시 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확보에 대한 노력</li> <li>• 소득창출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어촌자원의 산업화</li> <li>• 다양한 소득획득 사업 개발</li> <li>• 현행 어촌관련 정책사업의 개선</li> <li>•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유치</li> <li>• 직불제 도입 등</li> </ul>       |

이외에 어촌 보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우리나라의 어촌 산업화와 일본 해업의 진흥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개념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특히 어업외 소득증대의 기본방향의 토대라 할 수 있다.

## (1) 어촌의 특성 및 보유 자원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

### ① 경쟁력 있는 어촌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정부 정책차원에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발전 및 개발 정책은 어촌지역 간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어촌을 동일하게 발전시키기 보다는 성공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어촌지역의 개발의지와 추진역량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어촌의 자생력을 길러주는데 그 의의를 두어야 한다.

그 동안 어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책 개발 사업은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사업 등으로 낙후된 어촌 활성화의 목적으로 형평성에 따라 전국 어촌을 골고루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추진된 지 각 15년, 8년이 경과하고 있어 형평성의 균등 발전 목적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경쟁력 기반<sup>25)</sup>을 어느 정도 갖춘 어촌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이들 어촌은 스스로의 자생력에 의해 소득을 향상시키고 어촌지역을 발전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정부에서는 유도해야 할 것이다.

## ② 사회적 기업 유치 및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한 취약어촌의 소득안정화

어촌에는 경쟁력 기반을 갖춘 어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어촌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및 저 소득의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경쟁력이 없는 취약어촌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지원보다는 기본소득의 보장 및 정주여건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차별화 정책이어야 한다.

어촌내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어촌에 유치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및 고용창출, 소득기회의 증대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

25) 경쟁력 있는 대표적인 자원의 보유뿐 아니라 유능한 인력, 산업화 가능한 기반 등을 포함.

또한 농가 및 농촌에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어가 및 어촌에도 도입하여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2) 소득향상 등을 위한 관련 시책

### ①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의 확보에 대한 노력

어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전제조건은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의 확보 및 유지이다. 대체로 어업소득 및 어업외 소득이 높은 고소득 어촌의 특징이 수산물 생산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어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유형분류에서 특히 양식특화형어촌의 경우는 수산물 생산에 의한 고소득 어촌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어촌 및 지역관광이 활성화된 어촌에서도 체험 등의 관광소득보다는 방문객 및 관광객의 수산물 구매에 의한 어업외 소득이 높은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가소득이 높은 어촌에는 청장년의 젊은 인력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등 유능한 인력 확보에 큰 애로를 겪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어촌계의 수산물 생산 능력은 저하되고 있는데 일정 수준으로 생산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수산물은 어촌의 주요 자원이며 수산물의 부가가치화로 소득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 ② 소득창출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어촌 자원의 산업화 추진

어업외 소득원이 다양하지 못한 어촌에서 산업화를 통한 소득향상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어촌의 산업화란 어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여 일자리 및 어업외 소득원 창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어촌자원의 관광화, 수산물 가공화, 직거래 및 판매 촉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해업의 진흥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는 소득기회의 증대를 위해 어촌을 중심으로 바다와 어촌에 관한 지역 부존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일반 국민들의 어촌지역 방문의 기회를 제고시키고 이를 통한 어업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즉 수산물가공, 유어, 수산물직판장, 어촌민박, 어촌레스토랑 등 어업 이외의 관련 산업의 진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어촌자원의 산업화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어촌 자원의 산업화 및 해업의 진흥 등은 생산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어업을 포함하여 어촌이 보유한 경쟁력 있는 자원을 비즈니스 모델로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어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즉 돈 버는 어촌·어업의 핵심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고무적인 것은 어촌 사회경제적 실태 분석에 의하면 어가의 수산물 판매형태에서 소비자 직거래의 비중과 수산물 가공에 의한 소득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낚시배 운영에 의한 관광소득의 증가 등 이러한 현상은 어촌의 산업화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다양한 소득획득 사업개발

어촌 및 어업인 스스로에 의한 소득향상 및 추진역량의 배양 그리고 어촌의 자생력을 유도하는 다양한 소득획득을 위한 사업개발 시책이 요구된다. 특히 농촌과 비교하여 소득지원 사업이 미흡한데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삶의질 기본계획 사업 중 소득과 연계된 복합산업 활성화 사업 분야에서 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소득지원사업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어촌에서는 전혀 시도되지 않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농촌활력증진계획(지역특화품목사업, 신활력사업, 향토산업)과 클러스터 사업 등 다양한 소득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수산물식품부로 통합되어 어촌지역 수

산업 및 특화품목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육성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농촌의 소득지원 사업을 활용할 것인지 어촌 및 수산부문 별도의 다양한 소득지원 사업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나, 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어촌에 다양한 소득획득 지원사업은 농촌수준 정도로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 ④ 현행 어촌관련 사업(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개선

15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어가소득 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올리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문제점도 안고 있다. 향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들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어촌종합개발사업 중 소득기반시설 가운데 비교적 높은 소득과 고용창출이 가능한 시설은 수산물직판장과 활어회 센터이다. 특히 이들 시설의 성공사례 분석에 의하면 어업과 병행할 수 있고, 어촌의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들 사업은 2002년 이후 운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된 상태이다. 소득효과가 높은 이들 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된 시설 중에는 어촌계가 직영하지 않고 임대, 매각 및 방치되고 있는데 이는 운영주체의 역량과 운영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이다. 향후 당해 어촌계 및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고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소득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경우는 지역에서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다수의 지역에 균등·분산지원으로 사업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효과의 극대화와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후속 사업을 통한 활

성화가 필요하다.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방문객 및 관광객의 집객효과에 의한 수산물 판매 또는 직거래로 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집객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업외 소득증대와 관련한 주요 기반사업이라 할 수 있다.

### ⑤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유치

최근 사회적 기업육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구축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특히 어촌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도시에 비해 사회적 서비스가 크게 부족하며 일자리도 충분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어촌에는 아직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지 않고 있으며 농촌에서 9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정도이다. 어촌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유치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서비스를 충족시키고 일자리 제공으로 어촌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어촌에서 가능한 사회적 기업 테마로는 지역 노인대상 서비스, 어업지원, 수산물 판매, 외딴지역의 마을상점운영, 특산물 가공공장, 해안림 관리, 연안환경 관리, 어촌 및 어업의 폐기물(폐어구, 패각, 폐사물고기)의 수거·재활용,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원 활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면서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가 인식하지 못하는 신규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부·후원·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을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 ⑥ 직불제 도입 등

취약계층이란 실제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계층,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인데 특히 어촌에는 저소득층 및 고령자의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외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농촌 및 농가를 대상으로는 9가지의 다양한 직불제를 시행하여 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어촌 및 어가를 대상으로 직불제<sup>26)</sup>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농업의 사례를 보면 공익 목적의 직불제를 통해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소득안정형 직불제를 통해서 시장 가격이 하락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경영규모가 큰 농가 및 단체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다.

동일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촌 및 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불제의 도입을 통한 취약계층의 소득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단 농업과 달리 어업은 자원관리라는 세계 공통의 목표가 있어 농업부문과 동일한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어촌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불제외에 어가의 노령연금 및 의료보험료 지원확대 등은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간접적인 소득 안정 방법으로 피부에 닿는 가시적 효과로 호응이 높은 또 다른 대안이기도 하다.

## 2. 어촌 유형별 전략

26) 현재 도입을 위한 검토 중에 있음.

여기에서는 제3장의 분석한 유형별 어촌 특성을 바탕으로 앞 절에서 다루었던 목표와 기본방향에 따라 어촌 유형별 추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주로 어업의 소득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어촌유형별로 추진방향과 전략에 적합한 관련 사업 및 도입 가능시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1) 근교 복합 관광형 어촌(I 유형)

I 유형에 속하는 어촌은 <표 5-2>에 나와 있듯이 어촌관광활성화, 수산물 생산성 그리고 지역 관광업 발달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도시인구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어업유형은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을 병행하는 복합어업이 우세하며,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의 어촌으로 가장 경쟁력을 갖춘 어촌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촌은 전체 500개 표본의 약 9%에 해당하는 44개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I 유형 어촌의 소득증대 추진방향 및 전략은 높은 수산물 생산성을 유지하고,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의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추진방향과 전략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 및 도입 가능한 시설별로 검토하여 제시한 것이 <표 5-3>이다.



| 표 5-2 | 유형별 특성과 추진 전략

| 구 분                   | 통계분석<br>요인적 특성  |            |                | 기타 특성          |          |          | 추진 방향 및 전략  |
|-----------------------|-----------------|------------|----------------|----------------|----------|----------|---|
|                       | 어촌<br>관광<br>활성화 | 수산물<br>생산성 | 지역<br>관광<br>발달 | 도시<br>인구<br>접근 | 어업<br>유형 | 소득<br>수준 |   |
| 근교복합<br>관광형<br>(Ⅰ 유형) | +               | +          | +              | ○              | 복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수산물 생산성 유지</li> <li>• 1·2·3차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 실현</li> </ul>      |
| 어촌<br>관광형<br>(Ⅱ 유형)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지역 연계하여 자원 활용 극대화</li> <li>• 어촌관광의 고도화를 통한 소득증대</li> </ul>   |
| 양식어업<br>특화형<br>(Ⅲ 유형) | -               | +          | -              | ×              | 양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생산의 극대화</li> <li>• 양식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실현</li> </ul>                |
| 취약형<br>(Ⅳ 유형)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커뮤니티 유지에 초점</li> <li>•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li> </ul>         |
| 지역<br>관광형<br>(Ⅴ 유형)   | -               | -          | +              | ×              | 어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방문 및 관광객의 어촌으로 유치</li> <li>• 어촌 보유 자원의 관광 상품화</li> </ul>    |
| 근교<br>관광형<br>(Ⅵ 유형)   | -               | -          | +              | ○              | 어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및 관광객 대상 서비스 고도화</li> <li>• 새로운 어촌관광 상품 및 서비스 개발</li> </ul> |

주1) : +는 정의 관계, -는 부의 관계를 의미.

주2) : ○은 양호, △는 보통, ×는 미흡을 의미.

주3) : 복합은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을 모두 경영.

I 유형 어촌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과 시설이 도입 가능하지만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sup>27)</sup>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높은 수산물 생산

27)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어촌 내 낙후된 도서어촌 등에 풍력사업 등을 일으켜 지역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지역의 재정으로도 활용함.

성과 양호한 도시접근성을 바탕으로 클러스터사업, 수산물 직판장운영, 활  
어회센터, 수산물 직거래, 피서리나운영<sup>28)</sup>, 낚시 등의 수익사업이 가능하며,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을 병행하므로 다양한 어업체험을 할 수 있다.

표 5-3 | 유형별 관련 사업 및 도입가능 시설 검토

| 구 분                  | 관련 사업 및 도입 가능 시설      |                                 |                  |                            |                            |                       |                            |  |                       |                       |                  |                  |                  |                  |                            |                       |                            |
|----------------------|-----------------------|---------------------------------|------------------|----------------------------|----------------------------|-----------------------|----------------------------|--|-----------------------|-----------------------|------------------|------------------|------------------|------------------|----------------------------|-----------------------|----------------------------|
|                      | 사<br>회<br>적<br>기<br>업 | 저<br>탄<br>소<br>녹<br>색<br>마<br>을 | 1<br>사<br>1<br>촌 | 클<br>러<br>스<br>터<br>사<br>업 | 수<br>산<br>물<br>직<br>판<br>장 | 활<br>어<br>회<br>센<br>터 | 수<br>산<br>물<br>직<br>거<br>래 | 수<br>산<br>물<br>가<br>공<br>및<br>브<br>랜<br>드<br>화 | 민<br>박<br>/<br>식<br>당 | 바<br>다<br>낚<br>시<br>선 | 잔<br>교<br>낚<br>시 | 좌<br>대<br>낚<br>시 | 피<br>서<br>리<br>나 | 갯<br>벌<br>체<br>험 | 어<br>선<br>어<br>업<br>체<br>험 | 양<br>식<br>오<br>너<br>제 | 양<br>식<br>어<br>업<br>체<br>험 |
| 근교복합<br>관광형<br>(Ⅰ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촌<br>관광형<br>(Ⅱ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식어업<br>특화형<br>(Ⅲ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약형<br>(Ⅳ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br>관광형<br>(Ⅴ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교<br>관광형<br>(Ⅵ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도입 가능성 순위는 ◎ > ● > ○ > △ > × 임.

28) 주로 일본에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항 내에 마리나 및 놀이보트 등을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음.

## 2) 어촌 관광형 어촌(II 유형)

이 유형의 어촌은 체험마을운영, 수산물 구매 및 마을축제 등 어촌관광의 활성화 정도만 비교적 높은 편이나, 수산물 생산성은 낮고 및 지역 관광업 발달성은 낮은 유형이다. 그리고 도시인구의 접근성은 보통이고, 특징적인 어업유형을 보이지 않는 보통소득의 특성을 지닌 어촌이라 할 수 있다(<표 5-2> 참조). 이 유형에 속하는 어촌은 전체 표본 500개의 26%에 해당하는 130개로 집계되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 유형의 어촌관광을 어떻게 고도화해서 고 소득 어촌으로 발전시킬 것인가가 과제라 할 수 있다.

II 유형의 어촌에서는 기존 활성화되고 있는 어촌관광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기존 수요계층을 통한 수요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II 유형의 추진방향 및 전략은 인근지역 연계하여 상품개발 및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기존의 어촌관광의 고도화를 통한 소득증대로 설정하였다.

이 유형에 적합한 관련 사업 및 도입가능시설을 살펴보면 <표 5-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 및 저탄소 녹색마을사업을 유치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새로운 어촌관광 자원 및 상품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어촌관광과 연계하여 1사1촌 사업을 유치하여 도시인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도시인을 대상으로 한 어촌체험·어업체험 그리고 민박과 식당 등의 수익사업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양식어업 특화형 어촌(III 유형)

이 유형에 속하는 어촌은 수산물 생산성이 높고, 100%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도시인구의 접근성은 열악하며 지역관광업 발달정도 및 어촌관광

활성화 정도가 낮으나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표 5-2> 참조). 이 유형에 속하는 어촌은 표본 500개의 약 3%에 해당하는 16개로 집계되었으며 전부 전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유형의 어촌에서는 높은 수산물 생산성을 유지하고 이들 수산물을 활용한 소득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양식어업 특화형 어촌의 추진방향 및 전략은 동 어촌의 주요 자원인 양식생산을 극대화시키고 양식생산의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이 유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관련 산업과 도입가능 시설을 <표 5-3>에서 살펴보면 우선 경쟁력 있는 대표양식 품목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사업화 또는 가공 및 브랜드화하여 단순 생산-판매보다는 높은 가격의 상품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판매한다. 그리고 1사1촌 사업을 통해 도시민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이들 도시민을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식품의 직거래 등의 수익사업을 추진한다.

양식어업에 특화되어 있는 장점을 살려 관광양식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식오너제<sup>29)</sup> 및 먹이주기 등의 양식어업체험의 관광양식<sup>30)</sup> 도입과 함께 민박 및 식당운영을 통한 소득향상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4) 취약형 어촌(Ⅵ 유형)

---

29)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양식 시작 전에 치어 및 종묘를 일반 소비자에게 분양하여 성장한 후 양식물을 오너에게 보내줌. 양식 도중에 직접 현장에서 보거나 오너 입회하에 수확하기도 함. 굴양식에 가장 많은데 굴양식은 실패할 확률이 낮아 오너의 리스크도 적고, 또 살아있는 채로 간단하게 택배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임. 오너제도는 미역 및 진주양식에도 실시하고 있음.

30) 주로 먹이 주는 체험의 관광양식으로 일본에서는 참치, 방어 및 참돔 등에게 먹이 주는 풍경이 인기 있음.

이 유형의 어촌은 <표 5-2>에서 알 수 있듯이 어촌의 특성을 구분하는 3가지 요인 즉 어촌관광활성화정도, 수산물 생산성 그리고 지역관광업발달 정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며, 도시인구 접근성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낮으며 다양한 어업유형에 종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촌은 500개 표본 중 47%에 해당하는 235개로 집계되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간단히 표현하면 취약한 어촌이 많다는 것이다.

VI 유형 어촌은 소득증대 관련 자원이 부족하고 지역 역량수준이 낮고 저소득층이 많은 그야말로 취약형 어촌으로서 소득증대보다는 소득안정화에 보다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시에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활성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유형어촌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지역커뮤니티 유지에 초점을 두고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설정하였다.

이 유형에 적합한 관련 사업 및 시설을 살펴보면 <표 5-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고, 저탄소 녹색마을 및 1사1촌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자기 자본이 필요하지 않는 비 시설 사업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어촌에는 갯벌체험 및 체험어업 등을 추진해 볼 수 있다.

## 5) 지역 관광형 어촌(V 유형)

이 유형의 어촌은 <표 5-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촌관광활성화정도 및 수산물생산성 수준은 낮은 실정이며, 도시인구 접근성이 열악하지만 지역관광업 발달성이 높고 어선어업이 우세인 고소득 어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촌은 500개 표본 중 1.4%의 7개로 집계되어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다는 문제가 있으나 다음의 VI 유형과는 도시인구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차별되는 특성으로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다.

V 유형의 어촌은 지역관광업이 발달해 있는데 이는 인근지역에 볼거리, 먹거리 및 놀거리 등의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숙박업소 및 음식점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어촌의 특성을 살려 지역관광업과 연계하고, 어촌 관광에 주력하여 관광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유형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인근 지역을 찾는 방문객 및 관광객을 어촌으로 유치하고, 어촌이 보유한 자원의 관광 상품화로 설정하였다.

이 유형에 적합한 관련 사업 및 도입 가능 시설을 살펴보면 인근지역 방문객 및 관광객을 동 어촌으로 유치하여 비교적 우세한 어선어업을 활용하여 어선어업체험 및 바다낚시선의 운영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1사1촌 사업을 유치하여 도시민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킨다. 아울러 도시민 및 관광객 대상으로 민박 및 식당 운영을 통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6) 근교관광형 어촌(VI 유형)

이 유형의 어촌은 <표 5-2>에서 알 수 있듯이 V 유형과 마찬가지로 어촌관광 활성화 정도는 낮으나 지역관광업이 발달해 있고, 어선어업이 우세한 고소득 어촌으로 도시인구의 접근성이 양호한 특성을 가진 비교적 경쟁력을 갖춘 어촌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촌은 500개 표본의 약 14%에 해당하는 68개로 집계되었다.

VI 유형의 어촌은 양호한 도시인구의 접근성과 지역관광업 발달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증대로 연계하는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관광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관광은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어촌관광과 기존 지역관광업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유형의 추진방향과 전략은 방문객 및 관광객 대상으로 고도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어촌관광 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어촌의 특성과 추진방향 및 전략을 바탕으로 VI 유형에 적합한 관련 사업 및 도입가능 시설을 <표 5-3>에서 살펴보면 도시인구 접근성의 이점을 살려 수산물 직판장 및 활어센터 운영 등의 수익사업을 추진한다. 우세한 어선어업을 활용하여 바다낚시선 운영 및 어선어업 체험사업을 통해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발달한 어항을 이용하여 피서리나를 설치하여 요트 및 보트놀이 등 도시민의 해양레포츠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 제6장 결 론

### 1. 요약 및 결론

2008년 새로운 정부조직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탄생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돈 버는 농어업·농어촌이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이면에는 그 동안 농어업과 농어촌은 그다지 돈벌이와는 관련이 미흡한 산업과 지역이라는 공통된 국민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밀려오는 시장개방의 압력은 WTO-DDA 협상 진전 및 FTA 타결로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수산업과 어촌에서는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한 국내외적 수산자원관리의 강화가 부가되면서 농업 및 농촌과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8년 우리나라 IMF 경제위기 및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한 전 세계의 경제위기 등 최근 20년 사이에 10년 주기로 나타나는 경제위기는 경쟁력이 취약한 수산업과 어촌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변화되는 국내외 환경에 잘 적응하고 경제적 위기상황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돈 버는 어업·어촌의 정책 슬로건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돈 버는 어촌에 초점을 맞추어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어촌의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에 의한 소득 증대의 필요성과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어가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인구구조, 취업구조 및 소득구조의 측면에서 통계청의 지정통계인 어업총조사, 어가경제조사 및 어업조사의 지난 30년 동안 추이분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어가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인구학적 측면에서 어촌은 과소화와 고령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8년 어가소득이 농가소득을 능가하여 기념할 만 하였으나 도시가계소득의 약 67% 수준으로 하락하여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오히려 벌어져 어촌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어가소득의 목표는 농가소득 따라잡기가 아닌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데 있다.

셋째, 지난 30년 동안 어가의 어업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어업외 소득 비중은 큰 변함이 없으며, 비경제활동으로 얻는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은 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진전에 따라 비경제활동소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어업외 일자리의 비중 또한 정체되고 있어 어촌에서 어업외 소득원 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수산물시장개방의 진전 및 어업비용 상승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어업소득보다는 어업외 소득 획득에 대한 노력을 통한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가의 사회경제적 실태 분석의 시사점에서 어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어촌의 산업화 개념을 수용하였다. 어촌의 산업화란 어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여 소득증대, 일자리 및 어업의 소득원 창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촌의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촌의 특성에 의한 유형화를 시도하여 어촌 유형별로 어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제3장에서는 어촌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유형화 분류를 하였다. 어촌의 공간적 범위를 어촌계로 두고, 500개 표본 어촌(계)을 대상으로 소득과 관련이 많은 수산물 생산성, 어촌관광활성화 정도 그리고 지역관광업 발달정도의 변수에 대하여 다변량통계기법인 요인분석 및 2단

계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특성별 어촌집단을 도출하여 6개의 어촌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전국 표본 500개 어촌에 대하여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하는 바는 살펴보면 어촌의 수산물 생산능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취약한 어촌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관광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촌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이러한 시사점을 반영한 소득증대를 위한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촌유형별 발전방향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연구를 하였는데 국내사례로는 최근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농어촌의 소득, 일자리, 복지, 교육, 의료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하여 총체적이고 종합적 접근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및 관련 사업 그리고 현행 어촌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외사례로는 일본의 해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국내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제공 및 지역경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2009년 현재 251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농촌의 사회적 기업이 9개 설립되어 있으나 어촌에는 사회적 기업이 부재한데 어촌실정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유치가 시급하다.

둘째, 복합산업활성화, 농촌활력증진계획(지역특화품목사업, 신활력사업, 향토산업)과 클러스터 사업 등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관련 사업은 다양한데 어촌에는 이들 사업이 농촌과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수산물 직판장 및 활어회센터 등의 시설은 어업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효과가 높으므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이들 소득지원시설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 사업은 어업을 병행하면서 운영이 가능하고 어촌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소득효과 외에 방문 및 관광 등의 집객효과도 크기 때문에 어업외 소득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향후 확대 및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으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으로 해업(海業의 진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해업 진흥이란 소득기회의 증대를 위해 어촌 부존자원의 새로운 가치창출에 초점을 두고 국민들이 어촌지역 방문의 기회를 제고시키고 이를 통한 어업외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수산물가공, 유어, 수산물직판장, 어촌민박, 어촌레스토랑 등 어업이외의 관련된 산업을 진흥시키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업진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촌산업화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4장까지 연구 및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소득향상을 위한 어촌 유형별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소득증대를 위한 목표로 어가와 도시가계와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다수를 점하고 있는 어촌의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 및 획득의 기회 제공으로 설정하였다. 기본 방향은 어촌특성 및 보유자원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으로 설정하여 경쟁력있는 어촌과 취약어촌에 대한 발전전략을 달리 접근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련 6 시책으로 첫째,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확보, 둘째 어촌자원의 산업화 셋째, 다양한 소득획득 사업개발 넷째, 현행 어촌관련 사업 개선 다섯째,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유치, 그리고 직불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 및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6개 어촌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도입가능 시설을 제안하였다.

## 2. 정책제언

### 1) 어촌의 특성 및 발전 단계에 따른 정책의 차별적 접근

본 연구의 어촌유형 분석에 의하면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어촌 약 47%, 고소득의 경쟁력을 갖춘 어촌 27%, 보통소득의 잠재력을 가진 어촌 26%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촌에 대하여 균형-안배의 시각에서 동일한 정책 틀과 수단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어촌의 특성 및 보유자원 그리고 소득 등의 발전 단계를 고려한 차별적 접근에 의한 어촌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어촌의 고령화 정도 및 인력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경쟁력을 갖춘 어촌과 취약한 어촌에 대한 정책과 관련 시책을 달리 적용하여 맞춤형 어촌개발이 요구된다. 경쟁력을 갖춘 어촌에 대하여는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편 소득 향상의 자생력이 없는 어촌에 대하여는 사회적 기업 또는 직불제를 통한 소득안정화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이 10년 이상 추진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의 추진 등으로 소득증대 등 성공한 어촌이 출현하고 있다. 향후 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경쟁력을 갖춘 어촌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고소득 선도어촌을 정책적으로 만들어가고 이들을 어촌을 모델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 소득증대 관련 정책 사업 개발

동일한 1차 산업지역인 농촌에 비해 어촌에는 소득증대와 관련된 정책 사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는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지만 어촌에는 없다. 어촌의 자원을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개발이 농촌수준정도로 필요하다.

따라서 농촌의 다양한 소득증대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어촌을 대상으

로 하는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세부사업 중 소득증대와 관련이 많은 복합산업 활성화 부문에 있어 어촌관련 사업 개발이 요구된다. 아울러 어촌실정을 반영한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유치를 통해 사회서비스제공 및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현행 어촌관련 사업 개선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어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각 15년, 9년째 실시하고 있는데 그 동안 어느 정도 효과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먼저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현재 중단되고 있는 소득시설인 수산물판매장 및 활어센터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시설 운영을 통한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어업과의 병행이 가능하고 어촌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

따라서 균등-배분이 아닌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어촌을 대상으로 수산물 판매장 및 활어센터 사업을 통한 고소득 어촌, 돈 버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경우는 특히 방문 및 관광객 등 집객 효과가 크고 이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 또는 고도화를 통한 소득증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고영선 외,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2008.
- 남수연·조중구·이성우, “친환경과 정보화요인이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농촌경제」, 제29권 제5호, 2007.
- 농림수산물식품부, 「2009년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2001-2009)」, 2009.
- \_\_\_\_\_,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2008.
- 박진환, “농업소득을 결정하는 요인분석”, 「농업경제연구」, 제2권, 1959.
- 반성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과 소득분배”,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 (상)」, 한국개발연구원, 1979.
- 신영태 외, 「WTO-FTA 협상 이후 수산업·어촌의 정책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 유승주·조중구·이성우, “정보화가 농가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제12권 제3호, 2006.
- 윤성도, “공간계량경제모형과 해체기법을 적용한 정책평가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제6회 대학원생 논문공모 시상논문집」, 통계청, 2008.
- 이동필 외,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평가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 이성우·윤성도·박지영·민성희, 「공간계량모형응용」, 박영사, 2006.
- 이성우·임경수, “사회과학의 학문적 특성과 다중모형이 가지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2권 제3호, 2000.
- 이성우·임형백, 「정보화와 농촌사회」, 명진씨앤피, 2005.
- 이성우·임형백·조중구, “농가 정보화의 결정요인과 지역간 차이”, 「농업경

- 제연구」, 제45권 제1호, 2004.
- 이재한, “농업소득을 결정하는 요인분석”, 「농업경제연구」, 제7권, 1964.
- 이정환·권태진·조덕래·김은순·조재환, 「농가소득의 결정과 분배」,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1987.
- 최재혁·고석남, “한국의 농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산업경제연  
구」, 제18권 제3호, 2005.
- 한광석·고병욱,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국가어항개발사업의 어촌소득 증대  
효과 분석”, 「해양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2005.
- 김현호 외,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2009.
- 해양수산부,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7.
-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 평가 및 향후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통계청, 「어업총조사」, 각 년도.
- \_\_\_\_\_, 「어업조사」, 각 년도.
- \_\_\_\_\_, 「어가경제조사」, 각 년도.

#### 〈해외 문헌〉

- Jennrich, R. I. and M. D. Schluchter, "Unbalanced repeated-measures  
model with structured covariance matrices." *Biometrics*, 42,  
1986.
- Longford, N. T., *Random Coefficient Models*, Oxford Science Publications,  
1993.
- Luke, Douglas A., *Mutlilevel Modelling*, Sage Publications, 2003.

#### 〈온라인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어류양식현황조사(<http://fs.fips.go.kr/fc/>)

어업생산통계(<http://fs.fips.go.kr/index.jsp>)

해양수산물통계연보(<http://fs.fips.go.kr/index.jsp>)



<부록 1> 통계분석 상세 내용

1.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표 1〉 특성변수의 상관행렬

| 항 목          | 호당<br>어업권<br>면적 | 호당<br>수산물<br>생산량 | 숙박<br>업소<br>수 | 음식점<br>수 | 체험<br>관광<br>지수 | 판매<br>지수 | 축제<br>지수 |
|--------------|-----------------|------------------|---------------|----------|----------------|----------|----------|
| 호당어업권<br>면적  | 1.000           | 0.406            | 0.035         | -0.029   | -0.037         | 0.049    | -0.032   |
| 호당수산물<br>생산량 | 0.406           | 1.000            | -0.028        | -0.025   | -0.054         | -0.016   | -0.029   |
| 숙박업소수        | 0.035           | -0.028           | 1.000         | 0.172    | 0.121          | 0.221    | 0.024    |
| 음식점수         | -0.029          | -0.025           | 0.172         | 1.000    | -0.032         | 0.152    | 0.098    |
| 체험관광<br>지수   | -0.037          | -0.054           | 0.121         | -0.032   | 1.000          | 0.307    | 0.211    |
| 판매지수         | 0.049           | -0.016           | 0.221         | 0.152    | 0.307          | 1.000    | 0.293    |
| 축제지수         | -0.032          | -0.029           | 0.024         | 0.098    | 0.211          | 0.293    | 1.000    |

위 상관행렬에서 보면, 호당어업권면적 변수와 호당 수산물생산량 변수의 상관계수가 0.406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판매지수와 체험관광지수의 상관계수가 0.30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있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공통성(communality) 추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공통성(communality)은 변수에 포함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각 변수의 초기값과 주성분 분석방법에 의 한 각 변수에 대해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표 2〉 공통성 추출

| 항 목      | 초기 | 추출     |
|----------|----|--------|
| 호당어업권면적  | 1  | 0.7091 |
| 호당수산물생산량 | 1  | 0.6929 |
| 숙박업소수    | 1  | 0.5067 |
| 음식점수     | 1  | 0.6372 |
| 체험관광     | 1  | 0.5753 |
| 수산물판매    | 1  | 0.6096 |
| 지역축제     | 1  | 0.4501 |

요인분석의 목적은 데이터의 축소, 즉 변수의 수를 줄이는 데 있으므로 위에 나타난 요인(성분) 일곱개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추출된 세 요인의 고유치(eigenvalue)는 각각 1.682, 1.407, 1.092로서, 이것은 요인추출 기준으로 지정한 고유치 1이상인 요인만 추출된 것을 의미한다(<표 3>).

〈표 3〉 요인별 설명된 총 분산

| 성 분 | 초기 고유값       |             |             |
|-----|--------------|-------------|-------------|
|     | 전체           | % 분산        | % 누적        |
| 1   | <b>1.682</b> | <b>24.0</b> | <b>24.0</b> |
| 2   | <b>1.407</b> | <b>20.1</b> | <b>44.1</b> |
| 3   | <b>1.092</b> | <b>15.6</b> | <b>59.7</b> |
| 4   | 0.921        | 13.2        | 72.9        |
| 5   | 0.692        | 9.9         | 82.8        |
| 6   | 0.630        | 9.0         | 91.8        |
| 7   | 0.575        | 8.2         | 100.0       |

고유치는 그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을 나타내므로 이 값이 큰 요인일수록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고유치는 각 요인의 설명력을 나타

내는 것으로 모든 요인(성분)의 고유치 합계는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수와 같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7이다. 세 요인 중에서 요인 1은 24.0%, 요인 2는 20.1%, 요인 3은 15.6%를 설명함으로써 전체(누적) 59.7%를 설명하고 있다. 물론 요인 1이 더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다. 요인을 더 많이 추출하였다면 누적 설명력은 높아지겠지만 요인의 수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요인은 가능한 한 적으면서 설명력을 높이는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그림 1>에 나타는 스크리 도표는 고유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가로축은 요인의 번호, 세로축은 고유치를 나타내고 있다. 요인 5로부터 고유치가 급격하게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유치가 급격히 작아지는 점에서 요인의 개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요인의 수는 5개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을 사용한다.

<표 4>는 이렇게 추출된 3개의 요인으로 축약했을 때의 각 변수별 성분행렬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변수를 도출할 수 있다. 표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요인 1은 어촌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변수라 할 수 있으며, 요인 2는 수산물 생산 활동을, 요인 3은 지역의 관광업 발달 정도를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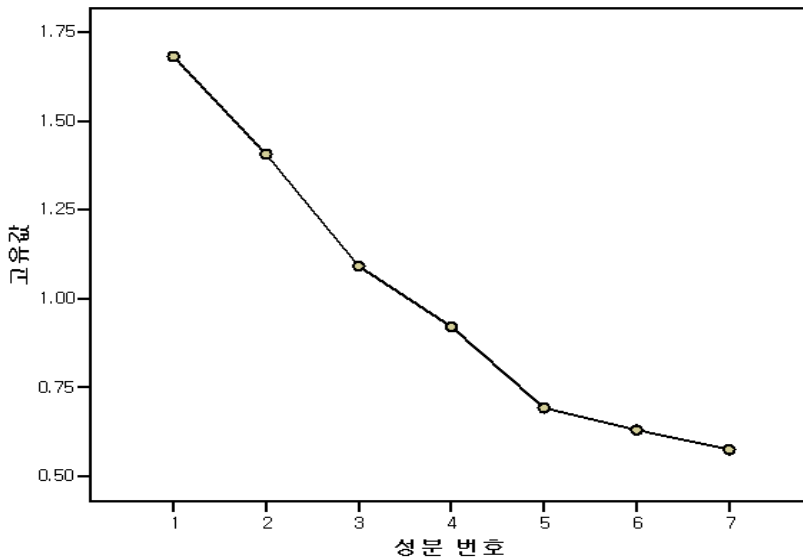
한편, 공통요인의 변수 대표성과 집약성을 명확히 하고 요인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 procedure)을 수행하였다. <표 5>에는 베리맥스법에 의한 네 차례의 반복계산 후에 얻어진 회전 결과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직각회전방식은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이나 판별분석 등을 수행할 경우, 요인 간에 독립성이 있는 것이 요인들의 다중공선성에 의한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표 4〉 요인 성분행렬

| 변 수      | 성 분     |       |         |
|----------|---------|-------|---------|
|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 호당어업권면적  | - 0.111 | 0.835 | - 0.017 |
| 호당수산물생산량 | - 0.190 | 0.808 | - 0.056 |
| 숙박업소수    | 0.464   | 0.137 | 0.522   |
| 음식점수     | 0.353   | 0.026 | 0.715   |
| 체험관광지수   | 0.610   | 0.016 | - 0.451 |
| 판매지수     | 0.755   | 0.190 | - 0.063 |
| 축제지수     | 0.593   | 0.034 | - 0.312 |

〈표 5〉 회전된 성분행렬

| 변 수      | 성분       |          |          |
|----------|----------|----------|----------|
|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 호당어업권면적  | 0.0035   | 0.8415   | 0.0297   |
| 호당수산물생산량 | - 0.0476 | 0.8297   | - 0.0461 |
| 숙박업소수    | 0.1508   | 0.0388   | 0.6945   |
| 음식점수     | - 0.0536 | - 0.0633 | 0.7939   |
| 체험관광지수   | 0.7514   | - 0.0551 | - 0.0876 |
| 판매지수     | 0.6996   | 0.0751   | 0.3382   |
| 축제지수     | 0.6691   | - 0.0412 | 0.02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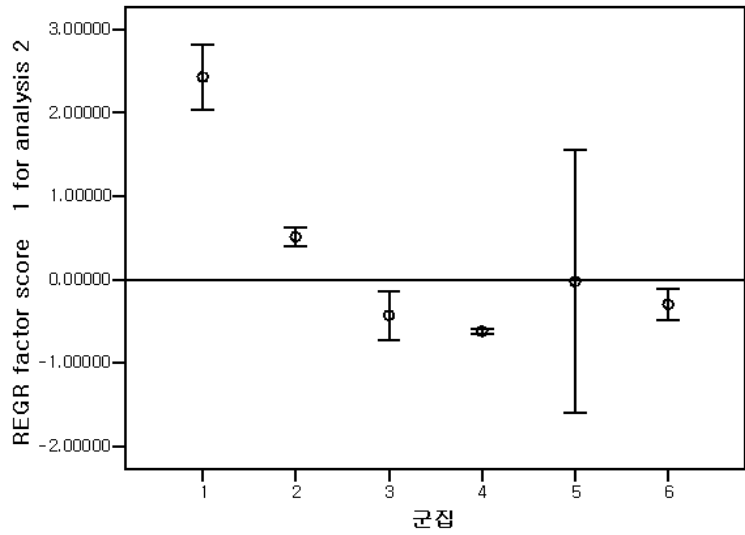
〈그림 1〉 스크리 도표

직교회전을 적용한 반복계산 결과 성분행렬에서 각 요인값의 크기와 부호가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요인이 대표하는 특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

## 2. 군집 신뢰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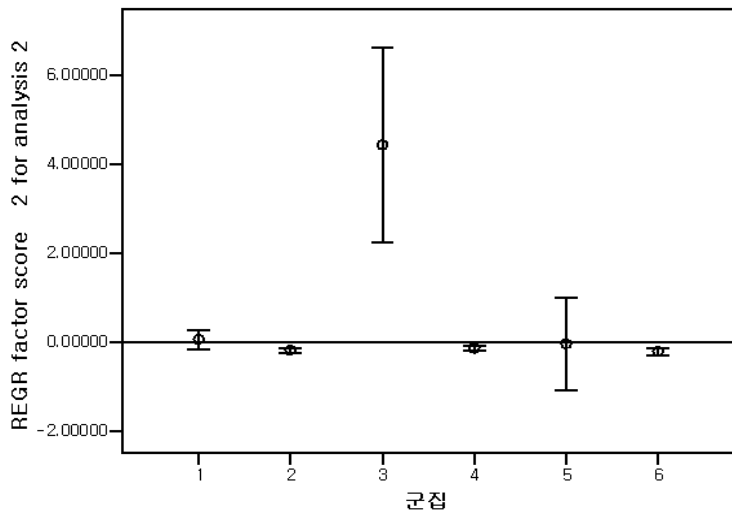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은 각 요인별 군집별 95%신뢰구간이다. 이는 각 군집별 소속요인변수의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군집의 대표치와 그 편차의 크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평균에 대한 동시 95% 신뢰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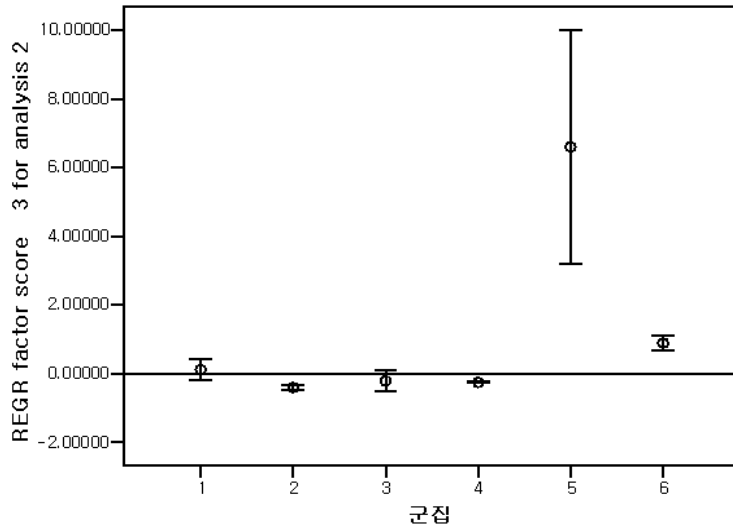
〈그림 2〉 어촌계 활성화 참여성 변수에 대한 95% 신뢰구간

평균에 대한 동시 95% 신뢰구간



〈그림 3〉 수산물 생산성 변수에 대한 95% 신뢰구간

평균에 대한 동시 95% 신뢰구간




〈그림 4〉 지역 관광업 발달성 변수 대한 95% 신뢰구간

<부록 2> 어업인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양수산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은 **어촌사회 구조변화와 발전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수행에 어촌에 거주하시는 어업인과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으나 귀하의 의견이 정부의 어촌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표에 기입하시는 사항은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수산·어촌연구본부

응답자 기본 사항

|       |   |           |           |      |        |
|-------|---|-----------|-----------|------|--------|
| 이름    |   | 주소<br>어촌계 | 군(시)<br>( | 읍(면) | 동<br>) |
| 어업 경력 | 년 | 전화번호      |           |      |        |





다. 주된 가계부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2가지만)

- ① 보건·의료비
- ② 자녀교육비
- ③ 식료품비
- ④ 주택 및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구입
- ⑤ 기타 (      )

문6. 귀하는 어촌관광으로 인한 직접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소득 없음      ② \_\_\_\_\_원(전체 소득의 \_\_\_\_\_ %)

문7. 귀하는 어업외 소득 증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

문8. (수집상인에게 수산물 판매하는 어가만)귀하는 생산한 수산물을  
수집상인에게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어  
② 계통 판매 수수료 때문에  
③ 인근에 수협 위판장이 없어서  
④ 조합원 가입의 어려움 등 조합과의 마찰 때문에  
⑤ 기타 ( )

문8-1. 귀하가 생각하는 수집상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있는 경우만)

문9.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귀 어촌계의 상황은 어디에 해당되니까?

| 항 목       | 매우 심각 | 심 각 | 보 통 | 심각하지<br>않음 | 전혀 아님 |
|-----------|-------|-----|-----|------------|-------|
| 1. 고 령 화  |       |     |     |            |       |
| 2. 인구감소   |       |     |     |            |       |
| 3. 어업외소득원 |       |     |     |            |       |
| 4. 어업후계자  |       |     |     |            |       |

문10. 우리나라 어촌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분야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5점 척도)

| 항 목  | 전혀<br>중요<br>하지<br>않음 | 중요<br>하지<br>않음 | 보 통 | 중<br>요 | 매<br>우<br>중<br>요 |
|--|----------------------|----------------|-----|--------|------------------|
| 1. 어선어업 생산성 향상<br>- 자원조성, 구조조정 등                   |                      |                |     |        |                  |
| 2. 양식어업 생산성 향상<br>-우량종묘개발, 품종개발, 사료개발 등            |                      |                |     |        |                  |
| 3. 어촌 프로그램 활성화<br>-어촌체험관광, 지역축제 개최<br>수산물 판매장 운영 등 |                      |                |     |        |                  |
| 4. 레저 및 휴양관광개발<br>-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                      |                |     |        |                  |
| 5.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br>-도로, 쓰레기 처리, 생활환경 등      |                      |                |     |        |                  |
| 6. 어촌 주민 복지 향상<br>-문화, 교육, 의료 개선 등                 |                      |                |     |        |                  |

문10-1 위 6개 항목 중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개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위 | 2 위 | 3 위 |
|-----|-----|-----|
|     |     |     |

문11. 현행 어촌개발사업(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사업규모(사업비)의 확대를 통한 완결형 모델 추구
- ② 하드웨어 지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경영컨설팅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 지원
- ③ 고용창출이나 직접적인 소득원 창출이 가능한 시설 지원
- ④ 어촌의 소득원 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의 발굴
- ⑤ 현행 추진방식대로 만족
- ⑥ 기타 ( )

문12.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13. 기타 어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 건의사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2009年 12月 29日 印刷

2009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姜 淙 熙  
發行處 韓國海洋水產開發院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

組版・印刷 / 서울기획문화사 2272-1533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